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2006. **11** Vol. 179

[www.bscculture.busan.kr](http://www.bscculture.busan.kr)

## 반갑습니다

\_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계운경

##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하늘이 내린 선율-산조(散調)

##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영화제와 함께한 생각 중 하나





그랜드오페라단 제22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제작 10년 노하우가 빛은 "명품 오페라!"  
제작비 3억원, 총 제작출연진 200여 명의 매머드급 대형 오페라!

모차르트 전문 지휘자 윤상운(동의대 교수)과  
동유럽 최고의 키에프방송교향악단이 이루는 완벽한 앙상블!

한국 최고의 파파게노 바리톤 김관동(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지난 8월부터 「마술피리」를 위해 맹연습 해 온 국내 정상급 출연진들!

뮤지컬 무대를 능가하는 총 8세트의 무대  
3각 회전축을 이용한 10여 차례의 무대 전환!  
일루전(Illusion) 마술과 특수효과를 이용한 판타지적 무대 연출!

대형 오페라만이 줄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감동,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만나 보십시오!

모차르트  
최후의 대작 오페라

# 마술피리

*The Magic Flute*

온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명품 오페라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고전 오페라

2006. 11. 12 (일) ~ 14 (화)

12일/오후5:00 13·14일/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지휘 | 윤상운(동의대학교 음악과 교수)
- | 연출 | 안지환(아리조나주립대학 오페라 연출 박사과정 수료/ 신라대학교 음악과 교수)
- | 협력연출 | 심문섭(APEC 문화축전 특별기획공연 록뮤지컬 「가락국기」 연출)
- | 오케스트라 | 우크라이나 키에프방송교향악단
- | 합창단 | 김해시립합창단
- | 출연진 | 안창섭, 전병호, 김행제, 박현정(A), 고예정, 김하나, 김관동, 김종화, 심정보, 고예진, 이윤순, 정하나, 김창돈, 김추리, 송신혁, 박현정(B), 장은영, 김소영, 이상정, 김정현, 성미진, 김동우, 이진희, 명연주, 주은혜, 서나은, 부산방송아카데미

- | 주 최 | 그랜드오페라단 김해문화의전당  
Gimhae Arts and Sports Center
- | 후 원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 | 협 찬 | 교보생명 동래병원 대현실업주식회사 대동병원  
 양산병원 SARATOGA 南興建設株式會社 YOUNGONE (주)영원무역

| 공연안내 및 예매 | (051) 809-8445

| 인터넷 예매 | 티켓365(1588-2528 www.ticket365.co.kr) 인터파크(1544-1555 www.interpark.com)  
|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 영광도서(816-9500) · 동보서적(803-8000) · 남포문고(245-8911) · 대한도서(332-7339) · 향학서점(204-9381)  
VIP석 100,000 | R석 70,000 | S석 50,000 | A석 30,000 | B석 20,000 예매티켓 무료 우편배달 서비스 (공연 7일전까지의 예매티켓에 한함)

# PRO MUSICA CHAMBER SOCIETY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 | 창단 연주 멤버 |

김영희 백재진 신상준 김동욱 이은옥 백샤론 문주연 엄세희 이성호  
김가영 김은진 전명희 유대연 신혜정 이명진 박희철 노경원

### 학생증 소지자에 한하여 50% 할인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의 가장 아카데미한 챔버 앙상블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무대입니다. 열정 속의 섬세함과 긴장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D. Shostakovich String Quartet No.8, in c minor, Op.110*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작품 110

*F.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 677 "Die Forelle"*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작품 677 송어

*W. A. Mozart String Quartet No. 21, in D major, K. 575 "Prussian"*

모짜르트 현악 4중주 작품 575 프러시안

*F. Mendelssohn String Octet in E-flat major, Op.20*

멘델스존 현악 8중주 작품 20

2006 | 11 | 4 | 토 |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관 : 스트라디 현악사 후 원 : 주식회사 독일양행

회원권 : R-5만원, S-3만원, A-2만원 공연문의 : 클래식 프로인트 051) 521-5729

- 단장, 예술총감독 / 이소영
- 지휘 / Ottavio Marino
- 연출 / 방정욱
- 오케스트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 / 아라미르 합창단 (지휘: 이성훈)
- 음악감독 / Giovanni Mastino
- 출연진 / Daria Masiero · 김경희  
Valter Borin · 이철성  
Gianfranco Montresor · 조현수  
노운병 · 김건우 · 박기범 · 김태경  
박은미 · 권경미 · 한송이 · 정승화  
이정민 · 나현규 · 이영성 · 이태영

Sol'Opera



2006년 겨울 **솔오페라단**이 선사하는 감동의 오페라



# LA BOHEME

OPERA G. PUCCINI  
라보엠

2006. 12. 4 (월) ~ 6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Sol'Opera 솔오페라단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부산일보

특별협찬 | **HYUNDAI** 부산점 DEPARTMENT STORE Mercedes-Benz

코모도호텔부 산대성 N 스텝

협찬 | **해피랜드** **Levi's kids** S.T. Dupont PARIS ETRAO

천년약속 KOMACO HiBi ORANGE PELLE BORSA vero cuoio di

여성패션 마농 부산은행 JO MYUNG RYE Haute

- VIP석 150,000 • R석 100,000 • S석 80,000 • A석 50,000 • B석 30,000 • 학생석 10,000
- 11월 15일 이전에 인터넷 및 전화예매하시는 분은 20% 할인

티켓예매처 | ☎1544-9373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 부산은행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지정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공연문의 | (051) 622-5529



접수기간  
**11.1~12.8**

a partner for life!  
Winter is...

## 제39기 겨울학기 회원모집



- ❖ 강좌기간 : 2006. 12. 1(금) ~ 3. 5(월)
- ❖ 접수기간 : 기존회원 11. 1(수) ~ 12. 8(금)  
신규회원 11. 3(금) ~ 12. 8(금)
-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 접수처 : 범내골 삼성생명 B/D 5층 문화센터
- ❖ 문의전화 : 051) 630-6301~4  
- 강좌전단을 우편 및 FAX로 우송해 드립니다. (수강접수는 현금 및 삼성카드로 가능합니다.)  
- E-mail 신청 : croon9557.lee@samsung.com

### 강좌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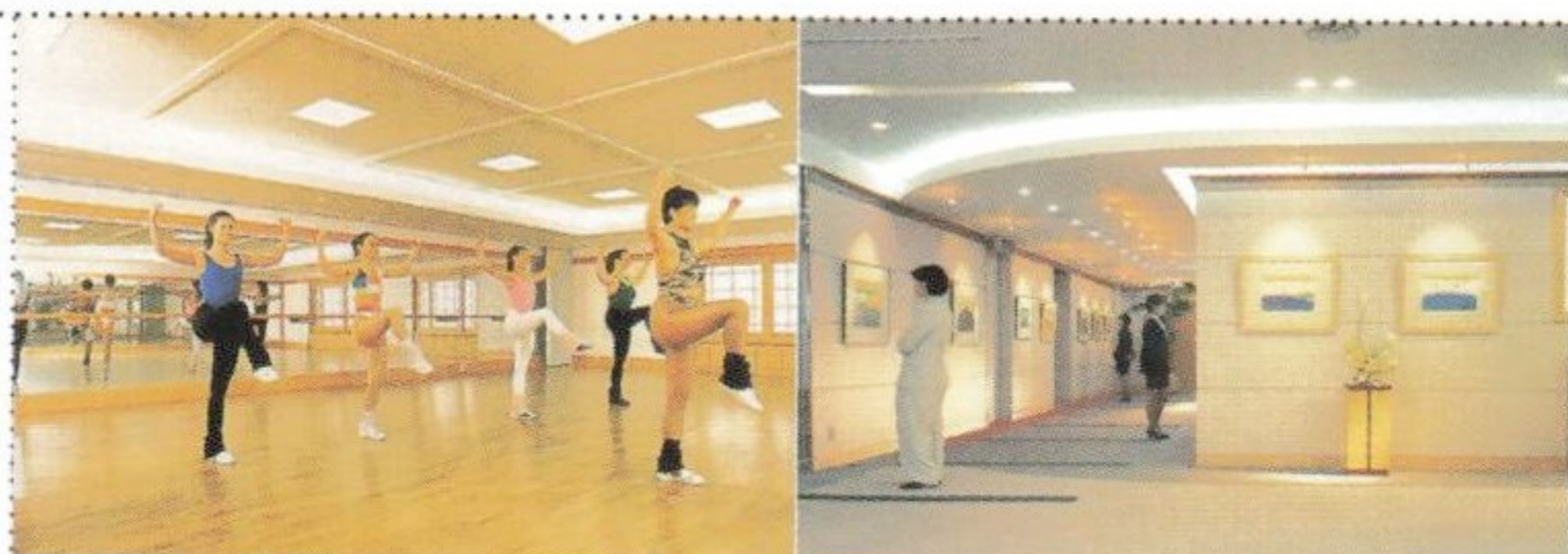
- 건강부문 웃음치료,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라틴디스코, 주부당구교실, 음악줄넘기 등
- 컴퓨터&전통부문 컴퓨터, 한국무용, 소학, 장구와 민요, 수지침, 생활역학 등
- 공예&취미부문 전통매듭, 예그아트, 손뜨개, 압화, 네일아트, 오색한지공예, 포크아트, 토피어리 등
- 교양부문 클래식 음악감상, 글씨교정반, 영어, 한자능력, 역사, 동화구연, 수학 등
- 노래&미술부문 김임경/김현호/박노섭/이주량/윤승보 노래교실, 팝송/엔카 노래교실, 서양화, 수묵화 등
- 단기특강부문 부모훈련준비, 사이버증권과정, 인터넷 경매, 부동산, 와인, 천연화장품 등
- 어린이방학특강 오감체험 교실, 오키리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등

### 회원 특전

- 삼성생명 계약자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제공(선착순 50매 한정)  
-희망하시는 분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1인 2매)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5회 정기연주회 '고전음악의 밤'  
일시 : 11/30(목) 오후 7시30분
-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그랜드 콘서트'  
일시 : 12/28(목) 오후 7시30분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범내골역 7번 출구)



### 삼성생명 문화센터 겨울학기회원 모집

## 10% 할인권

본 할인권을 가져 오시면 신규등록고객에 한하여  
수강료 금액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중복할인 불가, 일일강좌 할인 제외)

사용기간 : 2006년 11. 1(수) ~ 12. 1(금)  
문의 : 051) 630-6301~4

고3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음악회


# 『부산의 음악인』 시리즈 IV

## 19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G. Rossini : La Gazza Ladra('The Thieving Magpie') Overture / F. Liszt : Piano Concerto No.1 E-flat major  
F.J. Haydn : Cello Concerto D major / W.A. Mozart : Sinfonia concertante K.364 E-flat major

### 2006.11.27(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 임병원) [www.bso21.com](http://www.bso21.com)

• 예매처 :  부산은행 티켓365 [www.ticket365.co.kr](http://www.ticket365.co.kr) 1588-2528  
/ 남포동 문우당서점(245-3843), 국도레코드(246-0705) / 서면 영광도서(816-9500), 교보문고(806-3501)  
/ 금정 신나라레코드부산대점(518-0686), 음악자료창고(582-9143) / 대연동 면학도서(623-9404)

• 입장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청소년 5,000원

• 문 의 : BSO 051)620-4917, 4918

Piano 김문주  
(동아대 외래교수)

Violin 황지원  
(BSO 수석, 경성대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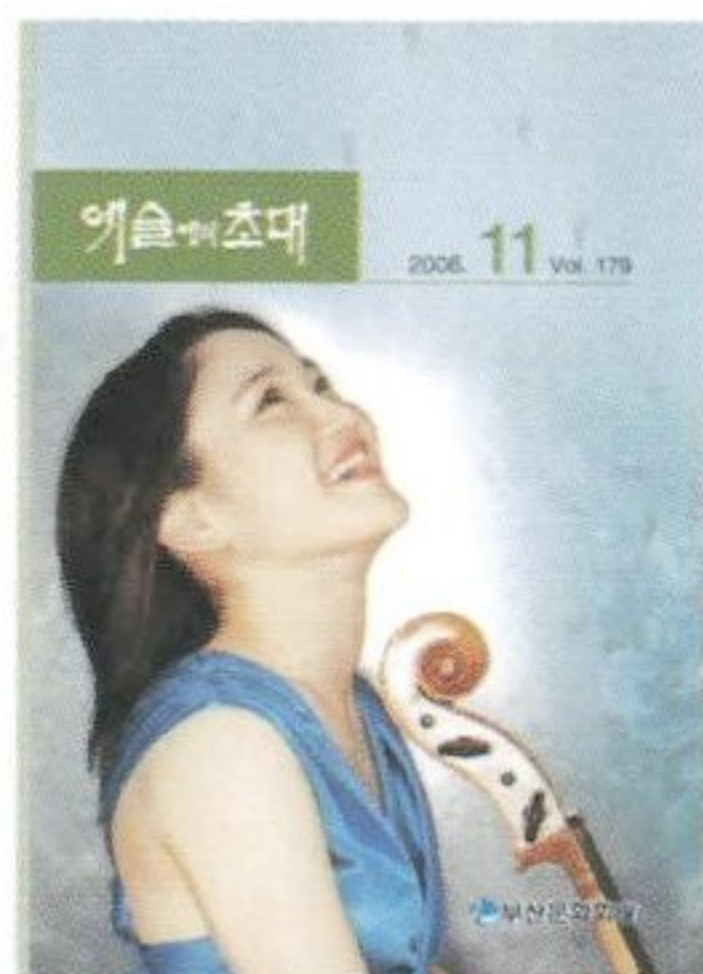
Viola 김은진  
(청원시향 수석, 부산대 외래교수)

Cello 문숙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박사과정)

지휘 오충근



- 08 부산문화회관 11월 공연 일정
- 10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11월 공연 일정
- 12 마음을 여는 글 | 나는 왜 음악회에 가는가 · 김세윤
- 14 반갑습니다 | 5년만에 부산 무대에 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 16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내 고향 부산은 내 활동의 주 무대 · 계운경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하늘이 내린 선율-산조(散調) · 홍희철
- 22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붉은 색의 풍경 -김종식 '인간가족' · 김형술
- 24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영화제와 함께한 생각 중 하나 · 김희진
- 26 연극속으로 | 짚의 계울 정복하기 '에쿠우스' · 변미선
- 28 그곳에 가면 | 작가와 소통하는 자연 속 열린 미술공간 오픈 스페이스 배
- 30 우리는 문화 가족 | 색포폰 동호회 '바다소리'
- 32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3 · 박종근
- 34 공연화제 | 2006 부산문화회관 초청 장한나 첼로 독주회
- 36 이 사람 | 부산시립무용단 '결' 연출가 황해순
- 37 부산시립예술단 11월 공연관람 가이드
- 40 11월 프로그램 가이드
- 59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1 · 곽근수
- 60 객석에서 | 일본속으로 들어 온 '고래섬' 이 첫 관객을 만나다! · 안윤희
- 62 새로 나온 음반
- 63 새로 나온 책
-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 6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6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10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 오는 11월 28일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가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5년만에 부산 연주회를 갖는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1

월 공연일정

## 국제회의실

### 2006 부산국제합창제 '세계 합창세미나'

11월 18일(토) 오후 2:00

문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전시실

### 제 26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대·중전시실

11월 10일(토)~11월 13일(월)

\*작품접수 : 10월 30일~10월 31일(대·중전시실)

\*시 상 식 : 11월 1일 오후 2:00(국제회의장)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990-7083~4)

### 제 5회 동북아시아전-대전전시실

11월 18일(토)~11월 23일(목)

문의 : 허숙(803-8830, 011-882-8150)

### 홀로사시는 어르신 돕기 작품전시회-중전시실

11월 17일(금)~11월 23일(목)

문의 : 동구노인종합복지관(467-7887)

### 부산대학교 서양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전시회-대전전시실

11월 24일(금)~11월 29일(수)

문의 : 김종민(011-9396-1580)

### 심천서화회전-중전시실

11월 25일(토)~11월 29일(수)

문의 : 박재광(622-3373, 011-862-1222)

### 제 8회 대한서화예술대전-대·중전시실

12월 1일(금)~12월 3일(일)

문의 : 대한서화예술협회(973-9973, 011-9535-1843)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11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극장

## MAIN THEATER

1	wed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손욱(011-9520-4649)
2	thu	제 3회 세원음악회 19:30 초대/미래와 음악(262-5231, 018-567-2231)
3	fri	
4	sat	
5	sun	
6	mon	
7	tue	
8	wed	부산시립무용단 제 55회 정기공연 '결(Gyeol)-우아와 장엄, 그 리고 열정'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9	thu	부산시립무용단 제 55회 정기공연 '결(Gyeol)-우아와 장엄, 그 리고 열정'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10	fri	
11	sat	
12	sun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17:0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그랜드오페라단(809-8445)
13	mon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그랜드오페라단(809-8445)
14	tue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그랜드오페라단(809-8445)
15	wed	2006 부산국제합창제 개막 공연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6	thu	2006 부산국제합창제 '민속부문 경연' 10:00~17:00, 갈라공연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7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의 진 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8	sat	2006 부산국제합창제 '시상식 및 수상 팀 기념 공연'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9	sun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동아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0	mon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고신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1	tue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신라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2	wed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경성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3	thu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동의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4	fri	제 6회 대학 교향악축제 '부산대학교' 19:30 무료/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25	sat	2006 늦가을 밤의 고성(鼓聲)방가(芳歌) 打路 TA RO III '동(同) 반(反)' 19:00 2만원 · 1만원/새울전통타악진흥회(016-557-6058)
26	sun	2006 장정윤 순수 현대무용 창작공연 16:00, 19:00 균일 1만원/동아대학교(200-7822)
27	mon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9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음악인 시 리즈 IV'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임병원(620-4917)
28	tu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한나 첼로 소나타'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5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2, 607-6070)
29	wed	
30	thu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5회 정기연주회 '고전 음악의 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2/1	fri	



# 중극장

## MEDIUM THEATER

- 1 **wed** 부산피아노 연주가클럽 제 22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2 **thu** 부산피아노 연주가클럽 제 22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3 **fri** 부산피아노 연주가클럽 제 22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4 **sat** 프로뮤지카 챔버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18:00  
5만원 · 3만원 · 2만원/프로인트(521-5729)
- 5 **sun** 부산페스티벌 기타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1만5천원/이현(019-507-2594)
- 6 **mon** 부산플루트 앙상블 제 1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장극태(011-582-5189)
- 7 **tue** 부산창작음악축제 '부산작곡가협회의 밤' 19:30  
균일 5천원/박규동(010-3122-3970)
- 8 **wed**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제 24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19:30  
초대/부산대학교(510-1739, 018-575-7968)
- 9 **thu** 부산창작음악축제 '향천회 실내악의 밤' 19:30  
균일 5천원/백승태(018-244-1723)
- 10 **fri** 부산창작음악축제 '향신회 관현악의 밤' 19:30  
균일 5천원/조영운(309-5265, 011-554-1657)
- 11 **sat** 부산전자음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 12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19:30  
균일 5천원/이동관(011-873-7983)
- 12 **sun** 2006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졸업작품 발표회 17:00  
초대/부산여자대학(850-3060)
- 13 **mon** 부산콘서트 콰이어 제 9회 정기연주회 '7080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 · 7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14 **tue**
- 15 **wed**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16 **thu** 정농악회(正農樂會) 부산연주회 19:30  
초대/엄익준(011-554-9396)
- 17 **fri** 2006 부산국제합창제 '민속, 대중음악 경연' 10:00~17:00, 갈라공연 19:30  
초대/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18 **sat** 2006 제 1회 분포예술제 17:00  
무료/부산문화(635-9081)
- 19 **sun** 제 12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5:00  
균일 1만원/원음합창단(011-871-1321)
- 20 **mon**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문주연(010-7169-0845)
- 21 **tue** 구덕의 사랑나눔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정거화(011-854-6178)
- 22 **wed** 제 46회 노엘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김명현(011-445-5854)
- 23 **thu**
- 24 **fri** 춤두레 창단 20년 기념공연 19:00  
초대/박순희(516-5783, 016-853-7855)
- 25 **sat** 제 13회 한국바로크 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이구일(011-864-0291)
- 26 **sun** 첼리스트 오펔리 가이야르 초청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문화(635-9081)
- 27 **mon**
- 28 **tue** 제 4회 새 물결 춤모음전 19:30  
균일 1만원 · 5천원/무용협회(632-5116)
- 29 **wed**
- 30 **thu** MBC 목요음악감상회 '다섯번째 세 남자의 합창이야기' 19:30  
균일 1만원/최석태(622-3147, 019-623-1547)
- 12/1 **fri**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실내악의 밤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011-597-6808)

# 소극장

## SMALL THEATER

- 1 **wed** 김희선 성악 클래스 정기연주회 18:30  
무료/김희선(622-6047, 019-391-7556)
- 2 **thu** 제 1회 석암가사 보존회 정기공연 17:00  
무료/황경재(010-6739-5300)
- 3 **fri** 김현정 현대곡 피아노의 밤 19:00  
무료/김현정(010-3355-7577)
- 4 **sat** 토요일상설무대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5 **sun**
- 6 **mon** Gioiello 정기연주회 19:30  
무료/하수정(011-822-7545)
- 7 **tue** 부산예고 '가을밤의 작은 음악회' 19:00  
무료/최윤경(010-7559-6270)
- 8 **wed**
- 9 **thu** 동요사랑회 제 13회 동요사랑 큰잔치 18:00  
무료/신진수(017-553-5675)
- 10 **fri** 전국 교수 추천 유망주 콘서트 19:00  
무료/황미영(016-759-2655)
- 11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2 **sun**
- 13 **mon** 권혜진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권혜진(631-5253, 016-585-5263)
- 14 **tue**
- 15 **wed**
- 16 **thu** 정순화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00  
무료/정순화(016-847-4914)
- 17 **fri** 풍물패 놀이새 창단 10주년 기념 제 7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3천원/박명자(011-860-1815)
- 18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9 **sun** 제 6회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가을애' 17:00  
초대/김정희(017-552-4106)
- 20 **mon**
- 21 **tue**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피아노교수음악회 19:30  
초대/예은예술기획(632-6904)
- 22 **wed**
- 23 **thu**
- 24 **fri**
- 25 **sat**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정가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6 **sun** 한울림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이순희(017-563-5067)
- 27 **mon**
- 28 **tue**
- 29 **wed**
- 30 **thu**
- 12/1 **fri**

부산시내 기타공연 11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wed** 제 17회 이견음악회 19:30 -대극장  
초대/(주)이견창호시스템(557-2071)
- 2 **thu** 제 3회 창작관악곡 연주회 19:00 -대극장 박종희(016-566-6410)  
영어곡 '솔로몬의 생각주머니' 10:20, 11:20 -소극장 극단김치먹은영어(816-8904)
- 3 **fri**
- 4 **sat** 2006년 김정순발레단 공연 15:30, 19:30 -대극장 김정순(866-4330)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2:00, 14:00, 16:00 -소극장
- 5 **sun**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극단 서울도깨비(050-2134-2580)
- 6 **mon** 월요일영화 '애틀 불리'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마약퇴치연극제 10:00 -소극장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7 **tue** 2006 부산플루트음악축제 19:00 -소극장  
초대/이하룡(011-9535-0421)
- 8 **wed** 천주미 가야금병창 발표회 19:00 -소극장  
초대/천주미(011-9712-8893)
- 9 **thu** UKO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대극장 UKO(731-4470)  
상록수합창단 연주회 19:00 -소극장 박형태(010-5777-7057)
- 10 **fri** 다함께 사랑으로 노래를! 18:30 -소극장  
무료/허인순(010-5791-7997)
- 11 **sat**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12:00, 14:00, 16:00 -대극장 이광일(016-422-9770)  
노래야 나오너라 2006년 정기공연 16:00, 19:00 -소극장 부산민예총(807-0490)
- 12 **sun**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13:00, 15:00 -대극장 이광일(016-422-9770)  
우리국악 다스름 연주회 17:00 -소극장 무료/성기동(011-9527-0043)
- 13 **mon** 월요일영화 '센티넬' 14: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7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 14 **tue** 제 7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15 **wed** 제 7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16 **thu** 제 7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라고 외쳐봐' 10:00 -소극장  
초대/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 17 **fri** 동아대학교 합창 정기연주회 19:30 -대극장 홍사무엘(010-3033-3732)  
밀레니엄 현악4중주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소극장 정덕원(017-554-7292)
- 18 **sat** 어린이뮤지컬 '난다난다 니안다'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극단 미르(010-9613-0426)
- 19 **sun** 어린이뮤지컬 '난다난다 니안다'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극단 미르(010-9613-0426)
- 20 **mon** 월요일영화 '레이디 인 더 워터'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1 **tue** 한낮의 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22 **wed** 극연구집단 시나위 '아프리카 신드롬' 9:00, 11:00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23 **thu** 극연구집단 시나위 '아프리카 신드롬' 9:00, 11:00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24 **fri** 극연구집단 시나위 '아프리카 신드롬' 9:00, 11:00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 25 **sat** 박강성 콘서트 19:30 -대극장 라이브플러스(02-522-9933)  
극연구집단 시나위 '아프리카 신드롬' 16:00, 19:30 -소극장
- 26 **sun**
- 27 **mon** 월요일영화 '월드 트레이드 센터'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8 **tue** 수험생을 위한 전통춤 들여다보기 15:00, 19:30 -대극장 짓무용단(200-7819)  
부산 색소폰앙상블 페스티벌 19:00 -소극장 최광호(290-5061)
- 29 **wed** 여성창무극 '무영탑' 19:30 -대극장  
2만원 · 1만원/국악협회 부산지회(644-5211)
- 30 **thu**
- 12/1 **fri**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wed** 부산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성낙천(010-3354-3639)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 2 **thu** 2006 부산생활음악축제 19:30 -대공연장 조익래(010-9878-7942)  
김소희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 3 **fri** 사랑의 자선음악회 19:30 -대공연장 (사)한끼의 식사대금(731-7741)  
해운대 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장숙혜(011-862-6675)
- 4 **sat** Tone in Free Brass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김두천(010-2559-7569)  
한새 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18:00 -소공연장 함미영(010-2445-4114)
- 5 **sun**
- 6 **mon**
- 7 **tue** 강미리 홀 무용단 창작춤 공연 '뽕' 19:30 -대공연장  
균일 1만원/강미리(510-2948, 011-9301-1074)
- 8 **wed** 강미리 홀 무용단 창작춤 공연 '뽕' 19:30 -대공연장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 9 **thu** 문화강좌 수강생 한마당잔치 14:3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앙상블클라시어(506-6305)
- 10 **fri**
- 11 **sat** 우리가곡의 향연 19:30 -소공연장  
3만원 · 2만원/나모기획(9000-369)
- 12 **sun**
- 13 **mon** 부산여교사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박화순(011-864-1471)
- 14 **tue** 동성초등학교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동성초등학교(803-8987)  
김미선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15 **wed** 부산과 제주의 추억과 만남콘서트 19:30 -대공연장 손욱(011-9520-4649)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6 **thu** 베이스 김일석 귀국 독창회 19:30 -소공연장  
초대/김일석(010-3103-3308)
- 17 **fri**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 초청독주회 19:30 -대공연장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633-8990)
- 18 **sat** 김진희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강백천류 대금산조 발표회 19:00 -소공연장 신수길(011-858-5934)
- 19 **sun**
- 20 **mon** 부산신포니에타 제 56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1만원 · 6천원/김영희(510-2911)
- 21 **tue** 부산목관5중주 2006년 정기연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장극태(011-582-5189)
- 22 **wed** 암모암모 콘서트 10:00, 19:3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 23 **thu** 신라대학교 무용과 졸업작품발표회 19:00 -소공연장  
초대/이유해(010-6482-5680)
- 24 **fri** 타오 10:00, 19:30 -대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25 **sat** 페르티바 플루트와이어 제 2회 정기연주회 17:00  
1만원 · 5천원/페르티바 플루트와이어(011-9503-2078)
- 26 **sun** 남산놀이마당 회원 풍물대동굿 '큰굿' 17:00 -대공연장  
초대/남산놀이마당(516-4434)
- 27 **mon**
- 28 **tue** 이윤자의 춤 '씻음' 19:30 -대공연장 초대/부산대학교(510-1740)  
앙상블 클라시어 전국순회공연 19:30 -소공연장 앙상블클라시어(506-6305)
- 29 **wed**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1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김용조(010-4568-3995)  
금정수요음악회 19:30 -소공연장 금정문화회관(519-5651~2)
- 30 **thu** 광주남성합창단 초청 영호남 합창제 19:00 -대공연장  
초대/이경석(011-592-1518)
- 12/1 **fri**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11/12(일) 17:00 11/13(월)-14(화) 19:30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마술피리'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그랜드오페라단 (809-8445)
	11/26(일) 19:30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야르 초청연주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5,000원	10%	(사)부산문화 (633-8990)
	11/28(화) 19:30	장한나 첼로 소나타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1/17(금) 19:30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 초청독주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10%	(사)부산문화 (633-8990)
KBS 부산홀	11/2(목) 19:30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앵콜공연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20%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11/18(토) 19:00	임재범 데뷔 20주년 기념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10%	(주)엠스톤 (622-5744)
글로벌아트홀	11/21(화) 19:30	재즈피아니스트 Vian(김성배)연주회	균일 20,000원	2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가마골소극장	10/27(금)-11/5(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바리데기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11/10(금)-11/19(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류의 노래	균일 20,000원		
	11/22(수)-11/26(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노라, 인형의 집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YAMAHA**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야마하 공식 A/S점

# 나는 왜 음악회에 가는가

김세윤 ·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몇 해 전에 친구가 우크라이나를 사업차 며칠 다녀왔다. 귀국 보고회라는 핑계로 술을 마시면서 입·출국할 때의 어려움, 그 사람들의 사업방식, 현지 교통수단이나 숙박시설, 음식이나 술 등 그곳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

그 가운데 친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기가 묵은 방의 청소를 맡은 처녀의 말이라고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날 때-내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상대방의 경제적 소득일 것이다. 그 친구 역시 그랬다.

“한달에 얼마 버느냐? 적은데 그걸로 생활이 되느냐?”

“넉넉하진 않지만 쓰고 조금씩 저축할 정도는 된다.”

“저축이라, 저축해서 뭘 사려고 하느냐?”

“뭘 사려는 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 오페라 구경하려고요.”

돈벌이 가지고 상당한 우울감을 과시하려던 친구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이런 시골 처녀가 오페라를 구경한다니... 가만있자, 나는 이제까지 음악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가난한 이 처녀는 왜 그런 걸 보러가나. 분수에 넘치는 취미생활이 아닌가.’

그런데 그 처녀 말이 그곳의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생활을 즐긴다고 한다. 내 친구는 계속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평소에 노래방 출입하는 것 이외에는 음악과 동떨어져 있던 친구는 그녀의 생활에 꽤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고전음악 입문에 대해 물어왔다.

“너는 음악을 좋아하던데, 오페라가 들을 만 한 것이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건 상당한 내공을 쌓은 뒤에 가야하고, 먼저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 같은 것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좋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곧 입장료는? 어디서 연주하는가? 부산문화회관은 어디 있는가? 복장은 어떻게? 정기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가? 그럼 그걸 가입해 볼까? 등등 궁금한 것이 계속 쏟아진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데리고 갈 테니 그때 가보고 결정하지.”

그러자, 갑자기 내 마음은 마치 전도사업에 성공한 사람처럼 들뜬다. 친구가 또 묻는다.

“음악회에 두어 번 가면 고전음악에 금새 친숙해질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상당히 들여야 하지. 먼저 CD를 구입해서 집에서든, 차에서



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들어야 해.”

“그런가, 그럼 음악회의 연주시간은 얼마나 되지?”

“보통 두 시간 정도.”

“그럼 그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는가.”

“그렇지.”

“어지간한 고역이 아니겠네.”

조금 주춤해진다. 가만히 친구의 표정을 들여다보니, 친구의 주된 관심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음악회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음악회에도 다니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는 느낌이 와 닿는다. 다소 실망스럽다.

물론 그 뒤에 그 친구와 함께 연주회에 간 적이 없다. 예약하고 전화하면 언제나 사업상 바쁘다고 한다. 결국 음악의 신 앞으로 길 잃은 양을 한 마리 데려가려는 나의 노력은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약간 속상하지만 이렇게 자위해 본다. 그래, 그 친구는 음악을 잘 모르니 처음에는 들어 봤자 소음에 불과할 테고, 공연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고문일 테고, 더욱이 시간에 쫓기니 음악이 생활의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뒤쳐질 수밖에. 클래식 팬이 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 나는 왜 음악회에 가는가. 나는 과연 그 친구와 다른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기계적으로 음악회에 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음악회에 다닐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음악회에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으며, 음악회에 다닐 만큼의 정신적 여유도 있고, 음악을 이해할 만한 지적 수준도 있으며, 음악회에 장시간 앉아 있을 정도로 고도의 자제력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수준 높다고 하는 클래식을 먼저 좀, 많이 좀 들었다고 잠시라도 으스대 지나 앉았나. 고전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한 적은 없는가. 고전음악은 고상하고 우아한데, 대중음악은 천박한 것이라고 한번이라도 비하하지는 않았는가.

걸치레와 교만함으로 무장한 속물의 범주에서 나는 벗어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더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럴수록 다시금 음악 본래의 그 크나큰 힘을 믿고 그 힘에 기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음악회 소식을 접하면, 발걸음은 이전만큼 가볍지는 않겠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며 공연장으로 갈 준비를 또 할 것이다.

## 5년만에 부산무대에 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오는 11월 2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갖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를 연주회에 앞서 서면으로 만나본다.

▷부산문화회관에서의 연주는 오랜 만입니다. 부산에 대한 인상은?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01년 독주회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하면 저는 맛있는 낙지볶음과 갈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방문할 때 마다 달라지는 부산의 생생한 도시 풍경이 인상이 깊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 청중은 더 활발하고 생기가 있지요.

▷예전 부산연주 때 모습과 달리 이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가로 인생 외 여인으로 꿈꾸는 모습은?

지금은 음악가로 하고 싶은 일에 더 욕심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음악가와 휴머니스트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음

악교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클래식음악을 접하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좀더 재미있고, 쉽고, 부담없이 음악을 알게되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정서적 삶이 클래식음악을 통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가 자신의 음악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며, 혹시 지장을 주는 면도 있나요?

대학공부는 저의 인간적 성숙을 위한 공부이지만, 음악에 비하면 아주 심각한 취미활동일뿐입니다.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지적토대를 가지고 마음이 성숙하면 음악가로써 활동하기에 앞서 한 사람, 또 한 여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 보다도 공부자체를 계속 한다는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음악가분들을 보면 끝없이 독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공부와 첼로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첼리스트라는 직업 외에 다른, 졸업 후의 계획은 어떤가요?

첼리스트는 직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적입니다. 음악가는 24시간 음악가로 삽니다. 다른 어떤 것도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음악적 영감은 주로 어디서 많은 영향을 받나요?

음악적 영감은 외면/내면 둘 다 영향을 줍니다.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본다해도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안에 있다(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는 말 같이,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외면에서 얻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곡들 중 관심을 두고 있거나 계획에 있는 곡이 있나요?

아무래도 첼리스트로써 꼭 넘어야할 곡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바라만보며 전진했더니 갑작스레 눈앞에 나타난 산 정상과도 같은 곡들이지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베토벤 첼로 소나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조곡이 그런 곡들입니다.

▷5집 쇼스타코비치 앨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해 2006년이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입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참혹한 스탈린 정권에서 평생을 살얼음판 걸듯 살면서 폭발적인 음악을 창조한 20세기의 거인입니다. 이번 내한연주 때 첼로 소나타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화산같은 정열과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마치 얼음장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녹히기 보단 더 애타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미, 그리고 아이러니가 넘쳐서 더 이상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늠하기 힘든 유머, 이 세가지 요소의 만남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세계에서만 느낄수 있습니다. 제 앨범에는 첼로 협주곡 1번과 첼로소나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London Symphony Orchestra, 지휘/피아노 Antonio Pappano)

▷다음 음반은 언제쯤 녹음할 계획인지?

제 6번째 앨범은 지난 여름 로마에서 녹음했습니다. 내년 봄에 나올 예정인데, 낭만시대의 소품들로 꾸몄습니다. 귀에 아주 낯익은 곡들(예를 들자면 Offenbach의 Tears of Jacqueline) 부터 거의 잊혀진 곡(예를 들자면 Glazunov의 Melodie)까지 19세기 후반 소품의 절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랄로(Edouard Lalo)의 첼로 협주곡도 같이 수록이 됩니다. 이 곡 역시 19세기 후반에 작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반은 후기 낭만시대의 Complete Packag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내 고향 부산은 내 활동의 주 무대

계운경 · 다큐멘터리 감독,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부산은 어떤 곳이며, 나는 부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타인의 이야기를 다큐로 담아내다가 막상 나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려니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자.

부산은 나의 활동 무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들과 가끔씩 만나곤 했었다. 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이었기에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숨통을 트기도 했다. 하지만 뜬금없이 이루어지던 그 모임마저도 함께 활동했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하나둘씩 이 분야를 떠남으로써 지금은 함께 모일 사람이 없다. 물론 서로 바빠서 어떤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수의 감독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미루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흠여짐 혹은 지연은 부산에서 예술영화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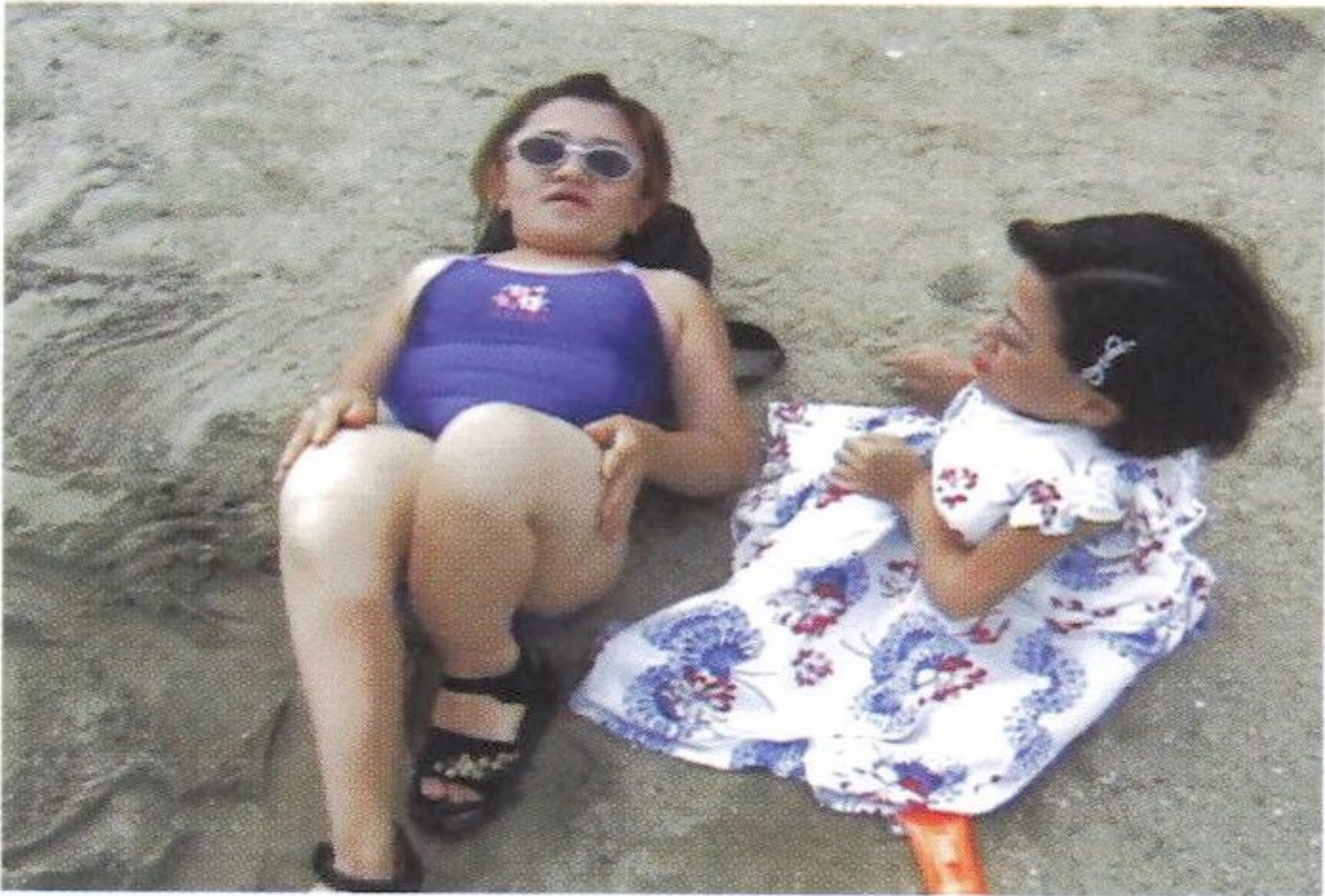
사상 유래 없이 성공적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 부산에 세워질 계획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으며, '영상도시 부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부산이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발전의 시작은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AND(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Asian Network of Documentary) 펀드를 통해 부산·경남지역 대학과 사업체들이 출연한 1억3천만원을 15명의 아시아 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다큐멘터리를 활성화하고 완성 작품을 아시아 각국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지원들이 확대되어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된다면 10년 뒤, 20년 뒤의 다큐멘터리 분야 또한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한다.

나에게는 또 다른 부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다큐멘터리 속의 부산이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부산에 돌아와 찍었던 첫 작품 <팬지와 담쟁이>(2001)는 각종 영화제를 통해 수상의 영광(?)을 많이 안겨 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기도 하지만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분석의 틀과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흥미로웠다.

<팬지와 담쟁이>는 우리 사회의 주변부 인물인 여성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이다. 수정과 윤정 자매의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니인 수정이 과연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를 관객이 갖게끔 지속시키면서 전개된다. 장애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 작품은 '결혼'에 관한 단상이라는 작고 좁은 소재를 통해 장애인 자매의 주관적인 '인간적 고민'을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팬지와 담쟁이>를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화창한 봄날 벚꽃이 휘날리는 남천동 벚꽃 길을 걷어가는 수정, 윤정 자매의 모습이다. 그 때 광안리에서 열린 노래자랑에서 예선 탈락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걷어가는 그들의 모습 위로 떨어지던 꽃잎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사실 그 벚꽃보다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곳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다. 그곳은 바로 <나의 선택, 가족>(2004)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육아공동체 '그루터기'가 자리 잡은 남산동이다. 물론 그 곳에 아름다운 경치나 눈에 띄는 건물하나 없지만 그 어떤 곳 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 곳에 가족을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루터기'는 일곱 가족이 모여 살면서 육아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이다. 핵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면서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삶은 무척이나 불안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들은 자유, 위로, 사랑, 배려, 인내, 양보, 기쁨, 등등을 배우고 또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얻고 있었다.

아주 평범한 각각의 가족들이 만나서 스스로가 공동체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을 특별한 삶으로 또 특별한 사람으로 잘 가꾸어 살아가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일곱 핵가족이 모여 더 큰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루터기'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족은 위기나 해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계운경 감독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부산에 돌아와 찍은 첫 작품 '팬지와 담쟁이(2001)'.

전략적 변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남산동 한 빌라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루터기'는 말하고 있었다.

지금 작업 중인 장편 다큐멘터리 <언니>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함께 시작된 다큐멘터리이다. 부산의 성매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공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가 묻어두고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한과 슬픔이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도 엄연히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성매매를 금

지하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는 남자가 술을 마시면, 혹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관행이었기에 성매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라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된다.

나는 장편 다큐멘터리 <언니>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의 자발성 문제와 직업으로서 성매매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또한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 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빌어 말하고자 한다.

'내 고향 부산'은 내게 활동의 주 무대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작품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부산은 나에게 단순한 거주지나 객관적인 지역이 아니라 나와 부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탄생한 '활동의 무대',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되어 나와 분리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부산은 꼭 끼어서 불편하거나 어색한 정장이 아니라 늘 입을 편안해진 낯은 청바지 같다고...

## 섬세하고 주제 의식 분명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 다큐멘터리 감독 계운경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나면 오히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악조건 속에서 부산 독립영화계를 지켜온 다큐멘터리 감독 계운경. 경성대학교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한 계운경은 영화계에서는 유일한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다큐멘터리 분야가 여자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계운경 감독은 많은 여성들이 접근하지 않는 분야라서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접근 방식이나 표현이

오히려 섬세할 수 있어 이점이 많다고 한다. 계운경 감독도 섬세하고 주제의식이 분명한 작품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찍어도 배급과 상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산에서 작품을 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미국 유학 중 다양한 배급망과 관객을 가진 그곳의 작업 환경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는 계운경씨는 잘 찍은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촬영이 끝나면 상영할 곳을 찾느라 더 바빠진다. 계운경 감독은 2001년 귀국해 처음으로 발표한 다큐멘터리 ‘팬지와 담쟁이 Pansy & Ivy’로 그 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팬지와 담쟁이 Pansy & Ivy’는 대종상영화제 다큐멘터리상과 일본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국제 영화제 네픽상,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다큐멘터리부문, 한국독립단편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촬영한 ‘언니’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AND)에서 부산 경남 우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주어지는 ‘동의시네마 펀드’를 수상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계운경 감독에게 ‘동의시네마 펀드’상을 안겨준 ‘언니’는 성매매 여성문제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작품이다. 열악한 제작 여건속에서 받은 지원금 1천만원은 후반 작업에 큰 힘이 된다.

## 하늘이 내린 선율 - 산조(散調)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보통, 슬픈 음악, 한(恨)의 음악 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국악하면 왠지 과거 지향적이고 슬프고 비통한 선율 등을 떠올린다. 국악은 과연 한(恨)의 음악인가? 국악은 모두 슬픈 선율만을 가졌을까? 과연 그럴까?

얼마 전 가야금을 전공하는 한 여고생의 연습장면을 엿볼 기회가 있었다. 너무도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콧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이 분명 최선을 다해 연주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 학생은 음정박자 모두 다 틀리게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마냥 열정적으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툴게 연습하는 그 어린 여학생의 연습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전문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그 어떤 프로 연주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앓된 손가락으로 그 어려운 가락과 음악기교를 구사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나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좀 어렵고, 좀 낯설더라도 우리음악의 맥을 잇기 위해 저토록 어려운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한 분명 한국음악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린 여학생이 연주했던 곡은 산조(散調)라는 곡이다. 산조는 느린 장단인 진양조에서 시작해 서서히 빨라지는 중모리와 중중모리를 지나 빠른 장단의 자진모리와 휘모리 등으로 끝맺는 기악독주곡으로서 국악에서는 거의 모든 악기에서 연주되는 곡이다.

산조는 연주자의 음악성과 음악적 끼, 심지어 연주자의 성격, 철학까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의 곡이라 할 수 있다. 즉흥성의 음악에서 출발해서인지 산조라는 곡은 지금은 그 틀이 짜여있지만 산조가 가진 본능 즉, 자유분방하고 특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조를 연주하는 이들은 연주 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하는 곡이 이 산조라 할 수 있겠다.

산조는 약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 조선중기 이후 무렵이 산조의 탄생 배경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작곡이 아닌 한, 음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음악은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 의해 작곡된 곡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완벽히 독립된 창작은 없다고 볼 때, 이 산조라는 곡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싹이 자라고,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산조라는 곡으로 재탄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산조는 연주자의 음악성과 음악적 끼, 심지어 연주자의 성격, 철학까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의 곡이라 할 수 있다.(사진은 거문고산조 연주모습)

어쨌든 산조는 오늘날 국악을 전공하는 이들에 의해 예고, 음대의 입시곡에서부터 인간문화재급의 명인 연주자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주되며 사랑받는 곡이라 할 수 있다.

산조 선율을 듣고 있다 보면 가끔, 비통하고 한 맺힌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슬픈 감정을 이 산조에서 느낄 수 있다.

그렇다.

국악은 한의 음악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민족의 역사를 보자.

어떤 민족이든 한 민족의 음악은 그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수 천년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살만하면 이런 전쟁의 반복과 가족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겪은 민족이 왜 한이 없겠는가? 아니 한스러움이 없으면 도리어 이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음악에는 한스러움이 배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스러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익살스럽고 흥겹고 강인하고 역동적인 선율이 더 많다. 우리민족은 고난과 슬픔을 한으로만 표현하고 주저앉지 않았다. 산조를 듣다보면 처음에 슬프고 한 맺힌 가락이 연주되는 듯 하다가 어느샌가 슬픔을 딛고 신명나고 흥겨운,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밝고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산조의 뒷부분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악을 한(恨)의 음악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 국악은 흥과 신명을 향해 나아가는 음악인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음악, 강한 외세의 침략에 고통당하며 흐르는 눈물을 극복해 나가는 선율을 가진 음악, 이 국악이 2006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네 선조들이 물려 준 선물인 것이다.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선물, 슬픈 역사와 희망찬 내일을 염원하는 선물, 산조...

사색과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아쟁산조, 해금산조, 대금산조, 피리산조 등... 산조의 바다에 한번 폭 빠져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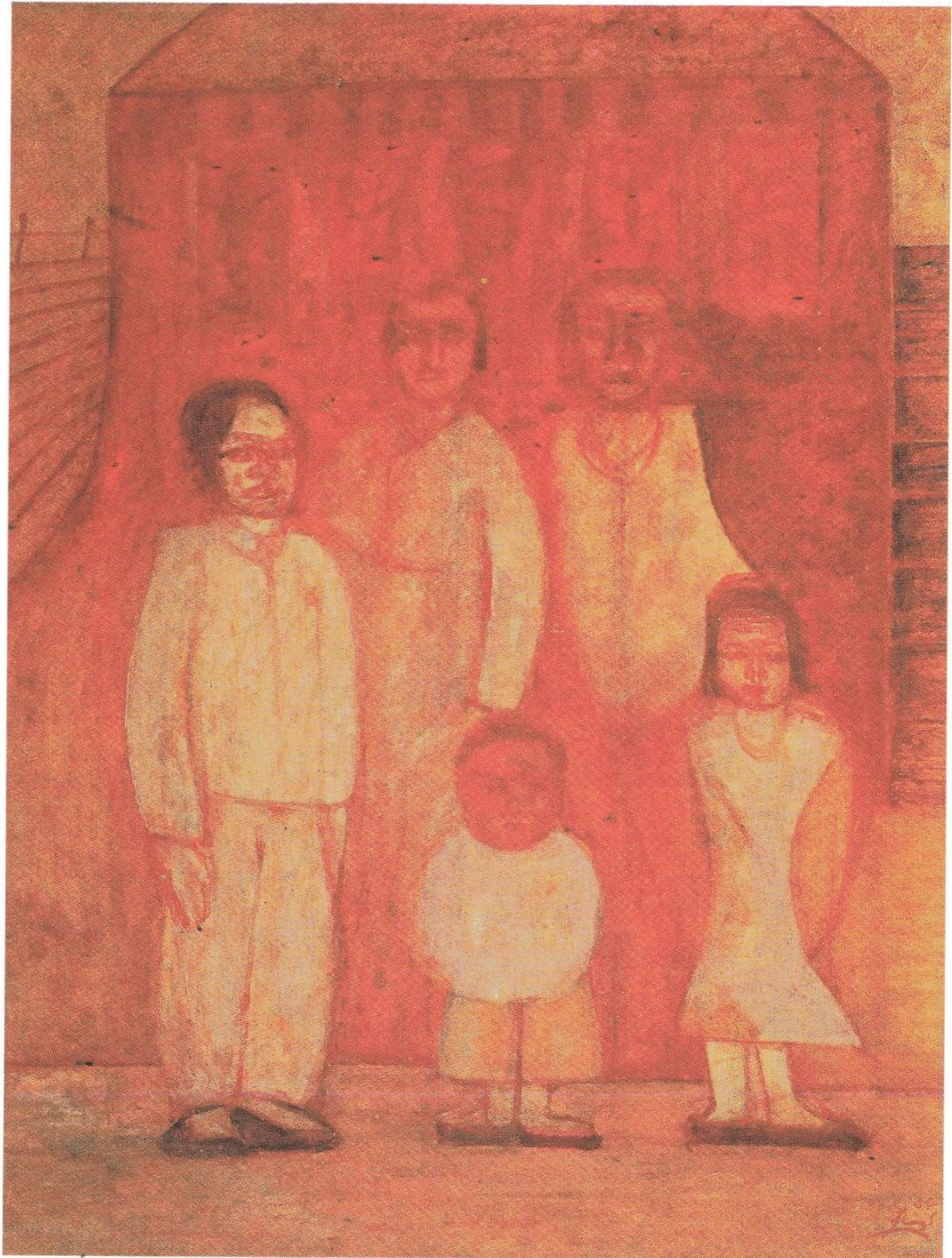
# 붉은 색의 풍경

## - 김중식의 그림〈인간가족〉

김형술 · 시인

어릴 적 시골집 대청마루엔 낡은 사진틀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속엔 가족 구성원들의 첫돌사진이며 졸업사진, 결혼사진에서 장례식 사진, 심지어 나들이를 가서 찍은 흑백 사진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처럼 어느 집을 가나 볼 수 있는 필수품목 같은 것이었다. 한 개의 사진틀을 뺏뺏이 채운 사진틀로도 모자라 그 액자 속에 꼭 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진이 생길 경우 액자의 유리 밖 귀퉁이에 사진을 꽂아두기도 했었는데, 더러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세피아 모노크롬의 색깔로 바래지기도 하던 그 사진들 속엔 한 집안의 내력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집을 방문할 경우 일일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그 사진틀을 그저 올려보기만 해도 그 집안의 내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를테면 사진으로 이루어진 가계도 같은 것이었다. 눈과 코와 귀같은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둥글고 네모난 얼굴의 윤곽이며 또 개개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인상들까지 엇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올망졸망 한자리에 모여있던 가족사진틀. 그 사진틀 속의 얼굴들 속엔 한 집안의 내력이, 한 세대의 표정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고 또 구별하게 하는 시간의 흐름이 굽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크고 낡은 사진틀들이 집집마다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핵가족이라는 아주 이상한 단어를 더 이상 이상하게 느끼지 않게 되는 시대를 맞았었다.

김중식 화백의 1954년 작품 〈인간가족〉의 첫인상은 강렬한 붉은 색이다. 핏빛이거나 혹은 인주빛의 붉은 색. 추상적으로 묘사된 집과 울타리와 담장을 배경으로 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 또한 굵고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작품이 제작된 1954년이면 3년 1개월의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듬해였으니 전쟁이 끝난 직후 사람들의 삶이 더할 나위없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엮을 것이다. 안온한 일상은 붕괴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죽음의 공포와 가난의 고통에 시달렸을 사람들에게 당시는 분명 핏빛으로 붉은 시대였을 것이다. 그러니 한가족을 둘러싼 배경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의 얼굴들까지 핏빛으로 채색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붉은 색, 핏빛의 의미는 같은 민족, 즉 상징적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진 가족해체의 핏빛 낭자한 싸움이었으니. 그러니 흰옷을 입은 가족들을 둘러싸고 있거나 얼굴과 흰옷을 물들인 붉은 색이 암시하는 바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 가족구성원들의 배치며 포즈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묘한 애뜻함과 살가움이 느껴진다.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절이 아닌 연결, 배타가 아닌 이해의 감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통해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피의 색깔이며 감축이고 향기이지 않을까.



김종식의 그림<인간가족>(91x116cm, oil on hard board,1954)

대청마루 한가운데 걸려 한가족의 일상을 내려다보며 무언의 권위와 규범을 이야기하던 낡은 가족 사진틀이 그저 기억 속으로 내려져 잊혀져가는 지금은 가족해체의 시대, 대안가족이 대두되는 변화의 급류가 휘몰아치는 시기이다. 사람들의 삶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테두리에 묶이기 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적 삶이 존중받고 또 존중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길들여져 간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변화이고 욕구이기도 하며 그것들은 또한 옛 삶의 방식들이 그러했듯이 또한 새로운 전통이 될 터이고 또 허물어 질 것이다. 그럴 때 한 세대를 증언하고 암시한 이 그림을 새삼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한가로운 여기에 속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김종식 화백의 이 그림 <인간가족>에서 역설적이게도 어떤 시대, 어떤 시간도 허물지 못하는 인간의 원형적 관계의 가치, 혹은 풍경의 의미가 느껴진다.



## 영화제와 함께한 생각 중 하나

김희진 · 영화감독

올 해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인 외양으로 마무리 되었다. 아직 폐막식이 거행되지 않은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이번이 없는 한 영화제는 무리 없이 종결될 것이다. 매년 규모가 커져가는 영화제를 탄할 순 없지만 이러한 성공 이면에 아무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행사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수행해 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길 것이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잘 못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는 법이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 일반론이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다른 국제적 문화 행사와 비교해 본다면 월등히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규모로 보나 평가로 보나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행사가 틀림없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를 타 행사와 비교하면 할수록 차별되는 부분만큼 공통점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공통된 지점은 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다.

올 한 해 지켜 본 부산의 국제 행사들 중 대표적인 문화 행사는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등이 있다. 대부분의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 그것은 미세하면서도 기술을 요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공통성은 주관적으로 볼 때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여기서 출발은 인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소위 인프라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문화 행사의 특성상 일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전문적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면 우리 전문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능력 있는 인력과 관리 시스템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차후에 논하더라도 최소한 십년을 넘긴 부산국제영화제에 있어서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분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화제의 꽃이라고 불리곤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살펴보자. 자원봉사자 모집 경쟁이 마치 대기업 입사를 방불케 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문적이다 라는 얘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타 문화 행사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더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 나름의 자율성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 인식하거나, 심하게는 정서적 공허를 느끼는 듯 보인다. 단순화해서 그들을 행사기간 중 일비를 받기 위한 아르바이트나 학점을 받기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력과 시스템의 잘못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단순히 일을 알려주고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감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고 더 나은 상태로 스스로 찾아 가게끔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각적 매체를 다루는 영화제로서 전체적인 시각적 디자인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다는 점은 분명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영화가 단지 시각 매체만이 아니듯 영화제 역시 메타 감각적이면서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는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표를 받거나 통역을 하거나 짐을 나르고 정리하거나 무엇을 하든 영화제를 구성하는 인력들의 움직임과 소리들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그건 영화제가 영화 이상의 또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수없이 어긋난 조각들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다가 영화제 포스터에, 상영되는 영화의 감동에 모든 것을 잊으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지 못하다.

영화제를 찾는 사람들은 각 차이별로 나름의 불만을 느낄 수 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작은 분명 총체적 디자인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앞서서 이를 보완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교육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재는 결국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자원봉사자의 부분이든,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스템이든, 모든 부산 문화 행사의 현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사람을 교육하고 그 교육이 어떠한 목표에 이르고 개별의 인자들이 각자의 주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얘기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다들 어떻게든 행사를 치러내고 주최측이든 참여자들이든 모두 이렇게 치러지는 것이 다 인양 받아들이며 쉽게 결과를 마무리 짓고 만다. 그게 지금껏 지켜봐 온 현상이다. 그리고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한 사람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육성해야 한다. 대학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 같다. 기업화된 대학처럼 기업화된 문화 기획단체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화 되어가는 대학교수들처럼 획일화 되어가는 문화 종사자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문화 행사가 된 듯하다. 그래서 총체적인 질문을 이 영화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번씩 더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짚의 계율 정복하기

## - <에쿠우스>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알런] 나의 옆구리 나의 발굽 같기털이 채찍처럼 나부낀다. 다리위로, 옆구리로, 알몸, 알몸! 나는 알몸이다. 알몸! 나를 느끼는가! 내 몸 위에, 몸 위에, 위에 네 놈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 너와 일심동체가 되고 싶다. 영원히 영원토록 에쿠우스 너를 사랑해! 자 데려가 다오. 우리를 하나로 만들라. (알런, 광란하듯 에쿠우스를 달리게 한다) 하나로, 하나로 한 사람으로 (알런, 말의 등에 올라서 트럼펫처럼 소리를 낸다) 히히 - 아! 히히 - 아! 히히 - 아! 히히 - 아! 히히 - 아! 히히 - 아! (알런, 불길처럼 뒤튼다)

눈빛이 매서운 남자가 웅크리고 있을 때는 그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건드리면 표범이 튀듯 하늘로 비상할 것이다. 이것이 알런이다. 알런의 대사만 보아도 젊은 남자배우들은 심장이 떨 것이다. 한 번쯤은 햄릿이나 알런과 같은 역을 맡아 혼신의 역량을 다하고 싶은 것이 남자배우들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가능성 있는 젊은 남자배우가 알런의 역을 맡아 잘만 해낸다면 대배우로 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역대 알런은 그것을 대변한다. 강태기, 송승환, 최재성, 최민식, 조재현 등. 이 작품을 쓴 영국인 출신 작가 피터 웨퍼는 미국에서 이 작품을 쓰고 1975년 토니상을 수상한다. 당시의 공연에 알런으로 출연했던 톰 헐스는 그 작품으로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고, 이후 피터 웨퍼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모차르트 역을 맡기도 했다.

<에쿠우스>는 6마리의 말의 눈을 찌른 17세 알런과 그의 정신치료를 수락한 다이사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나는데서 시작한다. 범죄에는 그에 걸맞은 환경이 존재한다. 다이사트는 알런의 주변인물과 알런의 상태를 통해 그의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추론해 나간다. 알런은 자폐적 증상으로 인해 저능으로 치부되어 학교 교육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머니의 종교 위주의 교육에만 의존한 채 자라게 된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무종교주의자로서 관심과 애정보다는 권위로 알런을 대할 뿐이다. 알런이 그리스도의 사진에 광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는 그 자리에 말의 사진을 걸어놓게 되고, 알런은 대체된 이미지 속에 자신만의 종교를 키워나가게 된다. 소위 말과 자신이 한 몸이 되어 신이 되는 것이다.

라틴어로 말을 뜻하는 '에쿠우스'라는 단어를 외치며 그는 그가 일하러 다니던 마구간에서 몰래 밤마다 말을 타는 의식을 치른다. "못타거든 떨어져라. 그것이 짚의 계율이다!"라는 에쿠우스의 계율을 극복하는 순간 그는 위대한 신의 경지에 오른다. 자신만의 의식인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환희일뿐 아니라 육체적 희열이다. 마치 원시종교의 형태를 띤다. 말의 커다랗고 맑은 눈을 통해 그는 그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본다. 최고의 나르시시즘이다. 그러나 짚의 유혹에 의해 마구간에서 섹스를 가지는 순간 알런은 죄의식을 느끼고 마침내 말의 눈을

찌르고 만다. 마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 오이디푸스가 절망적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다이사트] 정상의 신이란 어린이 눈 속의 맑은 웃음이며 또한 백만 어른들 속에 도사린 죽음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위대한 신과도 같이 말입니다... 나는 이 방에서 많은 아이들을 성심껏 도왔습니다. 애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어 공포를 물리쳐 주고 나는 많은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어린이들에게 선하고 악한 양면에서 이러한 신에게 반항하는 개성을 절단했죠. 보다 소중하고, 보다 훌륭한 신에게 바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우스신에의 희생은... 기껏해야 일인당 6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의 신에 대한 희생에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틴어로 말을 뜻하는 <에쿠우스>는 6마리의 말의 눈을 찌른 17세 알런과 그의 정신치료를 수락한 다이사트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연극은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의 실험연극을 대표하던 제의연극의 맥락에 놓인다. 제의연극은 과학과 문명의 폐해를 거부하고, 권위와 위선의 기존 사회체제를 거부하며 인간다운 원초적 본성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선악의 개념을 추구하는 연극이다. 무대 역시 원시시대 제의형태를 띠어 중앙의 회전무대는 그 역동성의 여부로 현실과 환상의 공간을 창출한다. 모든 배우들은 퇴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극에 참여한다. 이 극은 알런의 심리추이와 더불어 관객들의 자아 찾기를 유도하는 심리치료극이기도 하다. 이 또한 제의극의 특성이다.

제의극적 맥락의 이 극에서 희생양은 말이다. 말의 희생은 통과의례를 치른 알런에게 성장을 가져다준다. 사회에서 이탈된 채 살아온 알런은 파편적으로 주입된 종교적 지식으로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스스로 파괴한다. 자의식에 의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한 것이다.

이후 알런은 혼란상태에 놓인다. 성장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는 다시 그만의 종교, 아니 신념을 만들지 모른다. 어쩌면 극중 헤스터의 말대로 다이사트가 알런의 새로운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혈연으로 묶인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묶이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위이고 또한 진정한 자아 찾기이다.

이 작품을 종교(religion)와 성(sex)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정당한 것(right)의 충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종교는 사회성을 말하고 성은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끊임없는 충돌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 작가와 소통하는 지역 속 열린 미술공간 오픈 스페이스 배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자연 속 열린 미술공간이 새롭게 탄생됐다. 지난 9월 2월 닷을 올린 미술 대안공간 '오픈 스페이스 배'는 작가들의 창작과 전시가 이뤄지는 예술공간이자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출항의 깃발을 높게 올렸다.

'오픈 스페이스 배'는 부산의 한 기업인이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대 농장과 자연녹지가 포함된 4만 5천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문을 열게 됐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에 속하지만 드넓은 자연속에 자리잡은 이 곳에는 도시의 번잡함이 없다.

'배'에서 이뤄지는 대안공간을 의미하는 오픈 스페이스 '배'는 원래는 '배' 과수원이었던 이 곳에서 구성원들이 한 '배'를 타고 현대미술의 발전을 '배(배)'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만큼 지역 미술인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작가들에게 자유로운 작품발표와 현장제작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현재 두 채의 건물에 작가들의 숙소와 세미나실, 전시실이 들어서 있는 이 곳은 현재 박은생(조각), 안재국(입체), 신무경(조각), 정만영(영상), 김찬수(사진), 김병권(영상) 등 6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작업실은 지금 건물과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있어 입주작가들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않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박은생 작가의 조각상 '얼굴'을 비롯 정진윤, 정혜련 등 몇몇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먼저 반갑게 맞는다. 드넓은 녹지공간을 둘러싼 숲 속 오솔길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박은생 작가의 조각상 '얼굴'을 비롯 정진윤, 정혜련 등 몇몇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먼저 반갑게 맞는다.



오픈 스페이스 배는 역량있는 신진작가와 지역 유망작가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사진은 두 번째 기획전의 주인공 섬유작가 윤필남의 작업모습)

은 자연 속을 거닐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산책길로 사랑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길목 곳곳에 창작품을 전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원으로 가꿔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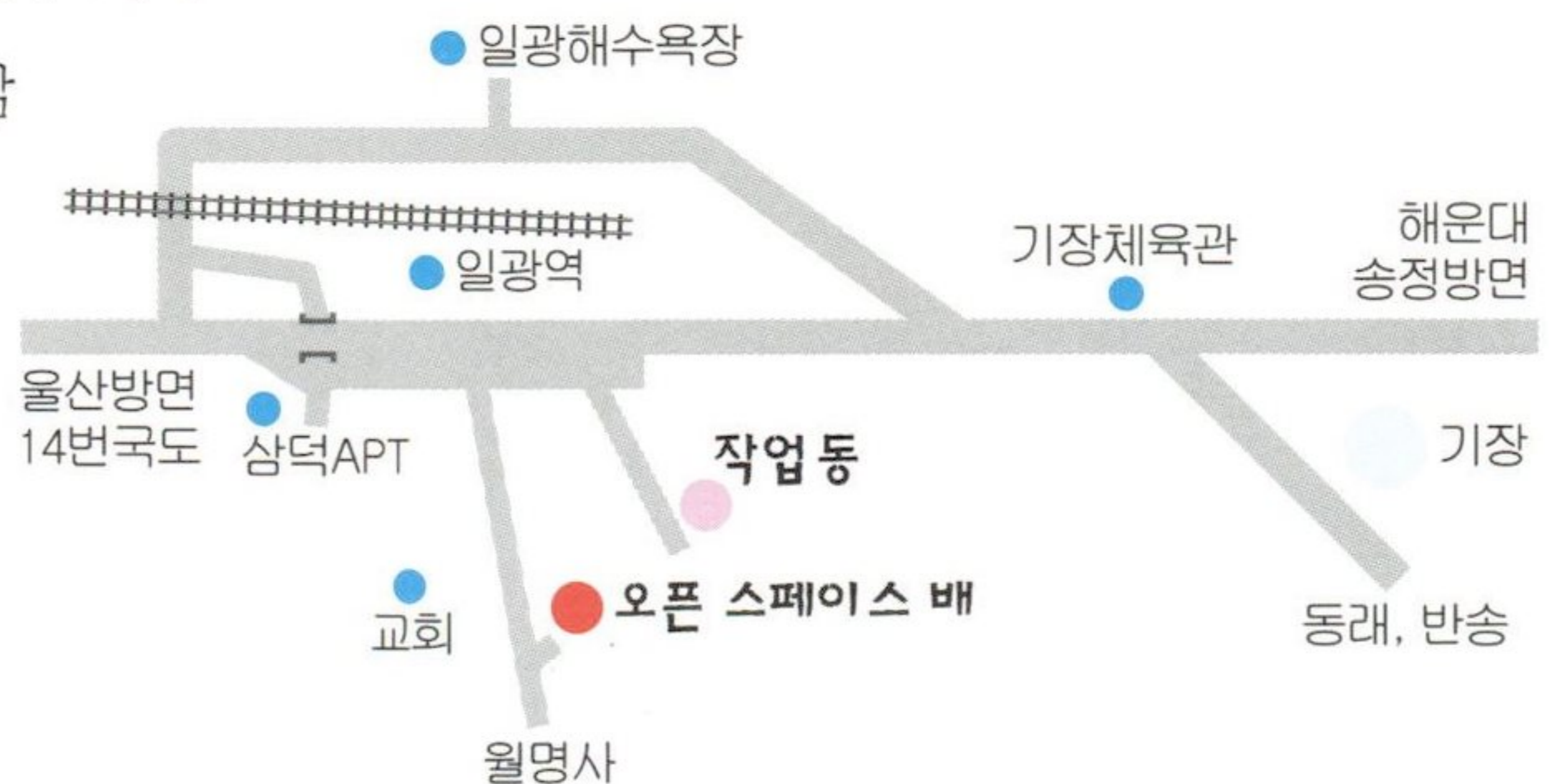
앞으로 역량있는 신진작가와 지역 유망작가를 발굴, 지원할 예정인 오픈 스페이스 배는 이들을 위한 기획 전시 외에도 기획자, 비평가, 큐레이터를 위한 워크숍,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가들의 작업공간 제공, 지역작가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사랑방 등 지역미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미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이라는 장르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생활속의 미술공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그 첫 행사로 오는 11월 11일 오픈 스페이스 배에서는 미술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미술아 놀자!'가 열린다. 쉽게 볼 수 없는 작가들의 창작하는 모습과 실험적인 현대미술전 감상, 숲 체험프로그램과 고구마캐기 등 야외에서 이뤄지는 자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미술아 놀자!'는 놀면서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체험 프로그램이다. 재미와 더불어 전문 예술기획자, 초빙강사들의 깊이있는 해설로, 미술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앞으로는 야외극장을 조성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개관과 함께 첫 번째 기획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큐레이터 송민경과 그가 발굴해낸 작가 신주숙의 작품을 선보였던 오픈 스페이스 배는 현재 두 번째 기획전으로, 윤필남 섬유설치전이 열리고 있다. 삶과 존재의 끊임없는 순환에 대한 사유를 수 많은 조각천과 바느질로 표현한 작품 16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열린다.

■문의: 오픈 스페이스 배

(051-724-5201, www.spacebae.com)



색소폰의 매력에 빠진

## 색소폰동호회 바다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색소폰. 그래서인지 최근들어 색소폰 배우기를 희망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2월 한 인터넷 온라인상에 모임을 개설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색소폰동호회 '바다소리' 역시 이런 색소폰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의 사랑방이다.

색소폰 동호회 '바다소리'는 3년 전 문화센터 색소폰 강좌를 같이 들던 수강생들의 친목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창단 당시 '바다에 누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색소폰동호회 '바다소리'는 현재 350여명의 회원이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소리'는 지난 6월 현재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재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침체된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호회 이름을 바꾸고 의욕적인 출발을 시작했다.

동호회에 새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동호회 연습실이 생겨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 김성재 회장이 다니는 색소폰 학원을 연습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평소 집이나 야외에서 연습하던 회원들의 큰 불편을 덜게 됐다. 개인적으로 수강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저렴한 경비로 레슨까지 받을 수 있어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바다소리'는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는다. 보통 회원 20여명 정도가 모이는 정기모임은 연습실이든, 길거리든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동안 닳은 실력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정기모임은 어디서건 바로 즉석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이 시작되면 지나가는 시민들도 색소폰 선율의 흥겨움에 박수를 보태면서 어느새 모임은 작은 콘서트장으로 바뀐다.

'바다소리' 회원들은 얼마전부터 실력향상을 위해 합주 모임을 따로 갖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합주 모임은 정기모임에 모이는 회원 대부분이 참석할 정도로 회원들의 호응이 크다.

현재 '바다소리'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20여명 정도. 3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초보자에서부터 준프로급 실력을 갖춘 회원까지 다양하다. 동호회 활동을 함께 즐기는 부부회원들도 있어 멋진 앙상블을 연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울산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이 '바다소리'에 가입하면서 동호회가 부산에서 김해, 울산까지 모임이 확대되었다.

거제도가 고향인 김성재 회원이 색소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닷가 등대에서 멋들어지게 색소폰을 불던 반백의 노신사의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는 그는 언젠가는 색소폰을 꼭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오다 결국 2년 전에 그 꿈을 실현했다.

학원교습과 독학을 해오다 4개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레슨을 시작한 그는 영화 '왕의 남자' 주제곡 '인연', 가요 '불나비'를 평소 가장 즐겨 부른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극중 교사였던 최민식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제자에게 한마디 하죠. 색소폰은 멋이 아니다, 저 역시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는 회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색소폰 소리에 반해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는 김성재 씨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바다소리'는 지난 10월 22일 김성재씨의 모교인 거제도 해성고등학교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다. 지금까지는 회원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바다소리'의 이름을 내걸고 무대에서 서기는 이번이 처음. 앞으로는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주변의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쌓여지는 동호회 연륜만큼 실력향상에도 주력해 합주로 색소폰 앙상블의 매력을 들려줄 계획이다.

■ 문의 : 색소폰동호회 바다소리(<http://www.cafe.daum.net/saxobada>)



앞으로는 주변의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는 색소폰동호회 바다소리.(사진은 지난 10월 22일 거제도 해성고등학교에서 가진 연주회)



초보자에서부터 준프로급까지 다양한 실력을 갖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바다소리는 동호회 활동을 함께 즐기는 부부회원들도 있어 멋진 앙상블을 연출하기도 한다.

## 오카리나 이야기〈3〉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장



어느 날인가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선생님 다른 곳에서는 처음 배울 땐 AC악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데 선생님은 왜 SC를 먼저 시작하시나요?”

물론 AC를 시작하던 SC를 시작하던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연주자가 어린 학생이라면 손이 작고 성장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SC를 먼저 권하고, 어른이라면 AC를 먼저 사용하기를 권한다.

또 오카리나를 독주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합주용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악기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독주를 위주로 한다면 소리가 멀리 뻗어나가는 SC를 권하고 싶다. AC는 낮은 저음이면서 Volume 자체가 적어 독주용보다는 합주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부터는 오카리나를 좀 더 재미있고 멋있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

### 1. Bend 주법

먼저 Bend 주법이란 어느 한 음을 내고자 할 때 그 음을 조금 낮은 음에서 출발시켜 1/3이 지난 후부터 실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4분음표의 ‘도’ 음을 Bend 주법으로 내고자 할 때 4분음표를 1/3등분하여 1/3까지 연주할 때에는 그 음보다 낮게 붙어서 1/3음이 지난 시점부터 ‘도’ 음의 정확한 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Bend 주법을 잘 내는 연습 방법으로는

- crescendo 주법을 사용
- *p*에서 *f*까지 연주
- Tenuto 로 연주
- 숨을 쉬고 내고자 하는 음을 조금 늦게 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Bend 주법 연주에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처음 배운 상태에서 전체적인 음악이 딱딱하게 느껴진 사람이라면 Bend 주법으로 음악이 한층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의 연주가 될 것이다.

특히 이 Bend 주법은 서정적인 곡에 사용하게 되면 더욱 더 곡의 이미지를 예쁘게 바꾸어 주는 방법이 된다.



## 2. Staccato 주법

Staccato 주법은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음악의 표현력은 거의 Staccato 주법에서 나온다 생각해도 될 것이다.

정확한 Staccato는 혀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연주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확한 Staccat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혀의 위치를 더 끝부분으로 옮겨서 '테', '티' 발음을 내며 연습에 임해 보자. 그렇게 하면 더욱 정확하고 알맹이 있는 텅잉이 이루어지게 된다.

Staccato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경쾌하고 힘 있는 곡의 이미지를 한층 up시키는 주법이 될 것이다.

## 3. 자~~ Drop 주법

Bend 주법의 반대 주법으로 생각하면 된다.

Bend 주법이 내고자 하는 음을 그 음보다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1/3이 지난 후 그 음에 도달하였다 하면, Drop 주법은 처음엔 그 실음을 내고 1/3이 지난 후부터 하향시키는 주법이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주법 중에서 이 Drop 주법이 가장 어려운 주법이며, 용도 면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다.

### 이 Drop 주법은 한 음을 정해 놓고 연습하되

- decrescendo 주법
- f에서 p까지의 음을 낼 수 있도록 연습에 임하면 Drop 주법에 쉽게 이르게 된다. 이 Drop 주법은 슬퍼다 못해 애절한 느낌에 주로 사용되는 주법이다.

여러분, 오카리나를 잘 연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연습하기 전에 앞 시간에 배운 <연습 방법>을 숙취하여 연습을 한 후, 오늘 배운 세가지 주법을 반복 연습에 임하도록 한다.

---

'1인 1기를 배우시다' 지상강좌를 맡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씨는 한국사회교육원 오카리나 원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출강, 글로벌 콘서바토리 오카리나 주임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카리나 창작곡으로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006 장한나 초청연주회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세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과 현대 음악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동 첼리스트 장한나가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11월 28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세계적인 음악지 영국 그라모폰지가 선정한 '내일의 클래식 슈퍼스타 20인'에 선정되어 전 세계 신세대 연주자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장한나는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과 더불어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으로 거장의 반열에 다가서고 있다.

EMI 클래식의 독보적인 레코딩 연주자인 장한나는 1995년 11월, 첼리스트로는 최연소인 12세에 로스트로포비치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데뷔음반을 녹음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데뷔앨범은 1997년 에코음반상 올해의 영아티스트상을 받았다.

1998년에 두 번째로 녹음한 하이든 첼로협주곡 음반(주세페 시노폴리 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협연)은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앨범 '백조'는 주목같은 첼로 소품 모음집으로 데뷔음반과 함께 그라마폰지의 '편집자의 선정 음반(Editor's Choice)'으로 등록되었으며, 미국 빌보드차트 클래식 부분 8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음반은 클래식 음악 전문지인 그라모폰지가 '2003년도 최고의 협주곡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그라모폰지는 "장한나는 프로코피에프 두 작품을 한 음반에 담아낸 최연소 연주자이다. 곡의 서정성은 장한나의 정제된 섬세함 때문에 생기를 얻고 있고, 진정한 음악성과 함께 눈물을 핑 돌게 하는 섬약하고 고백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신보는 올해의 음반이 되어 미땅하다"고 평가했다. 이 앨범은 독일 음반협회가 수여하는 2003년도 에코 클래식(ECHO Klassik)의 '올해의 협주곡 최고음반상(Concerto of the Year)'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맞아 EMI에서 발매한 다섯 번째 음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과 '첼로 소나타'도 국내외 언론들의 극찬을 받았다. 내년 봄에는 지난 여름 로마에서 녹음한 후기 낭만시대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소품들로 구성된 여섯번째 음반이 발매될 예정이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한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도 끊임없이 가져오고 있다. 장한나와 연주한 세계적인 지휘자 역시 장한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주세페 시노폴리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음악가 중에서 한나 만큼 큰 충격을 준 사람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지 나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칭찬했고 로린마젤은 "나는 항상 한나와의 협연에서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느낀다. 솔직히 한나만큼 완벽한 연주를 하는 첼리스트는 내 생애에 처음이다"고 칭찬했다. 그의 스승인 로스트로비치는 "음악적 스케일이 너무나 거대해 상상을 초월한다. 첼로는 작지만 재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이라 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4년만에 부산을 찾는 장한나는 이번 무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티엠포의 피아노 반주로 장한나 자신이 '마치 태어나서 꿈 중 가장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듯 시작한다'고 표현한 슈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을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와 소나타 D단조 작품 40', 쇼팽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작품 65', 쇼팽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C장조 작품 3'을 들려준다.

■ 입장료 : R 석 70,000원 · S 석 50,000원 · A 석 30,000원 · B 석 15,000원(학생)(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0-6070)

## 우리 춤의 정수를 담은 부산시립무용단 ‘결’ 연출가 **황해순**



“결은 정적이면서도 우아한 우리 춤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오는 11월 8일, 9일 이틀 동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부산시립무용단 제 55회 정기공연 ‘결’의 대본, 연출을 맡은 연출가 황해순 씨. 공연을 앞둔 요즘 한국적인 이미지를 세계무대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고민해온 부산시립무용단 홍기태 수석 안무자와 함께 ‘결’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해순씨와 부산시립무용단과의 인연은 1995년 제 33회 정기공연 ‘나눔의 춤 5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극단 자갈치 상임연출자로 연극과 마당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에게 무용 무대는 새로운 모험이었다. 이후 부산

시립무용단 ‘흰나비의 꿈’ 대본 작업과 ‘개벽굿’ 대본, 연출 작업, ‘THE WAR’ 대본, 연출 작업을 진행한 황해순 씨는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THE WAR’에 특히 많은 애착이 간다.

“부산시립무용단 작업은 참 매력이 많습니다. 한국적 미학을 살린 춤사위와 서사성과 심성을 표현하는 이미지 작업 등이 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용 연출 작업 외 황해순씨는 요즘 부산, 경남 지역 축제 현장에서도 활약이 대단하다. 그는 2005년과 2006년 부산금정예술제 추진위원장, 2005년 김해 가야세계 문화축전 테마공연 ‘가락국기’ 총 연출, 2006년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2006년 양산 삼량문화축전 집행위원장으로 바쁘게 보냈다. 공동체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요즘의 축제들이 오감을 만족 시켜주는 문화, 체험, 참여형 축제로 변모하고 있어 마당극관에서 쌓은 그의 오랜 경험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 부산시립무용단 제 55회 정기공연

# 결

## - 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 -

11월 8일-9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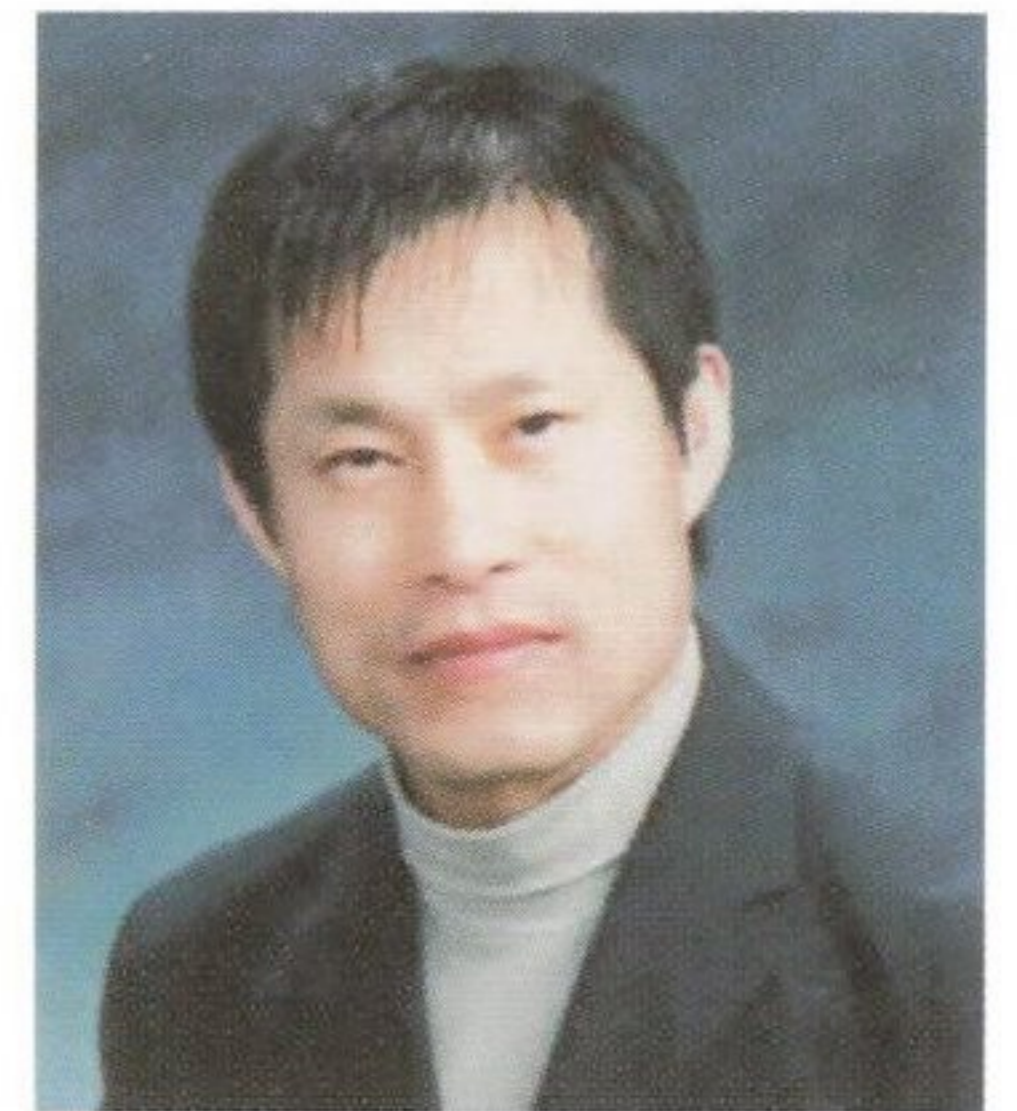
춤을 통한 한국적 이미지 형상화 작업에 힘써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1월 8일과 9일 제 55회 정기공연 '결-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 무대를 통해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선과 정중동이 어우러진 허튼춤의 미학을 펼쳐보인다.

부산예술대학 교수 황해순이 대본과 연출을 맡고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안무, 구성한 '결-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은 태평성대, 학춤, 선비춤, 달빛춤, 강강수월래, 오고무, 판굿, 탈춤, 소고춤, 진도북춤, 모듬북 등 우리 춤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펼쳐 보일 수 있는 한국춤의 정수만을 추려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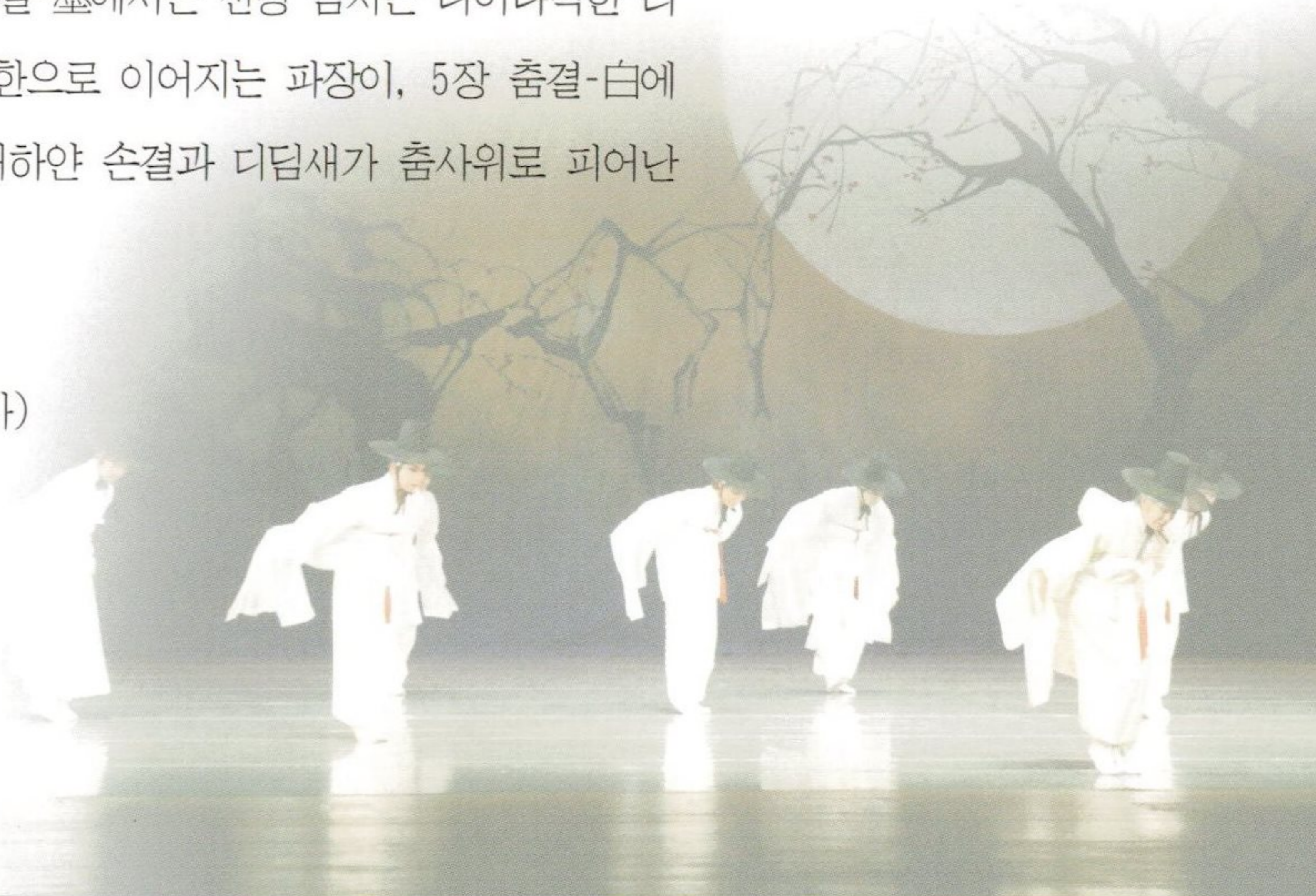
또한 이번 작품은 1장 숨결-靑, 2장 바람결-紅, 3장 물결-黃, 4장 소리결-墨, 5장 춤결-白 등 전체 5장으로 구성,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내재된 자연관과 우주관,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이미지를 춤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장 숨결-靑에서는 관조의 세계로 나가는 정가 가곡의 선율에 궁중정재의 화려하면서도 느린 정중동의 미를, 2장 바람결-紅에서는 시나위 선율에 흐르는 생동하는 조화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3장 물결-黃에서는 황톳길 따라 아련히 들려오는 남도 육자배기 속에 만남과 헤어짐의 질긴 인연이 떠나니며, 4장 소리결-墨에서는 신명 넘치는 다이나믹한 리듬 속에 자연 생성 순환의 원리이자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어지는 파장이, 5장 춤결-白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영원으로 물결치는 무애의 새하얀 손결과 디딤새가 춤사위로 피어난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대본 및 연출/황해순
- 특별출연/버슴새 예술단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수석안무자 홍기태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4회 정기연주회

# 프로코피에프의 진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곽 승



이소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1월 17일 전 수석 지휘자 곽승이 객원 지휘하는 제 424회 정기연주회에서 웅장하고 풍부한 오케스트라로 늦가을의 서정을 선사한다.

제 424회 정기연주회의 타이틀은 '프로코피에프의 진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제 5번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태어나 러시아 혁명의 격동을 피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18년간의 망명 생활을 한 프로코피에프가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그의 나이 53세 때 작곡한 곡이다. 제 1번 교향곡과 제 7번 교향곡과 더불어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이 교향곡은 전체적으로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다. 바로 직전 해인 1943년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8번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무겁고 침통하게 그림으로써 혹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작품은 프로코피에프 스스로가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곡'이라 밝히고 있는데, 날카로운 색채감과 길면서도 흐르는 듯한 서사가 잘 조화되어 있으며 프로코피에프 특유의 풍부한 서정성이 돋보인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현재 Yale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과정중인 유망 신인음악도이다. 이소란은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금상, 서울 바로크합주단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 전체 1위, 부산음악콩쿠르 1위 및 특상을 수상하는 등 주요 대회를 두루 석권했다. 이소란은 서울대학교에 진학 후 동아음악콩쿠르에서 입상, KBS 신인음악콩쿠르 금상을 수상하며 미래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지휘자 성기선의 지휘아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심포니와의 데뷔 콘서트에서 최난곡으로 알려진 바르톡의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하여 고도의 테크닉과 관객을 매료시키는 그녀만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소란이 들려줄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은 그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가장 즐겨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아우어는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되고 인기를 누리는 이유를 '창의적인 선율과 쉽지는 않으면서 무리가 없는 기교'를 꼽았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주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5회 정기연주회

# 고전음악의 밤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1월 30일 제 425회 정기연주회에서 고전음악을 대표하는 두 작곡가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명작들을 중심으로 그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해보는 무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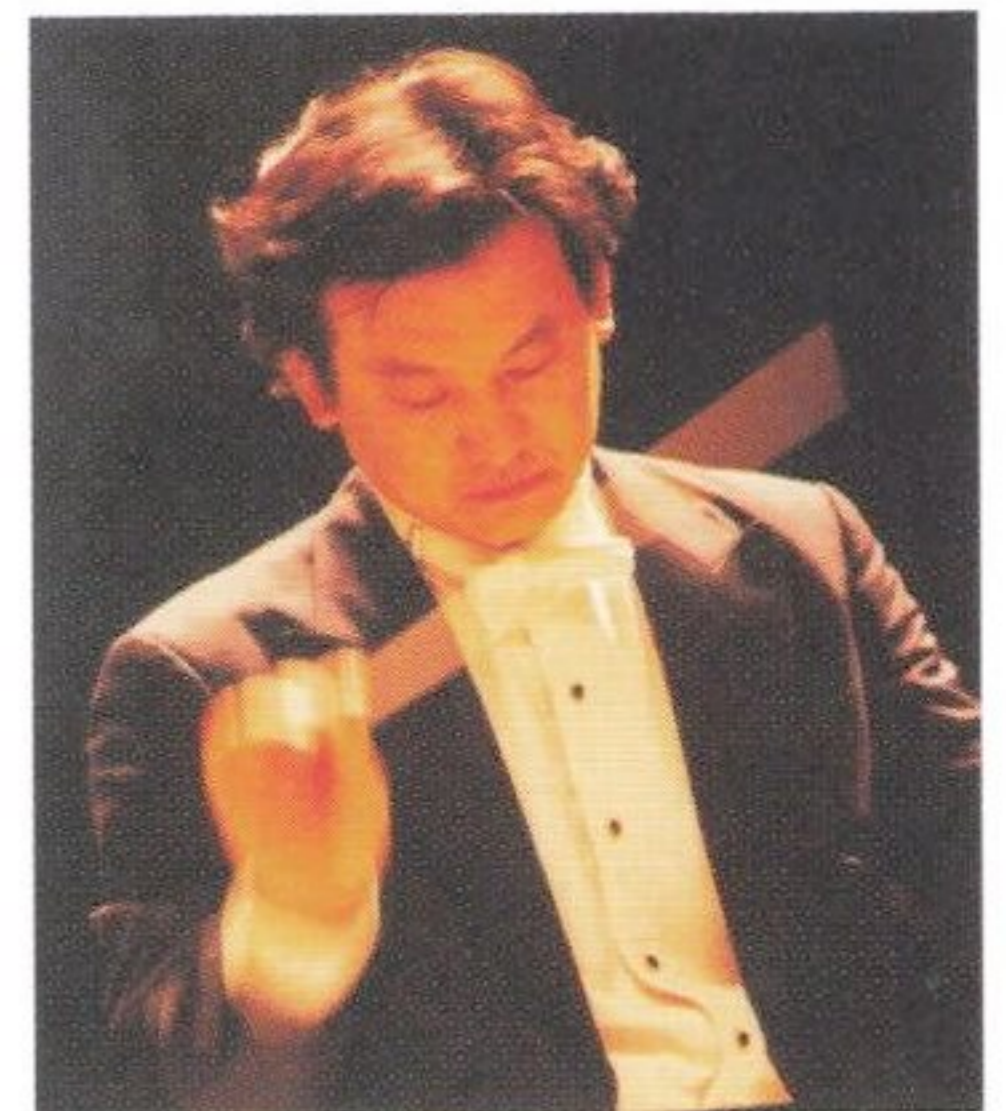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교수 김덕기가 지휘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채재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클라리넷 협주곡, 베토벤의 명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 7번으로 고전음악의 밤을 마련한다.

오페라 'Werther' 'Fedora' 'I due Foscari' 등을 한국 초연한 지휘자 김덕기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 '나비부인' '카르멘' 등 30여 편의 오페라를 지휘하며, 신선한 감동을 주는 탁월한 해석력으로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지휘자이다.

이번 무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은 예원학교 3학년 재학중 도미, 인터로첸 아츠 아카데미 예술고등학교와 줄리아드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밀워키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단원, 위스콘신-밀워키 대학교 클라리넷 강사,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단원으로 활동한 채재일은 스위스 UBS 베르비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클라리넷 주자로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 파보 예르비,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주빈 메타, 쿠르트 마주어 등과 북미, 유럽 15개국 순회 연주를 갖기도 했다.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목관5중주 부문에 입상해 뉴욕 카네기홀 연주를 가진 채재일은 2004년 국제 클라리넷 협회 주최 영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후 그해 중앙일보 주최 '세계속의 한인 꿈나무상' 음악 부문상을 수상했다.

채재일이 들려줄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는 모차르트 유일의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모차르트가 죽기 약 2개월 전인 1791년 10월 초 비엔나에서 작곡된 그의 최후의 작품이기도 하다. 이 곡은 열정적인 감성을 품고 있는 클라리넷 특유의 음색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김덕기



채재일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대극장

### 2006 제 3회 세원음악회 - 최고음악인과 대합창의 향연 -

2일 목요일 오후 7:30



인재를 양성하고 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세원장학문화재단이 마련하는 제 3회 세원음악회.

####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이수인/내맘의 강물

베르디/평화를 주소서, 대장간의 합창 등

- 출연/소프라노 박미혜, 소프라노 배수진,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테너 김영환, 바리톤 박대용, 대중가수 조영남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발레/김옥련발레단
- 사회/안희성(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무료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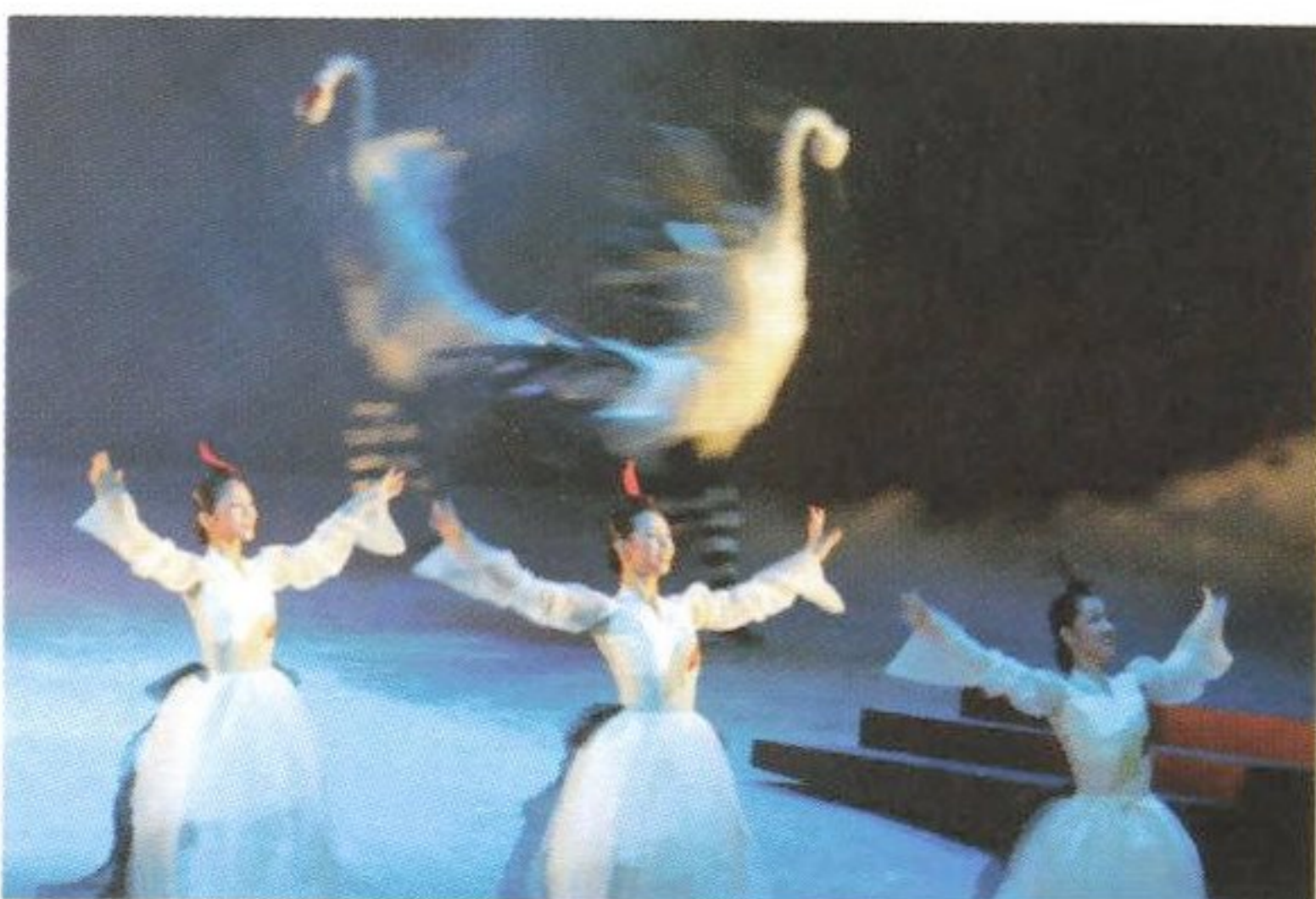
**문의** (주)세원 총무팀(310-5512~4), 미래와 음악(242-5231)

부산시립무용단 제 55회 정기공연

### 천년의 이미지 <결>

#### - 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

8일-9일 수-목요일 오후 7:30



우리 춤의 세계화를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제 55회 정기공연 '결'

(Gyeol)-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

태평성대, 학춤, 선비춤, 달빛춤, 강강수월래, 오고무, 판굿, 탈춤, 모듬북 등 우리 춤의 정수만을 추려 창조적으로 안무, 재구성한 이번 무대는 한국춤의 우아함, 역동적인 선의 미학, 그리고 정중동이 어우러진 허튼 춤의 미학을 만날 수 있다.

#### 작품

1막/숨결-靑, 2막/바람결-紅  
3막/물결-黃, 4막/소리결-黑  
5막/춤결-白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

· 대본·연출/황해순(부산예술대학 교수)

· 특별출연/버숨새 예술단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그랜드 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 모차르트 최후의 대작 오페라 마술피리

12일 일요일 오후 5:00,  
13일-14일 월-화요일 오후 7:30



그랜드 오페라단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과 오페라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오페라 '마술피리'.

모차르트 최후의 곡인 오페라 '마술피리'는 1999년 그랜드오페라단이 제 6회 정기공연작으로 부산무대에서 공연, 부산오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무대는 한국 최고의 파파게노 바리톤 김관동(연세대 교수)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 출연진들과 모차르트 전문지휘자 윤상운이 키에프방송교향악단과 앙상블을 이룬다.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연출/안지환(그랜드오페라단 단장, 신라대학교 교수)

· 오케스트라/키에프방송교향악단

#### 출연

테너 전병호, 테너 안창섭, 소프라노 김행재, 소프라노 박현정, 바리톤 김관동, 바리톤 김종화, 바리톤 심정보, 소프라노 정하나, 소프라노 고예진, 소프라노 이윤순 외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2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그랜드오페라단(809-8445)

### 2006 부산국제합창제

15일-19일 수-일요일 오후 7:30



12개국 46개 합창단 2,000여명이 참가하는 2006 부산국제합창제. 부산문화회관, 산성교회, 시내공공장소 등에서 15일~19일(5일간) 클래식, 민속음악, 대중음악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경연을 펼치고 18일 시상식 및 입상팀 앵콜공연이 이루어진다.

경연대회가 벌어지는 16일과 17일 밤은 인도네시아의 Elfa's Big Band를 비롯하여 2002년 합창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합창단들이 출연하는 갈라공연이 펼쳐진다.

#### ■ 주요일정

- 개막 공연 : 15일(수) 오후 7:30 대극장
- 폐막 공연 : 18일(토) 오후 7:30 - 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 대극장
- 갈라콘서트 : 16일(목) 오후 7:30 대극장  
17일(금) 오후 7:30 중극장
- 경연대회 : 16일(목) 10:00~17:00,  
17일(금) 10:00~17:00  
부산문화회관(민속&대중음악부)



문-대극장, 중극장, 산성교회  
(클래식부문)

· 만남의 콘서트 : 15일(수)~19일(일) 민주  
공원, 해운대 스펀지, 고신대학  
교, 주요 지하철역 등

**입장료** 무료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4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의 진실

17일 금요일 오후 7:30



곽 승

이소란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수석 지휘자 곽승이  
지휘하고 Yale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중인 유망 신인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이소란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4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 84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사단조 작품  
26  
프로코피에프/교향곡 제5번 내림나장조 작  
품 100

· 지휘/곽승  
· 협연/이소란(바이올린)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제 6회 대학교향악 축제

19일-24일 일-금요일 오후 7:30

차세대 부산의 음악을 이끌어갈 젊은 음악  
인들이 대학생활 동안 갈고 닦아온 연주 실  
력을 선보이는 '제 6회 대학교향악축제'.

### ■ 제 1일 19일(일)-동아대학교



박종휘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박쥐서곡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차이코프스키/교향  
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등 수곡

· 지휘/박종휘  
· 협연/장윤정(피아노), 권설희(소프라노),  
전화연(바이올린), 홍사무엘(테너)

### ■ 제 2일 20일(월)-고신대학교



오충근

### 프로그램

모차르트/서곡 '피  
가로의 결혼'  
모차르트/협주곡 제  
2번 라장조 K.314  
베토벤/교향곡 제  
8번 바장조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문태은(바리톤), 김영미(플룻), 전샘  
(소프라노), 박민경(피아노)

### ■ 제 3일 21일(화)-신라대학교



백진현

### 프로그램

바그너/ 서곡 '리엔  
지'  
김동진/내 마음  
쿠세비스키/더블베  
이스와 오케스트라  
를 위한 협주곡  
무소르그스키/전람

### 회의 그림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서나은(소프라노), 유진(더블베이스),  
송영은(피아노)

### ■ 제 4일 22일(수)-경성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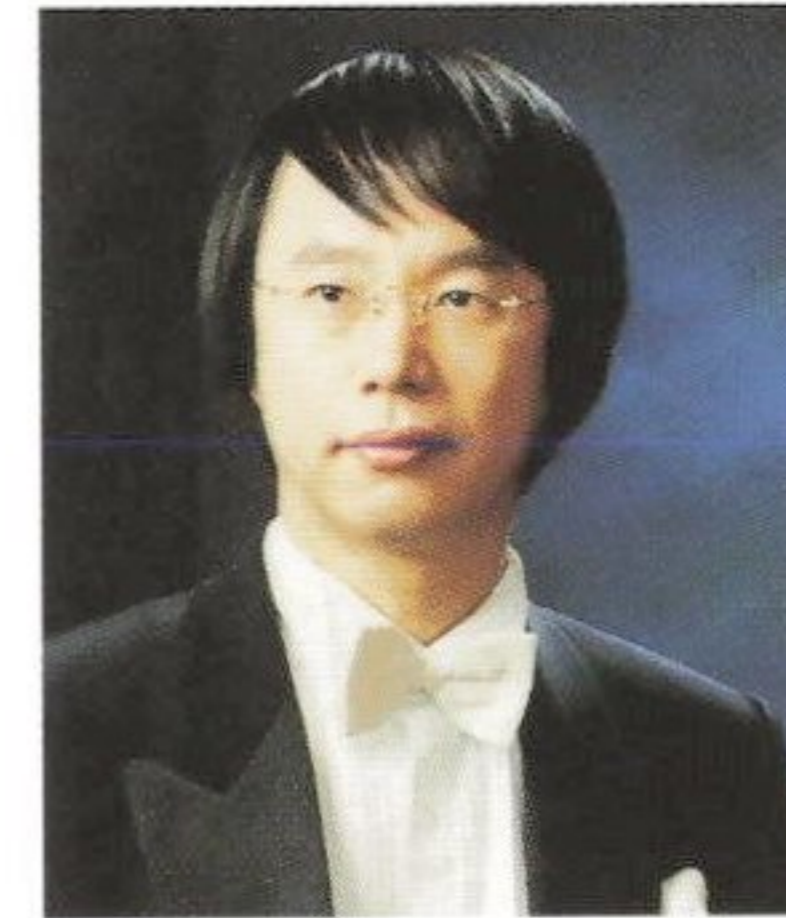
이기균

### 프로그램

모차르트/서곡 '마  
술피리'  
쇼스타코비치/첼로  
협주곡 제 1번  
모차르트/교향곡 제  
39번 내림 마장조

· 지휘/이기균  
· 협연/김유미(첼로), 김미정(피아노)

### ■ 제 5일 23일(목)-동의대학교



윤상운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피아  
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내림나  
장조 작품 23  
조두남/뱃노래  
드볼작/첼로와 오케  
스트라를 위한 협주

### 곡 나단조 작품 104 등 수곡

· 지휘/윤상운  
· 협연/이지현(피아노), 박지혜(소프라노),  
김석근(첼로), 김현성(테너)

FORAD  
종합광고대행사

##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 제 6일 24일(금) - 부산대학교



박성완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V 550  
임금수/강 건너 봄  
오듯이  
쇼스타코비치/심포니 제 9번 내림나장

조 작품 70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협연/김온유(첼로), 김민지(소프라노)

**입장료** 초대

**문의** 음악협회 부산지부(634-1295)

2006 늦가을 밤의 고성(鼓聲) 방가(芳歌)  
打路 TA RO III  
'동(同)반(反)'

25일 토요일 오후 7:00



'두드림의 길' '길을 두드려 탄탄히 한다'는 뜻의 'Ta-Ro(타로)'는 2004년 초연 이후 매년 행진을 해온 부산국악계의 새로운 문화상품이다.

동반이라는 부제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는 무대이다.

**프로그램**

사물놀이-삼도사물놀이, 김진홍의 살풀이춤, 소리북 산조-고성, 장구 다드리-点, 국악가요-사랑굿2, 왕의 남자 OST '인연' 모듬북 합주-새울 2006

- 출연/박성희, 신문범, 김정훈, 최오성, 이 중희, 신재현, 조경화 외

· 특별출연/김진홍, 힙합댄스그룹 XTC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예매 10% 할인, 단체 관람은 별도 협의)

**문의** 새울전통타악진흥회

(583-7958, 016-557-6058)

2006 장정윤순수현대무용 창작공연

26일 일요일 오후 4:00, 7:00



동아대학교 교수, 로고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장정윤 교수의 2006년 무대.

2006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과 연기상을

수상한 '우주나무', 소설가/안무자/음악가의 Collaboration이 이색적인 공연 '흑색의 신성과 광기'를 선보인다.

- 안무/장정윤 · 음악/ 박철홍
- 의상/배용

· 출연/김영란 김현정 장정윤 외 22명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장정윤(200-7822)

제 19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고3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음악회

부산의 음악인 시리즈 IV

27일 월요일 오후 7:30



황지원 김은진 김문주 문숙연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시리즈 '부산의 음악인' 시리즈 네 번째 무대.

그동안 지휘자 박성완교수, 피아니스트 조현선,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작곡가 고 김철화, 거문고 권은영, 국악실내악 '너울' 등이 '부산의 음악인' 시리즈에 초청되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롯시니/도둑까치 서곡  
리스트/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내림마장조  
모차르트/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 내림마장조 등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음악감독/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피아노/김문주(동아대학교 외래교수)
- 바이올린/황지원(BSO 수석)
- 비올라/김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 첼로/문숙연(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국립음대 박사과정)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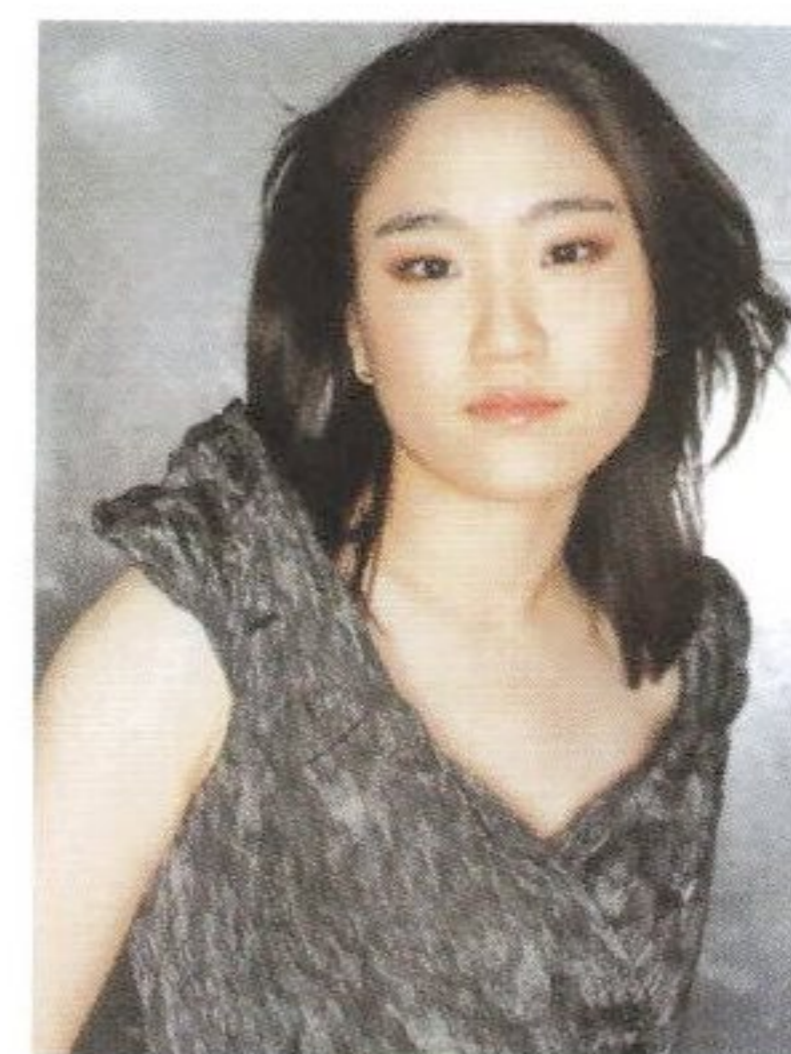
A석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0-491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한나 첼로 소나타

28일 화요일 오후 7:30



11세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첼리스트 장한나 부

산연주회.

첼리스트 장한나는 세계 3대 클래식 음반상인 그라모폰, 에코클래식, 칸느클래식을 석권하며 세계 무대에서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슈만/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내림 가장조 작품 70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작품 40

쇼팽/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작품 65 등

- 피아노/세르지오 티엠포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5회 정기연주회

## 고전음악의 밤

30일 목요일 오후 7:30



서울대학교 교수 김덕기가 지휘하고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5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라장조 작품 136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622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김덕기 · 협연/채재일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006년 겨울 솔오페라단이 선사하는

## 오페라 '라보엠'

12월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7:30

애절하면서도 격정적인 선율로 널리 사랑 받고 있는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카루소국제성악콩쿠르, 베르디국제성악콩쿠르 등 세계유수의 국제 콩쿠르에 9차례 입상한 다리아 마제로, 오페라 <라 보엠>으로 유럽 오페라계에 화려하게 데뷔한 세계적



인 테너 발터 보린, 이탈리아 정상급 바리톤 잔프랑코 몬트레조르 등이 출연, 부산의 성악인들과 함께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 지휘/오따비오 마리노 · 연출/방정욱

· 음악감독/조반니 마스티노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아라미르 합창단(지휘/이성훈),  
KBS부산어린이합창단(지휘/김태호)

· 음악감독/이소영

### 출연

다리아 마제로, 김경희, 발터 보린, 이철성, 잔프랑코 몬트레조르, 조현수, 노운병, 김건우, 박기범, 김태경, 박은미, 권경미 외

**입장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 학생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솔오페라단(622-5529)

## 중극장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 제 22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일-3일 수-금요일 오후 7:30

1996년 출범 이후 매년 두 차례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을 열어온 부산피아노 연주가 클럽의 제 22회 정기연주회.

### 일정

#### ■첫째날-1일 김은주 피아노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베를린 국립음대 Hanns Eisler를 졸업한 김은주의 피아노 독주회.

### 프로그램

바흐-부조니/코랄 프렐류드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네'

바르톡/소나티나

브람스/피아노 소곡 작품 118 등 수곡

#### ■둘째날-2일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의 밤

모차르트/2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르게토와 알레그로 내림 마장조

모차르트/소나타 K. 330, 환타지 K. 475

쇼스타코비치/소나타 제 2번 나단조 작품 61 등 수곡

· 연주/최태연, 정영주, 홍지혜, 강지영, 양광기, 김경희, 박미은, 노은경, 김성숙, 형희전, 서숙지, 정광민

#### ■셋째날-3일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의 밤

리스트/순례의 해 제 1년 스위스 중, 오베르만 계곡 중

브람스/파가니니 변주곡 작품 35-1

쇼스타코비치/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마단조 작품 67 등 수곡

· 연주/최혜련, 김혜린, 황시내, 최은주, 김은희, 정광민, 김선화, 윤민화, 양광기, 백샤론, 김현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소영(011-9336-1679)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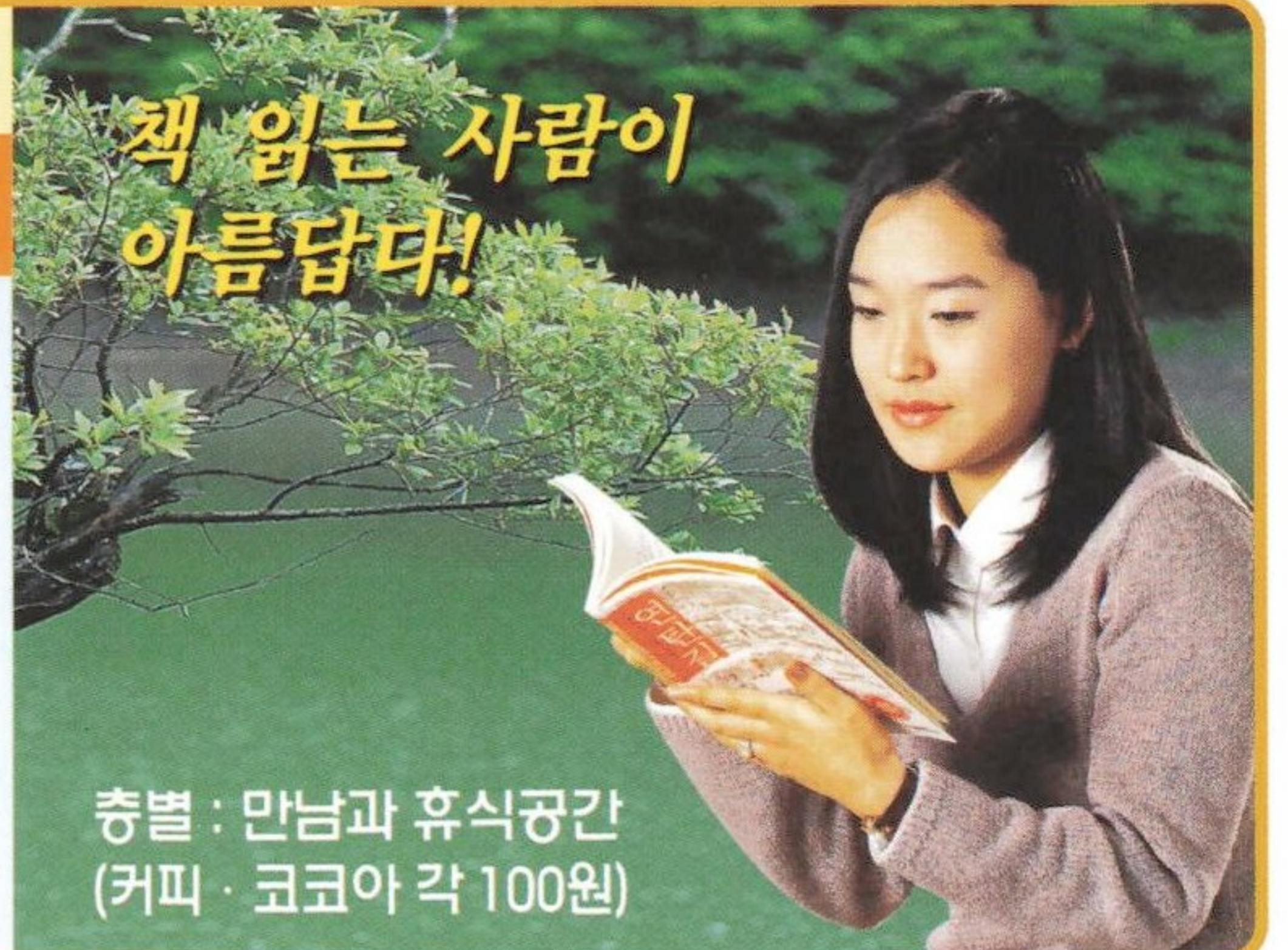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3월까지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4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전문 연주자들이 모인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의 창단연주회.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앞으로 모차르트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현악 4중주에서 현악 8중주까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 4중주 8번 다단조 작품 110

모차르트/현악 4중주 21번 라장조 작품 575 '프러시안' 등 수곡

### 연주

김영희, 백재진, 신상준, 김동욱, 이은옥, 백사론, 문주연, 엄세희(이상 바이올린), 이성호, 김가영, 김은진(이상 비올라), 전명희, 유대연, 신혜정, 이명진(이상 첼로), 박희철(콘트라베이스), 노경원(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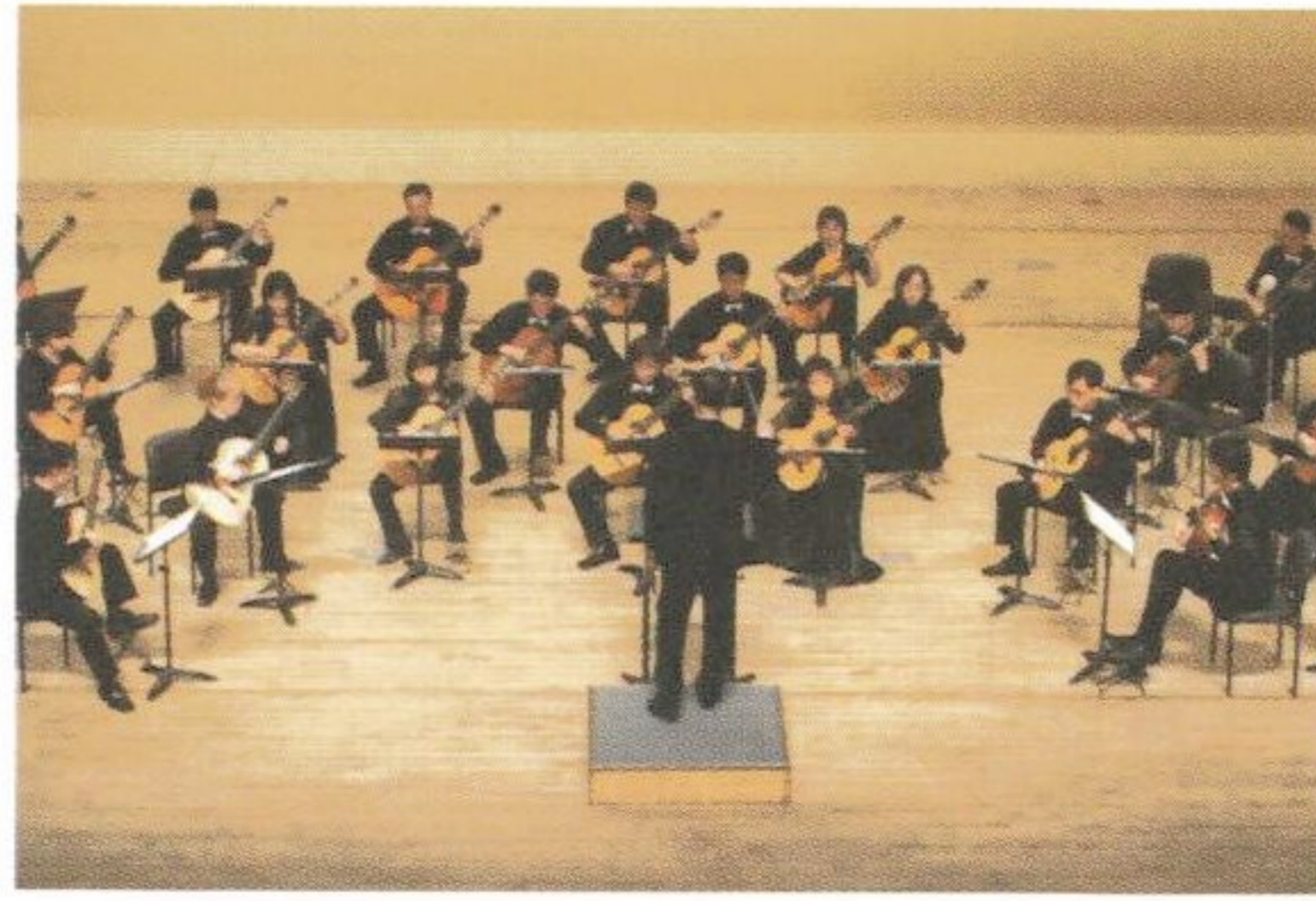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프로 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521-5729, 011-9142-5729)

##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5일 일요일 오후 6:00

2002년에 출범한 기타합주 전문연주단체 부산페스티벌 기타 앙상블은 바로크에서 현대곡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기타 음악의 보급 및 발전,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등에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파헬렐/캐논

비발디/협주곡 라장조 RV 93

마르퀴나/스페인집시 등 수곡

· 지휘/김태풍

· 특별출연/지오코소기타앙상블(지휘/최정란), 남원어린이기타앙상블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이현(019-507-2594)

## 부산플루트앙상블 제 15회 정기공연

6일 월요일 오후 7:30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플루트 앙상블 단원들이 제자들과 함께 40여명 규모의 플루트 오케스트라를 구성, 모차르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의 결혼 서곡, 작은별, 혼 협주곡, 교향곡 제 40

비틀즈/오블라디 오블라다 등 수곡

· 출연/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권영지, 조진학, 김정민, 김성은, 도진경

· 지휘/박성은(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타악기/이재복 · 콘트라베이스/정명호

· 클라리넷/김태경, 박영미

· 특별출연/백상홍(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아르스 현악 4중주단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장극태(011-582-5189)

## 2006 부산창작음악축제 부산작곡가협회의 밤

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창작음악축제를 맞아 부산작곡가협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창작곡의 밤.

### 프로그램

김성덕/피아노 트리오 1번 1악장

김우태/가곡 '낙동강 칠백리 가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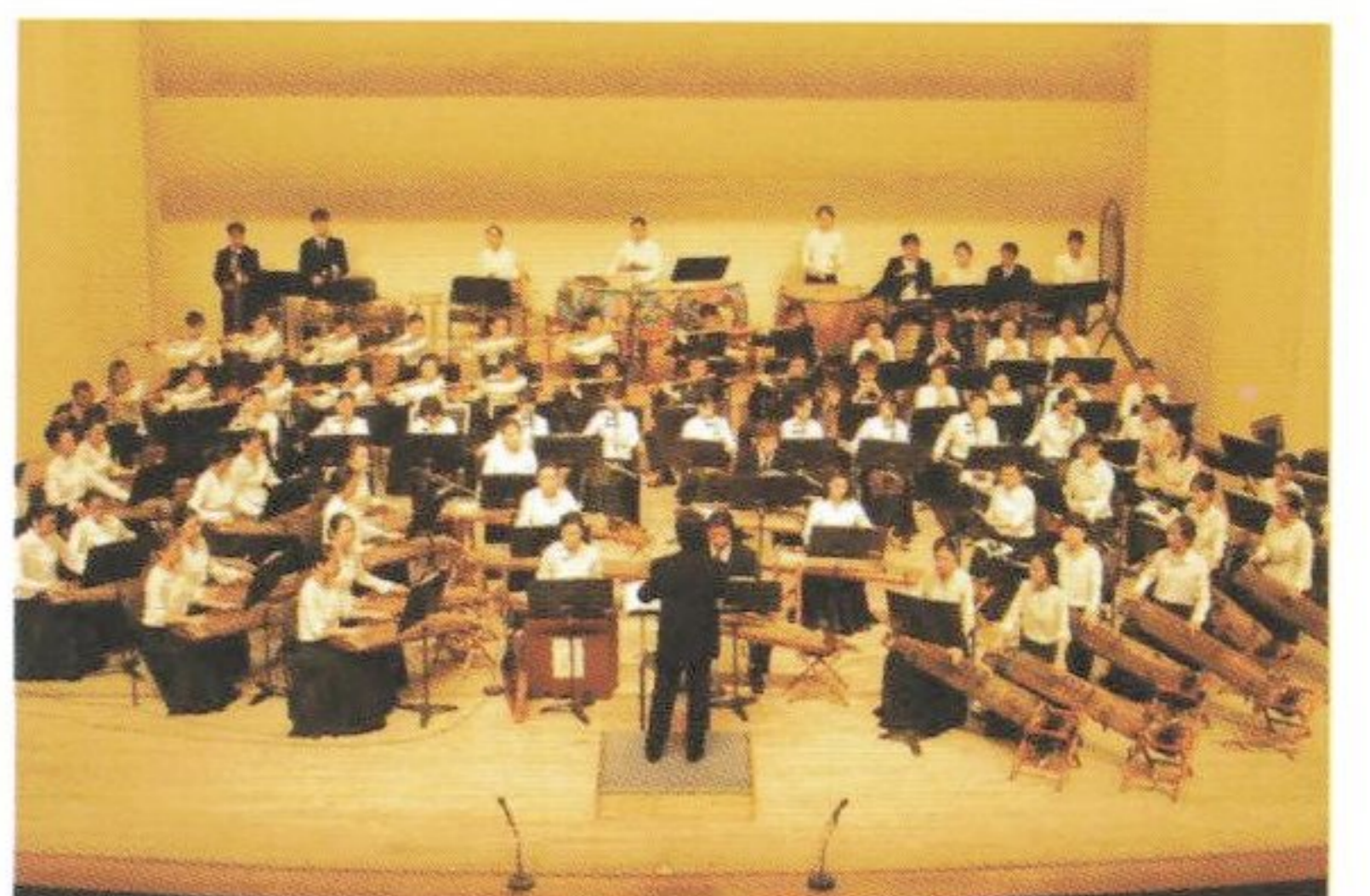
김성광/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듀엣 등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박규동(010-3122-3970)

## 부산대학교 국악과 제 24회 정기 연주회 개교 60주년기념 협주곡의 밤

8일 수요일 오후 7:30



우리 음악을 이어갈 차세대 국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 보는 무대.

진주시립전통예술단, 부산대학교 효원국악연주단, 부산대학교 국악과 관현악단 지휘자 이정필의 지휘로 협주곡의 밤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이경섭/바람의 유희

김만석/독주아쟁과 국악관현악에 의한 '천축'

이상규/대바람 소리

강봉천/절영의 전설 등 수곡

· 협연/정희경(해금 · 4년), 박은정(가야금 · 4년), 진민진(아쟁 · 4년), 강승희(대금 · 4년), 강우성(피리 · 2년)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 국악과(510-1739)

## 2006 부산창작음악축제 향천회 실내악의 밤

9일 목요일 오후 7:30

다양한 창작음악을 발표해온 향천회의  
2006년 창작곡 발표회.

프로그램

구영립/파랑도(작자 미상)

문지은/수선화에게(정호승 작사)

송필석/바람의 길

권오철/인성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마  
두금'(신정민 작사) 등 수곡

· 연주/테너 서명보, 피아노 최혜련, 첼로  
김판수, 클라리넷 김태훈, 피아니스  
트 서숙지, 바이올린 홍기정, 피아니  
스트 서양지, 테너 한남식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백승태(018-244-1723)

## 2006 부산창작음악축제 향신회 관현악곡의 밤

10일 금요일 오후 7:30

지난해 실내악 편성곡들을 발표한 바 있는  
향신회는 올해 '관현악곡'으로 편성 규모를  
확대, 30~40대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한다.

프로그램

김무섭/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자전'

배진의/처용 심포닉 포ئم

김수진/Tribute to the memory of...

〈제례〉

조영윤/晩秋(만추)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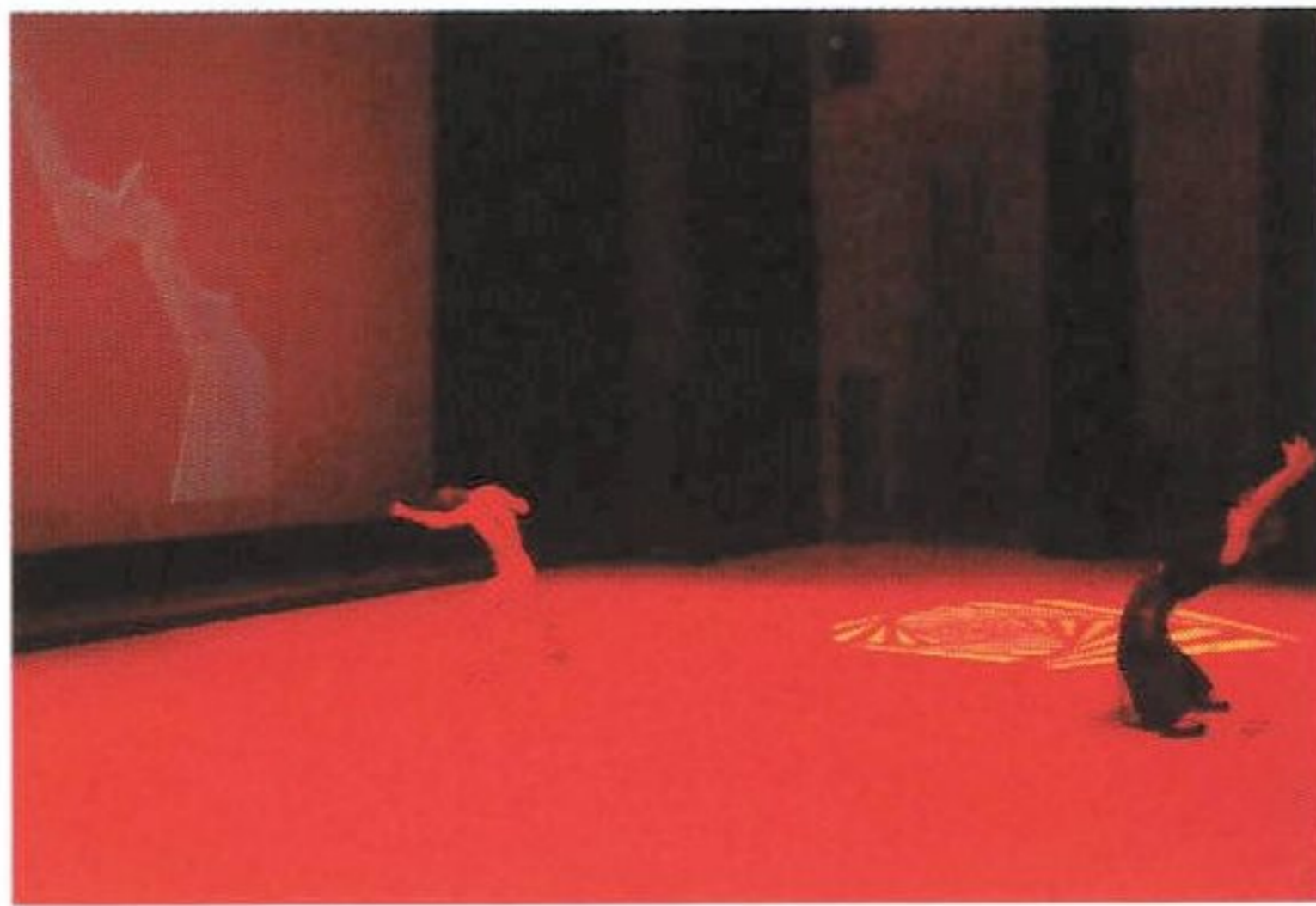
· 연주/메조소프라노 김효순, 을숙도 교향  
악단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유미숙(011-488-6467)

## 2006 부산창작음악축제 부산 전자음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공연

11일 토요일 오후 7:30



1996년 창단, 최첨단 기술과 작곡가의 영  
감이 결합된 창작곡을 발표해온 부산전자음  
악협회는 디지털음향기술, 컴퓨터프로그램  
발전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Stefan Baumann/Remix I

주창근/구성 II(Composition II)

박철홍/꽃(NO.2)

하경희/같은 혹은 다른 'Sound & Film  
image' 등 수곡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이동관(011-873-7983)

## 2006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졸업작품발표회

12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재학생들이  
선보이는 창작 무용 발표회.

프로그램

가을 흔적, 태평무, 비상, 날지 않은 새, 투  
혼, 검무, City Hunter, Feel, 추야월,  
P.S Change, 살풀이, 동래학춤

· 출연/김민선, 김연진, 박미림, 손지현, 엄  
경미, 윤지혜, 이초희, 조소리, 김수  
련, 김진영, 김혜진, 성민영 외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자대학(850-3060)

## 부산콘서트콰이어 제 9회 정기연주회 7080 콘서트

13일 월요일 오후 7:30



1992년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합창단으로  
출발, 부산의 민간합창단으로는 최초로 자선  
오페라 '아말과 크리스마스의 밤'을 개최하  
여 음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콘서  
트콰이어의 제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최석태(편곡)/눈이 큰 아이, 젊은 그대

남성중창/아빠의 청춘, 하얀 손수건

독창/산아 vs 칠갑산, 보리밭 vs 서른즈음  
에, 동심초 vs 기억속으로, 뱃노래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 051)507-3000 • Fax : 051)507-3001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vs 사랑이라는 이유로 등 수곡

- 바이올린/김영애
- 독창/서관수, 박현욱, 권순유, 조승환
- 색소폰/이천우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7,000원(사랑티켓 적용)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15일 수요일 오후 7:30



고신대학교 교회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살레르노 국립 음악원 등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김윤희 독창회.  
**프로그램**

드볼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부치는 노래'

비제/네 마음을 열어라

임금수/옛님, 여정 등 수곡

· 반주/이영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정농악회 부산연주회

16일 목요일 오후 7:30



1976년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는 취지로 결성된 최초의 정악(正樂) 연주 단체 정농악회(正農樂會) 부산연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정재국 원장, 김정자, 김선한, 감사준, 박용호 등 국내 최고의 연주 기량을 자랑하는 정농악회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 음반제작, 해외순회 공연, 중국동포들을 위한 국악 강습을 펼치

고 있다.

**프로그램**

수제천(1, 3, 4章)

가곡 '연락' '우락'

영산회상(靈山會相)

**연주**

정재국(집박), 김관희, 강영근, 김정집(이상 피리), 박용호, 신용문, 임재원(이상 대금), 감사준, 안희봉(이상 해금), 김종식(아쟁), 채조병(소금), 김광섭(장구), 이오규(좌고), 박문규(남창), 이준아(여창), 김정자(가야금), 김선한(거문고), 김관희(세피리) 외

· 해설/최종민(동국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엄익준(011-554-9396)

## 제 12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9일 일요일 오후 3:00

2006 중국 샤먼 합창올림픽 동메달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음악성을 인정받은 부산원음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1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현재명/나물캐는 처녀

성가/만법은 둥글어라, 서원을 주소서, 영주, 하나인가 하나인가 등 수곡

· 지휘/정세운 · 반주/김미연

· 우정출연/예타래, 김지혜(판소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수현(011-871-1321)

## 문주연 바이올린 독주회

20일 월요일 오후 7:30



서울대학교, 독일 뮌헨 국립음대 디플롬과정,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부산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문주연 독주회.

독일 유학 중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주최 청소년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며 폭 넓은 음악 활동을 펼친 문주연은 정경화 체임버 단원으로 발탁되어 전국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프로그램**

르클레어/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라벨/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스트라우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문주연(010-7169-0845)

## 구덕의 사랑나눔 음악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구덕교회 출신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구덕의 사랑 나눔 음악회.

**출연**

나윤규(중앙대 교수), 김현주(송실대 교수), 정거화, 이윤정, 전병호, 박소영

· 피아노/차미소란, 이수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정거화(011-854-6178)

## 제 46회 노엘 합창단 정기연주회

22일 수요일 오후 7:30

1961년 고등학생 선교 합창단으로 출발한 노엘 합창단은 2004년 OB팀으로 합창단을 재결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이종철/감사미사

흑인연가/아무도 몰라, 잠잠하라 종들아

오하라/도만 부르는 바리톤 등 수곡

· 지휘/김명현 · 반주/박진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명현(011-445-5854)

## 춤두레 창단 20년 기념 공연

24일 금요일 오후 7:00

1988년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들 중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단한 춤두레는

동래고무를 비롯 동래야류 문동과장, 동래학춤, 강태홍류 산조춤 등 부산의 춤을 계승해 왔다.

**프로그램**

동래고무, 살풀이춤, 굿거리 춤, 산조춤, 태평무, 동래학춤, 문동탈춤, 승무

· 출연/박순희, 문임선, 강성희, 전정숙, 현진옥, 김순애, 김정숙, 김정애, 김무희, 박선홍, 윤여숙, 이희정, 김지연

· 예술감독/김운경

**입장료** 초대

**문의** 박순희(016-853-7855)

**한국바로크 앙상블 제 13회 정기연주회**

25일 토요일 오후 7:30



1991년 서양음악의 뿌리를 찾기 위해 창단된 한국바로크앙상블은 바로크 시대로 돌아가 바로크 시대의 악기와 의상을 입고 연주한다.

**프로그램**

코렐리/바이올린, 플룻, 비올라 다감바 트리오, 오카리나 솔로

베크/첼로 5중주 등 수곡

· 출연/김용문, 김성현(바로크 바이올린),

김지세(바로크 비올라), 이구일(바로크 첼로), 정안선(첼발로), 정경미(플룻), 홍용신(오카리나), 조진희(리코더), 정명숙(비올라 다감바), 김영익(리우트), 장익주(테너)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구일(011-864-0291)

파리국립음악원 출신의 차대세 거장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아르 초청연주회**

26일 일요일 오후 7:30



풍만한 소리를 진동시키며, 젊은 연주자에게는 보기 힘든 사고의 깊이를 분출시키는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의 차세대 거장 첼리스트 오펠리 가이아르 초청연주회.

오펠리 가이아르는 파리 국립음악원 재학 중 실내악 부문, 첼로부문, 바로크첼로부문에서 3차례 1위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바흐/독주첼로를 위한 모음곡 제1번, 제3번  
브람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프로그램**

반주/이동섬(동의대 교수)

· 특별출연/윤유진

· 특별출연/윤유진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제 4회 새물결 춤 모음전 (전, 푸른춤 작가전)**

28일 화요일 오후 7:30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성 강한 작품들을 발표하는 무용협의 기획 무대.

**프로그램**

연(蓮)처럼 살라하니...(안무/강수나)

춤추는 마리오네뜨 : 인연시리즈(안무/조영미)

다시 서서(안무/김경미)

있는 그대로(안무/박설희)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무용협회(632-5116)

**다섯 번째 세 남자 합창 이야기**

30일 목요일 오후 7:30

고교 동창으로 꾸준히 음악적 교류를 해온 작곡가 권오철, 백승태, 최석태가 마련하는 세 남자 합창이야기.

· 작곡가/권오철, 백승태, 최석태, 송필석, 김수진, 이승임, 구영립, 신귀복, 정영태, 윤정경

· 합창/양산시립합창단 · 피아노/서숙지

· 성악/테너 장원상, 소프라노 성정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석태(019-623-1547)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실내악 페스티벌**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콰이어 제9회 정기연주회

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주 관 : 부산콘서트콰이어 주최 : 부산문화재단 디자인에이원

입장료 : 1층 20,000원 2층 10,000원 학생 7,000원 문의 : 051.817.8002

예매처 : 부산콘서트콰이어 www.ticket365.co.kr 부산은행(1588-2528)

\* 2006 부산사랑티켓 공연 작품입니다.



7080 콘서트

부산광역시 무대창작지원금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 젊은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실내악 페스티벌.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 1번 작품 8  
쇼스타코비치/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리오  
제 2번 작품 67 등

· 출연/정성흡(피아노), 백사론(바이올린),  
양경아(바이올린), 윤미둘(비올라),  
이예성(첼로)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011-597-6808)

**소극장**

**제 1회 석암가사 보존회 정기연주회**

2일 목요일 오후 5:00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보유자 석암 정경태 선생의 석암제 정가를 보존하고 있는 석암가사 보존회 정기연주회.

**입장료** 무료

**문의** 황경자(010-6739-5300)

**제 13회 동요사랑큰잔치**

9일 목요일 오후 6:00

청소년들을 위한 동요 보급에 힘쓰고 있는 동요사랑회가 들려주는 동요사랑큰잔치.

**프로그램**

신진수/우리의 내일

한수성/보고픈 어머니

박봉렬/종이학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신진수(017-553-5675)

**전국 교수추천 유망주 콘서트**

10일 금요일 오후 7:00

한국공연세계가 전국의 유망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유망주 콘서트.

**출연**

구하나(문현여중3년), 정아람(부산예고1년),  
김영림(부산예고 2년), 천서연(브니엘예고 2년),  
탁서연(부산대 1년), 김나영(부산대 2

년), 강경민(경성대 3년), 김민정(부산대 대학원),  
하지미(로템양상블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한국공연세계(02-2649-6178)

**권혜진 피아노 독주회**

13일 월요일 오후 7:30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혜진의 피아노 독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권혜진 (016-585-5263)

**풍물패 놀이새 창단 10주년 기념 제 7회 정기연주회**

17일 금요일 오후 7:00



흥겨운 우리 풍물을 보급하고 있는 풍물패 놀이새의 정기연주회.

**출연**

김상명, 박미향, 백정숙, 김순자, 신윤금,  
남기순, 김옥자, 정춘희, 노금자, 김복자 외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박영자(011-860-1815)

제 6회 김정희피아노아카데미정기연주회

**가을愛**

19일 일요일 오후 5:00

가을愛를 테마로 1부에서는 O.S.T.와 뉴 에이지 음악을, 2부에서는 쇼팽 에튀드와 베토벤 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출연**



김정희, 차혜자, 장묘희, 권지현, 김지석, 박세진, 최선, 황연인, 황영수, 노승홍, 강혜미, 김태호, 서민경, 이지은, 오새별, 강민정, 강호준, 천미정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희(017-552-4106)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피아노 교수음악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김남숙, 고은경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기악과 교수와 장진이, 신현희, 이희령, 고태욱 등 고신대학교 출신 외래 교수들이 들려주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프로그램**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 6번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의 춤

브람스/16개의 왈츠 작품 39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예은예술기획 051)632-6904

**한울림연주단 제 8회 정기연주회**

26일 일요일 오후 6:00



1998년 1월,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중고생들로 창단된 한울림 연주단의 제 8회 정기연주회.

· 찬조출연/박훈(테너), 곽승웅(클래식기타), 이상창(플룻)

**입장료** 초대

**문의** 이순희(017-563-5067)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제 17회 이건음악회

1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음악전문지 그라모폰으로부터 '최고의 독주자'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 데이비드 즐리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2006년 이건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의** (주)이건창호시스템(557-2071)

부산교사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음악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합창단은 그동안 2006 부산국제합창제,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교원연수 개강음악회 등을 가져왔다.

· 지휘/김강규 · 반주/조경희, 손영희  
· 특별출연/부산진고, 부산여고 연합중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성낙찬(010-3354-3639)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일 소프라노 정서영 ·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2인 음악회

· 피아노/김성희 · 해설/윤성원

■8일 코아클라리넷앙상블 연주회

TV 프로그램에 출연, 많은 감동을 안겨줬던 자폐 수영선수 김진호(부산체육고 3년)와 코아 클라리넷앙상블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4중주 KV.157

윌슨/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수곡  
· 해설/박진홍

■15일 황시내 피아노 독주회

· 찬조출연/송미희(피아노), 김지호(테너)

■22일 일란 로고프 렉처콘서트

■29일 홍용신 오카리나 독주회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제 3회 창작관악곡 연주회

2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경찰악대와 군악대, 학교 관악단 등 부산의 대표적인 7개 관악단이 펼치는 관악의 향연.

출연

부산지방경찰청 악대, 해군제3함대 군악대, 동의공업고등학교 관악단, 예원정보여자고등학교 관악단,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관악단,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 관악단,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관악단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박종회(016-566-6410)

2006 부산생활음악축제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브라부라 색소폰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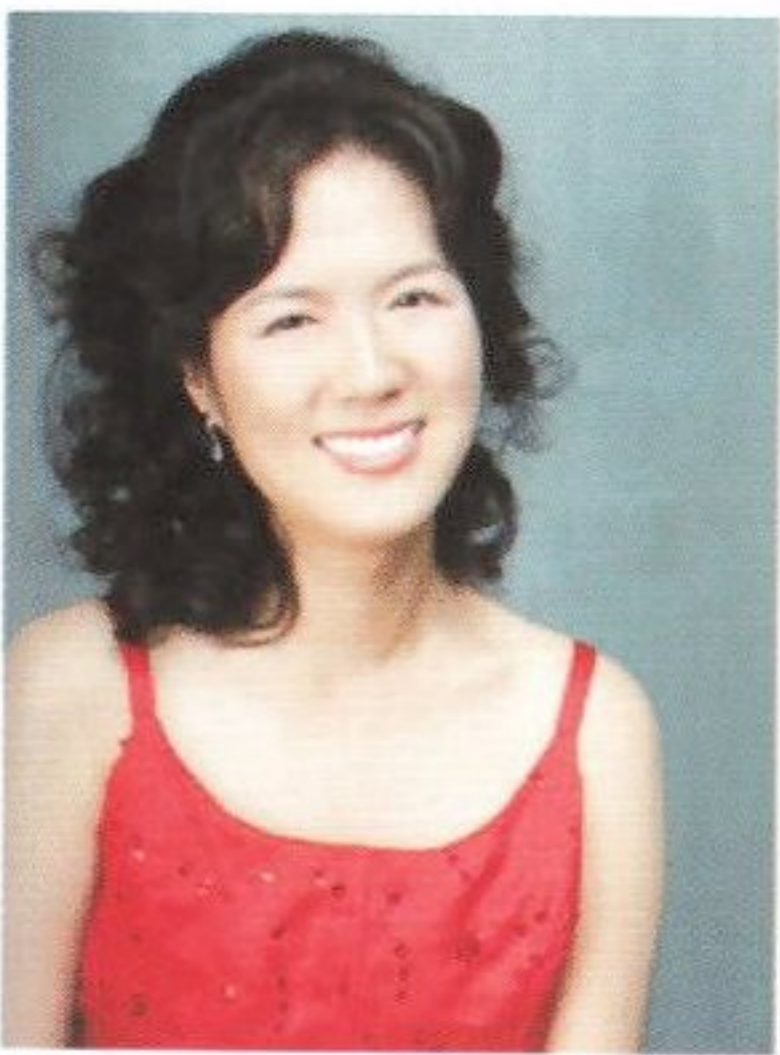
브라부라 색소폰 앙상블, 대울림, 이승건 패밀리앙상블, 꿈마을 사물놀이패, 교사풍물패 다리, 신새벽풍물패 등 7개 아마추어 연주단체가 출연하는 부산생활음악축제.

**입장료** 무료

**문의** 조익래(010-9878-7942)

## 김소희 피아노 독주회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한연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김소희 독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앵클공연

2일 목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여성 특유의 섬세한 터치와 깊은 서정으로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연주회.

· 협연/메조소프라노 차순례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한 전 좌석 2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부산오르가노 제 16회 정기연주회

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중앙교회

고신대학교 손경순 교수를 비롯 이정은,

박은정, 이미영, 박은아 등 5인의 오르가니스트가 들려주는 오르간 음악의 세계.

**프로그램**

J. K. 크레브스/환타지아 바장조

뒤프레/Cortege et Litanie 작품 19 제 2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중앙교회(624-4554)

## 2006 한끼의 식사기금 사랑의 자선음악회

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국제구호단체 (사)한끼의 식사기금에서 마련하는 자선음악회로 이번 무대의 수익금은 짐바브웨이 에이즈 구호사업을 펼치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진다.

**출연**

김경희, 이윤정(소프라노), 박소연(메조소프라노), 이철성, 이은민(테너), 조현수(바리톤), 이상창(플룻), 공소현(피아노), 곽승웅, 고충진(클래식기타), 박경희(바이올린), 정우영(클라리넷)

· 반주/이화영선, 이주연 · 해설/박진홍

**입장료** 균일 20,000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사)한끼의 식사기금(731-7741~2)

## 해운대리코더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0년 6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후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해운대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장숙혜(011-862-6675)

## Tone in Free Brass 제 11회 정기연주회

4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5중주단으로 창단한 Tone in Free가 10중주 Brass로 출발하면서 갖는 무대. **출연**

손영진, 백충곤, 구은정, 전상윤(이상 트럼펫), 문동주, 김두천(이상 혼), 최재훈, 이웅희(이상 트럼본), 박동수(베이스 트럼본), 공영식(튜바), 김하균(편곡), 송희철(타악)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두천(010-2559-7569)

##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7회 정기연주회

4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초·중등학생 60명으로 구성된 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정기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함미영(010-2445-4114)

## 2006 부산 플루트 음악 축제

7일 화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양상블, 콰이어, 트리오 등 부산지역 8개 단체가 출연하는 플루트 음악의 향연.

**참가단체**

부산플루트양상블, 소리테플루트양상블, 아르모니플루트양상블, 에코플루트콰이어, 뉴앙스플루트콰이어, 그라시아플루트콰이어, 칸투스플루트콰이어, 그레도 플루트 트리오

**입장료** 초대

**문의** 이하룡(011-9535-0421)

제 466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피아니스트 정광민, 박희경의 슈베르트와의 만남**

7일 화요일 오후 8:00 가람아트홀



부산예고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음악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정광민, 박희경이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피아노 소

나타 D.959 가장조

스크랴빈/에튀드 작품 8-12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천주미 가야금병창 발표회**

8일 수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장원,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병창부문 최우수



상,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반부 병창 차상 등을 수상한 천주미의 가야금 병창 발표무대.

**프로그램**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짧은 산조), 단가

'녹음방초', 25현 가야금병창 '가야송'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천주미(011-9712-8893)

United Korean Orchestra(UKO) 창단연주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9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소아암, 신장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어린이들을 돕기위해 뜻을 같이 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UKO 창단연주회.

· 지휘/곽승

· 협연/이동섬(피아노), 김성진(테너), 성정하(소프라노)

**입장료** R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UKO(731-4470, 011-589-3111)

**부산상록수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9일 목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평균연령만 60세가 넘는 단원들로 구성된 부산상록수합창단(지휘/박형태)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무대.

· 특별출연/바리톤 강재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박형태(010-5777-7057)

**11시 브런치 콘서트**

9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앙상블 클래식 아의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

· 해설/홍성택

· 판소리/이향희

· 고수/강봉찬

**입장료** 균일 15,000원(간단한 식사 포함)

**문의** 앙상블 클래식(506-6305)

**권은영의 가을풍류 掃葉山房**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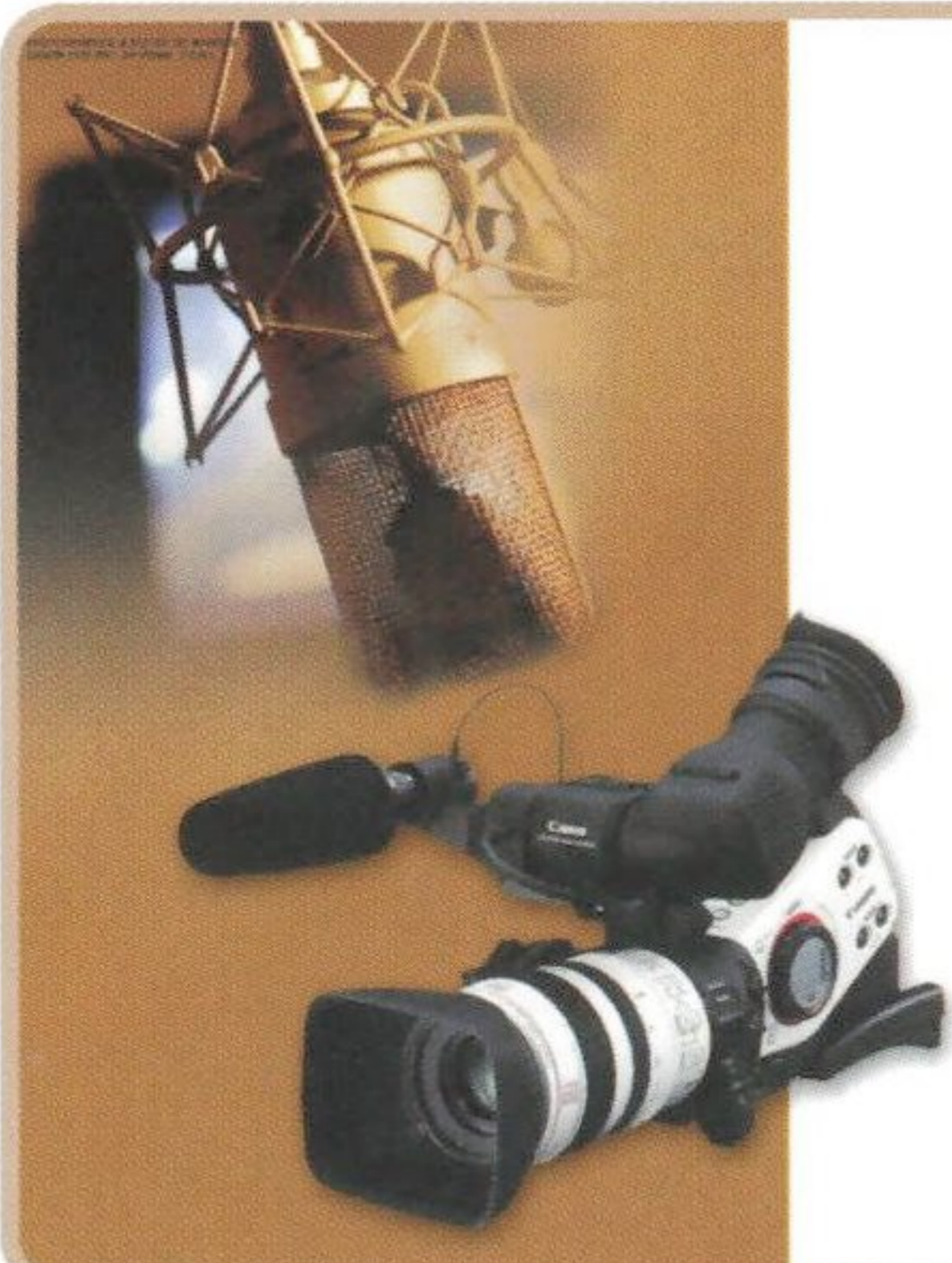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비디오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_ 음반 녹음 \_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 (DVD, SVHS) \_ 콘서트 촬영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 051-744-1150, www.vrvr.co.kr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로 있는 거문고 연주자 권은영이 가을밤의 정취와 어울리는 우리 국악의 깊은 멋을 들려준다.

· 연주/ 송권준(해

금), 박환영(대금), 이정은(양금), 최병길(장구), 조순재(가곡), 이종록(가곡)

**입장료** 초대

**문의** 소리터 기획(702-6963)

## 부산여교사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부산시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여교사들로 창단한 후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여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배승택(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협연/양승엽(테너), 이선영(전자바이올린)

**입장료** 초대

**문의** 단장 박화순(011-864-1471)

## 김미선 바이올린 독주회

1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싱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신포니에타, 도미난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미선 독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사장조 작품 30  
브람스/소나타 가장조 작품 100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제 467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 첼리스트 박현영과 함께

14일 화요일 오후 8:00 가람아트홀



부산대학교와 뉴런베르그 대학원, 보스턴 콘서바토리 대학원, 마이애미대학 대학원(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실내악단 뮤젠, 경남 챔버스사이어티 단원

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박현영 초청음악회.

###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  
번 사단조 작품 5

포레/엘레지 작품 24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 오지 여행가 도용복의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VII

14일 화요일 오후 3:00, 7:00  
글로벌아트홀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재미나는 해설로 즐기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상상영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밀라노와 친구들 두 번째 음악회

## 부산과 제주의 추억과 만남 콘서트

1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밀라노를 중심으로 이태리 북부지역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전국 성악가들의 모임인 '밀라노와 친구들'이 9월 제주공연에 이어 마련하는 부산무대.



이윤정

박찬

### 출연

테너 장호진, 박찬, 바리톤 김동연, 김광정, 베이스 손욱, 소프라노 이윤정, 김지은, 박연경,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 피아노/이영숙, 강스텔라

· 찬조출연/제주챔버코랄, 부산레이디싱어즈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7,000원

**문의** 손욱(011-9520-4649)

## 베이스 김일석 귀국 독창회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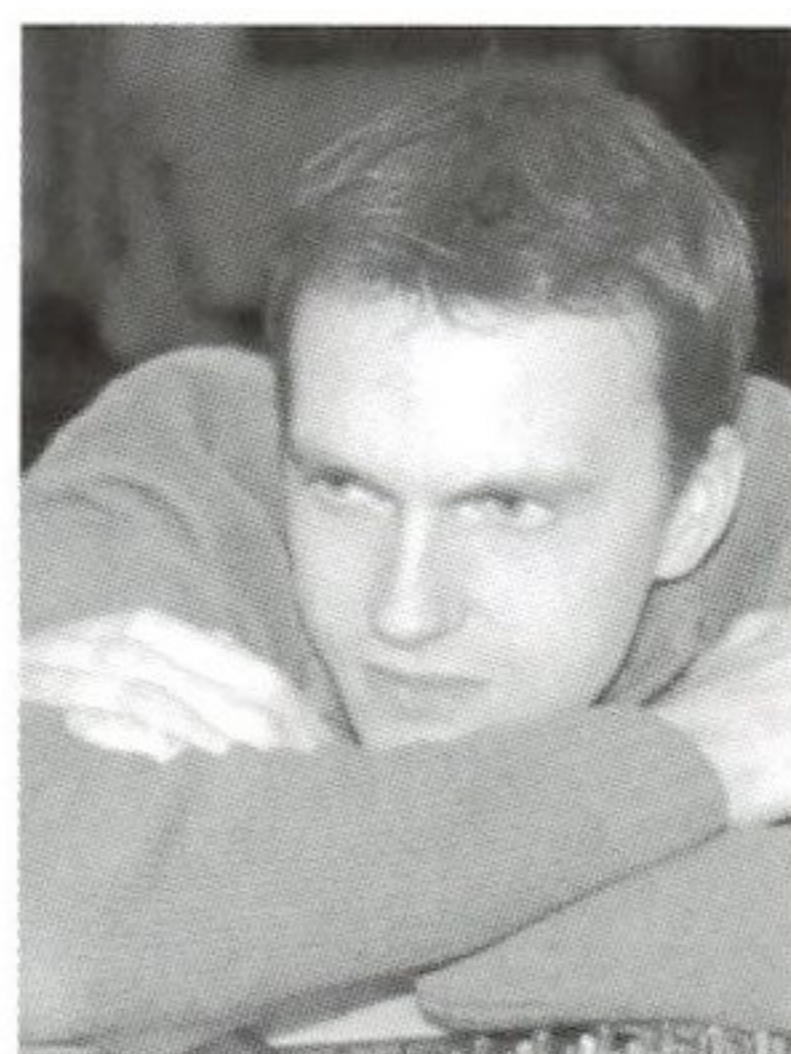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일석은 이번 무대에서 바흐의 '칸타타 82'를 비롯 차이코프스키, 구노, 베르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김일석(010-3103-3308)

##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타로 초청독주회

1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국내 첫 내한공연을 갖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타로는 아카데미 샤를르 크로 그랑프리, 디아파종도르, 몽드 라 무지끄상 등을 수상하며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피아니스트 대열에 올라섰다.

프로그래  
야나체프/피아노 소나타  
슈만/환상곡 등

**프로그램**

야나체프/피아노 소나타

슈만/환상곡 등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 밀레니엄 현악 4중주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7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2000년 2월 바이올리니스트 이미하, 정덕원, 비올리스트 구영숙, 첼리스트 김희은으로 창단한 밀레니엄 현악4중주단 정기공연.

### 프로그램

멘델스존/현악 4중주 작품 81

글레주노프/현악 4중주 작품 15 등 수곡

**문의** 정덕원(017-554-7292)

## 부산교사국악현악단 연주회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2005년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로 창단한 이후 정기연주회와 교과서음악회 등을 가져온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한국소년소녀정가단

**입장료** 초대

**문의** 이갑석(017-551-0623)

## 김진희 피아노 독주회

18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진희 독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안단테 바장조 WoO 57

슈만/환타지 다장조 작품 17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제 7회 강백천류 대금산조 발표회

1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금산조를 비롯 판소리, 경기민요, 판굿 등 우리 전통의 소리와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제 7회 강백천류 대금산조 발표회.

### 출연

김동표(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조철현(대금산조 전수조교), 박계향(판소리), 박경량(춤)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신수길(011-858-5934)

## 부산신포니에타 제 56회 정기연주회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영희

일란 로고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일란 로고프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엘가/세레나데 작품 20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마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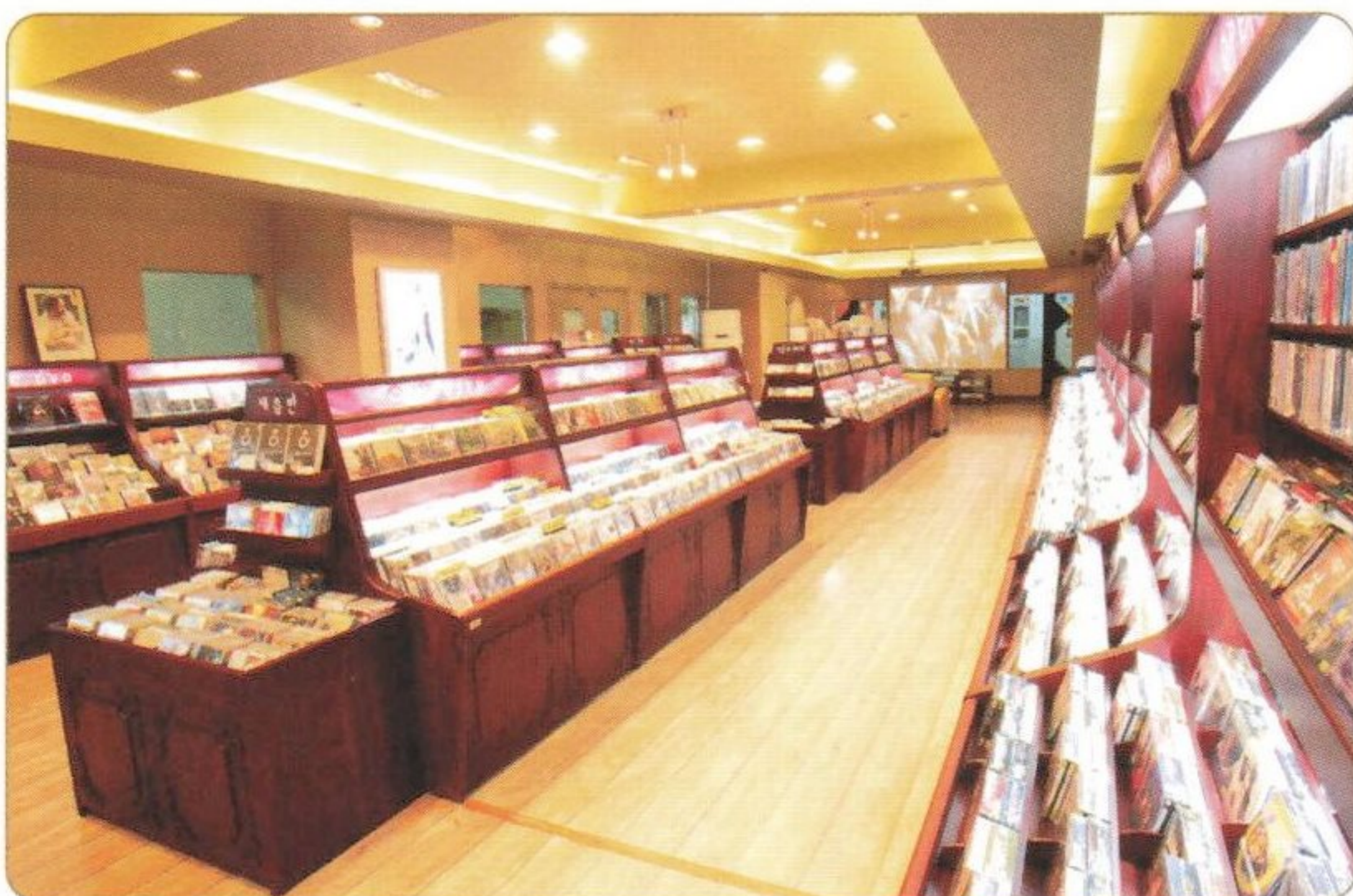
레스피기/옛 춤곡과 아리아

· 리더/김영희(부산대학교 교수)

· 협연/일란 로고프(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들이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 부산목관 5중주 2006년 정기연주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71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목관 5중주 2006년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라이하/5중주 작품 88 제 2번

베토벤/세레나데 작품 2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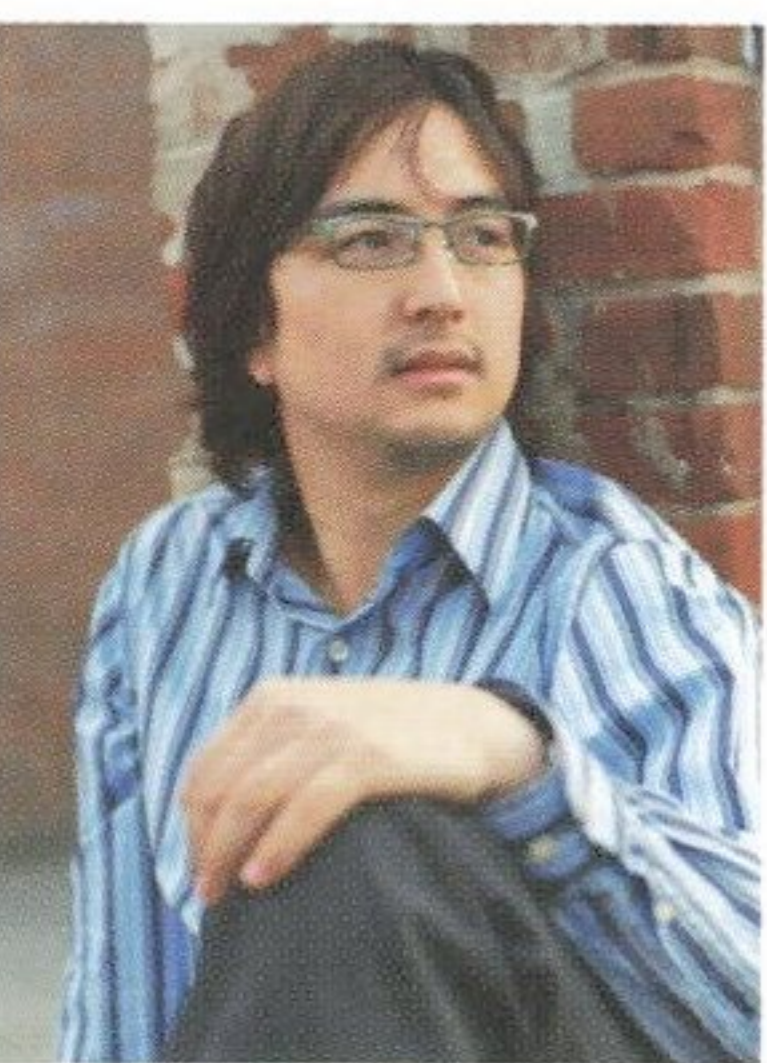
· 출연/장극태(플룻), 권성은(오보에), 박종회(혼), 김태윤(바순), 홍용신(클라리넷), 유영욱(피아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장극태(011-582-5189)

## 재즈 피아니스트 Vian(김성배) 연주회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버클리음대와 맨하탄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수많은 연주회와 뮤지션과의 교류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Vian의 연주회.

가 Vian의 연주회.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암모암모 콘서트

22일 수요일 오전 10:00,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300여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딱딱하기만 하던 기존 클래식음악회에서 벗어난 재미있는 진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암모암모 콘서트.

**입장료**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타오’ 공연 함께 구입시 30% 할인)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 타오(TAO)

24일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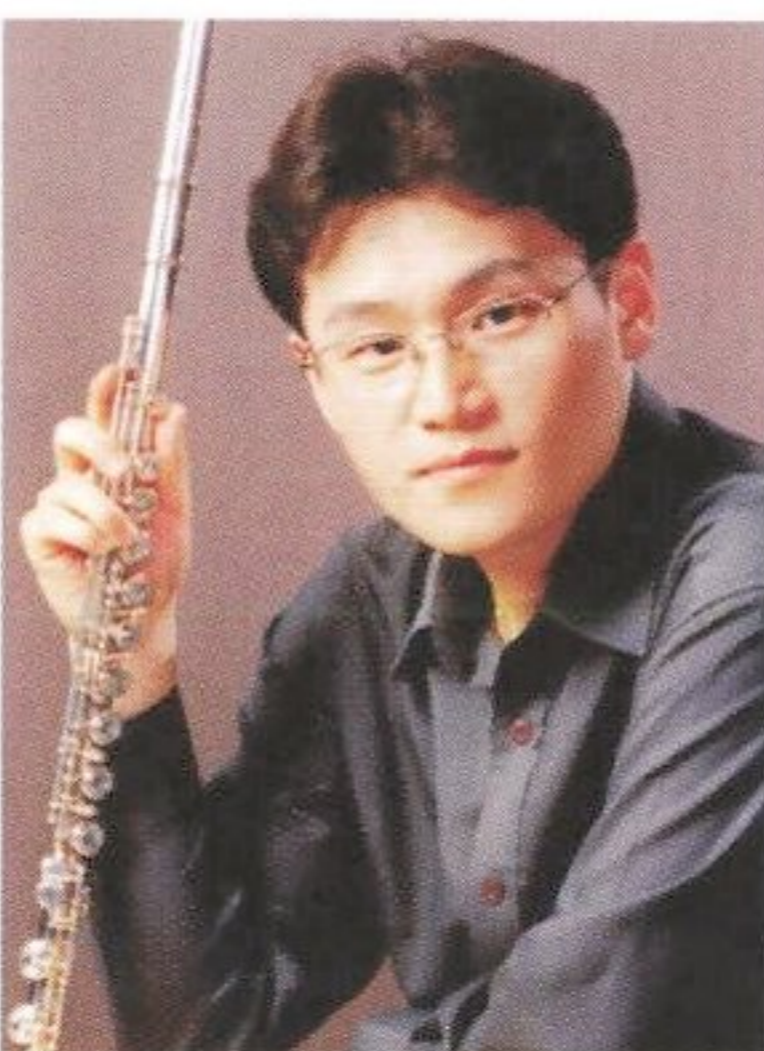
박진감넘치는 사물놀이 가락과 대동놀이를 현대적으로 퍼포먼스화하여 관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공연 ‘타오’는 길놀이, 장단놀이, 대북연주, 모듬북연주, 마당연주, 놀이마임, 대동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장료**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 최낙주 플룻 독주회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북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경북심포니, 체코 야나체크 챔버 등과의 협연 등 다수 무대에 서온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 프로그램

그리퍼스/피아노와 플룻을 위한 ‘시’

라이네케/소나타 작품 167 ‘운디네’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라장조 작품 94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페르티바 플룻콰이어 제 2회 정기연주회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룻 부수석 조성철이 이끄는 페르티바 플룻 콰이어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서곡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페르티바 플룻콰이어

(011-9503-2078)

남산놀이마당 회원 풍물대동굿

## 큰 굿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1992년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남산놀이마당 풍물반을 거쳐간 전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련한 풍물대동굿.

**입장료** 초대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 앙상블 클래식 전국 순회공연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5년 8월 첫 연주회를 가진 후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앙상블 클래시아가 12월 대구, 서울 공연에 앞서 갖는 부산 무대.

###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 4중주

모차르트/현악 4중주 라단조 K.421 등  
· 연주/홍성택(클라리넷), 박치상, 박미선  
(이상 바이올린), 김지연(비올라),  
이선아(첼로)

**입장료** 초대

**문의** 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 부산교사오케스트라 제 11회 정기연주회

29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1번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수곡

· 지휘/박종희 · 협연/이반 네델체프(혼)

**입장료** 초대

**문의** 김용조(010-4568-3995)

## 여성창무극 무영탑

29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석가탑으로 알려진 무영탑에 얽힌 아사달



과 아사달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를 그린  
여성창무극 '무영탑'.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예매시 50% 할인)

**문의** 국악협회 부산지회(418-3399)

## 연극

부두연극단 20주년 앵콜 레퍼토리 공연

### 에쿠우스

1일(수)-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액터스소극장



영국 법정에 충격  
을 던져준 6마리 말  
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마굿간 소년의  
엽기적인 범죄를 소  
재로, 현대인의 실  
존과 실상을 다룬  
작품.

· 작/피터 셰퍼 · 재구성 및 연출/이성규  
· 출연/박혜인, 김태훈, 정주빈, 최현경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두연극단(611-6616)

## 2006 컬투쇼 명작 전국 투어-부산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노래와 개그를 접  
목한 라이브 개그로  
다양한 웃음을 선사  
했던 컬투가 지난해  
공포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해 각광받았  
던 명작패러디를 새  
롭게 선보인다.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문의** (주)에인엔터테인먼트  
(02-6012-7798)

가마골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

### 류의 노래

10일(금)-1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1993년 일본 신  
주쿠양산박의 초연  
으로 무대에 올려진  
작품으로, 미래도시  
거대 문명사회의 도  
시 빈민의 삶을 감  
동적으로 그려낸 낭  
만극 '류의 노래'.

· 작/고해노키야마 요히치 · 연출/이윤주  
· 출연/추은경, 김하영, 변진호, 오성택 외

· 특별출연/김소희, 이승현, 김미숙



광복동 필하모니 음악감상실을 잊으셨습니까?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20명~80명)  
◆ 부산문화회관 가족 및 정기회원 점심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제 98회 정기공연

## 삼매경

14일(화)-30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늘원소극장

민중불교를 주창했던 원효대사의 자유정신을 동해안 별신굿과 어우러져 표현한 연극 '삼매경' 초연무대.

· 작/심상교, 이철우

· 연출/이기원

· 출연/황창기, 이지훈, 정행심, 곽정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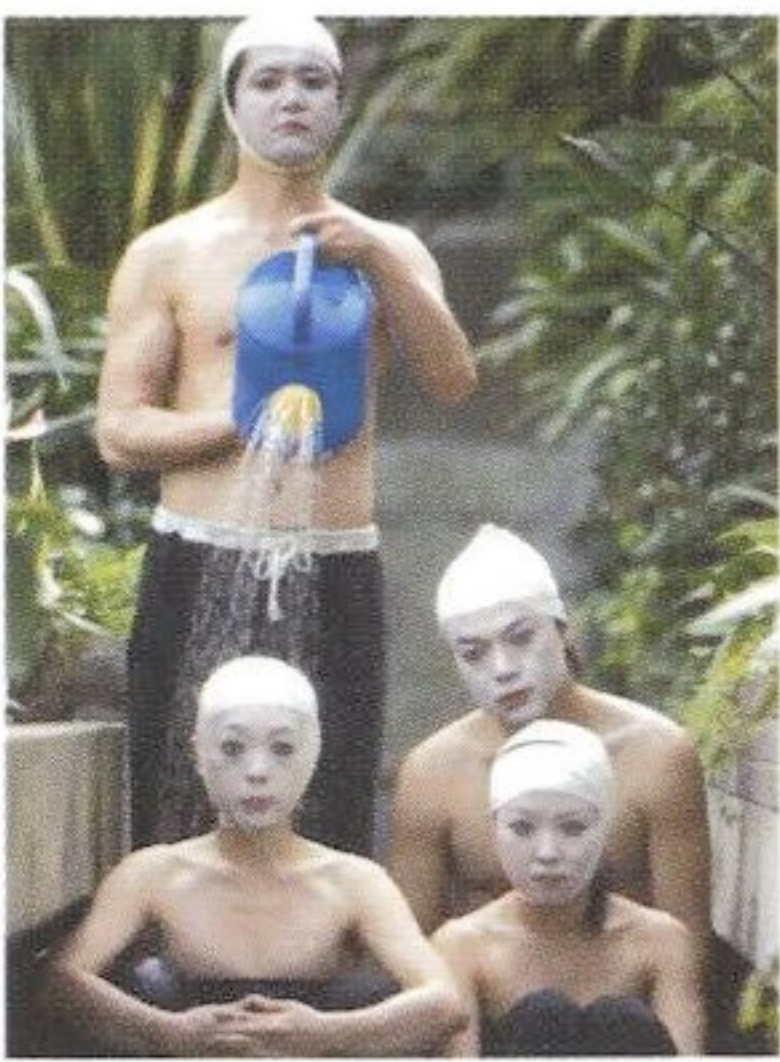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5,000원 · 중고생 10,000원 (20인 이상 단체할인 20%)

**문의**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011-559-5119)

극연구집단 시나위 제 18회 정기공연

## 아프리카 신드롬

22일-24일 수-금요일 오전 9:00, 11:00, 2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지상낙원 같은 시설을 자랑하는 정신병원 '파라다이스 아프리카'의 숨겨진 비밀을 둘러싼 심리 추리극.

· 작/강태욱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김혜정, 백길성, 손안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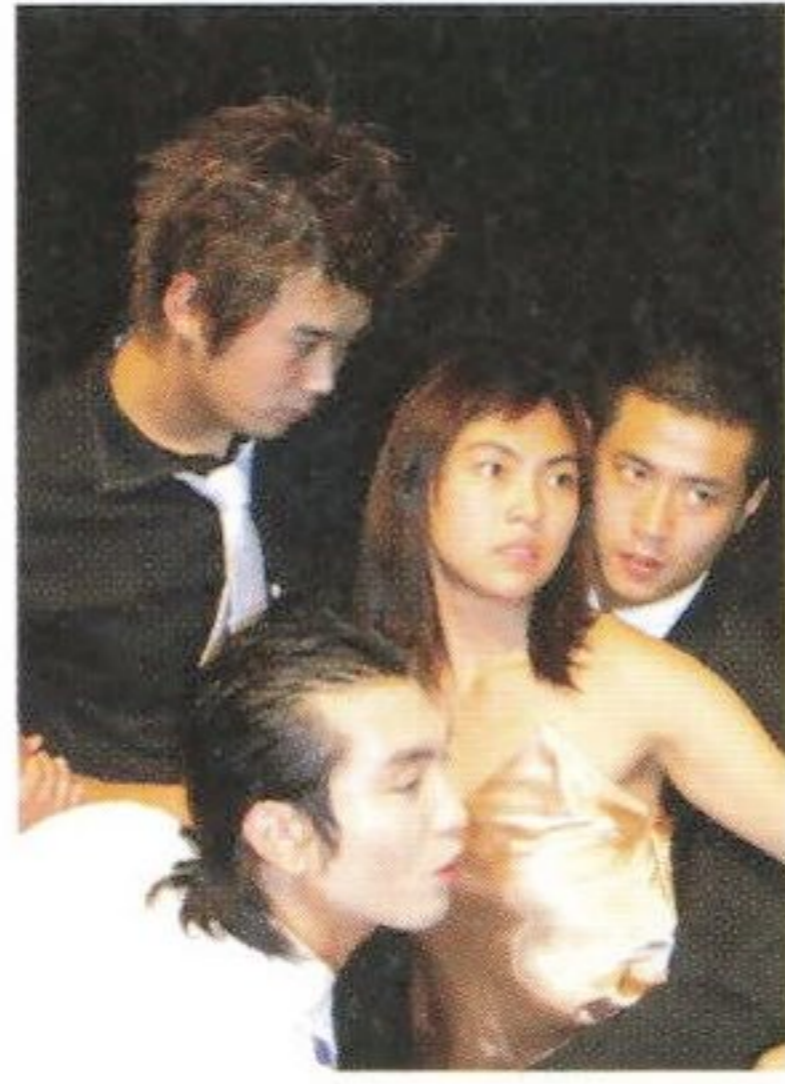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가마골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

## 노라, 인형의 집

22일(수)-2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입센 서거 100주년 기념무대로, 자신의 존재가 인형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집을 떠나는 주인공 노라를 통해 사회의 고착된 인습이 어떻게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작품.

· 작/헨릭 입센 · 연출/이윤택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무용

2006년 김정순 발레단 공연

## 보은의 꽃

4일 토요일 오후 3:30, 7:30 시민회관 대극장



효의 사회적 수범과 교육적 가치를 안무자 개인의 인연과 체험적 삶을 통해 표현한 창작발레.

· 안무/김정순

· 출연/오윤환, 조은숙, 이원주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김정순(866-4330)

## 2006 춤추는 남자들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민주공원 작은방

전통춤에서부터 창작춤까지 다양한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개성넘치는 남자 춤꾼 14인의 열정과 신명의 무대.

■ 4일

춤추는 꿈(안무/이흥수)

놀이터(안무/정영민)

이질적인 것들(안무, 출연/정진우)

설장구(출연/설영성)

밀착(안무, 출연/한종철)

IN-추락하다(안무, 출연/박성호)  
애련(안무, 출연/홍기태)

■ 5일

야합(안무, 출연/손영일, 신상현)

복춤(출연/우진수)

친구 하나(안무/이대건)

승무(출연/최병재)

Rainbow Eyes(안무, 출연/김윤규)

보이지 않는 춤(안무, 출연/최병규)

수영야류 말뚝이춤(출연/이상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민주공원(462-1016)

## 강미리 홀 무용단 창작춤 품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빛의 영감과 풀림으로 표현되는 자각과 인간성 회복을 현대적 살풀이로 풀어낸 부산대학교 강미리 교수가 이끄는 홀 무용단의 창작춤.

· 안무/강미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강미리(011-9301-1074)

김은이 짓 무용단

## 수험생을 위한 전통춤 들여다보기

28일 화요일 오후 3:00, 7:30 시민회관 대극장



김은이 짓 무용단이 고 3수험생들에게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신무용 등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이 있는 전통춤 들여다보기.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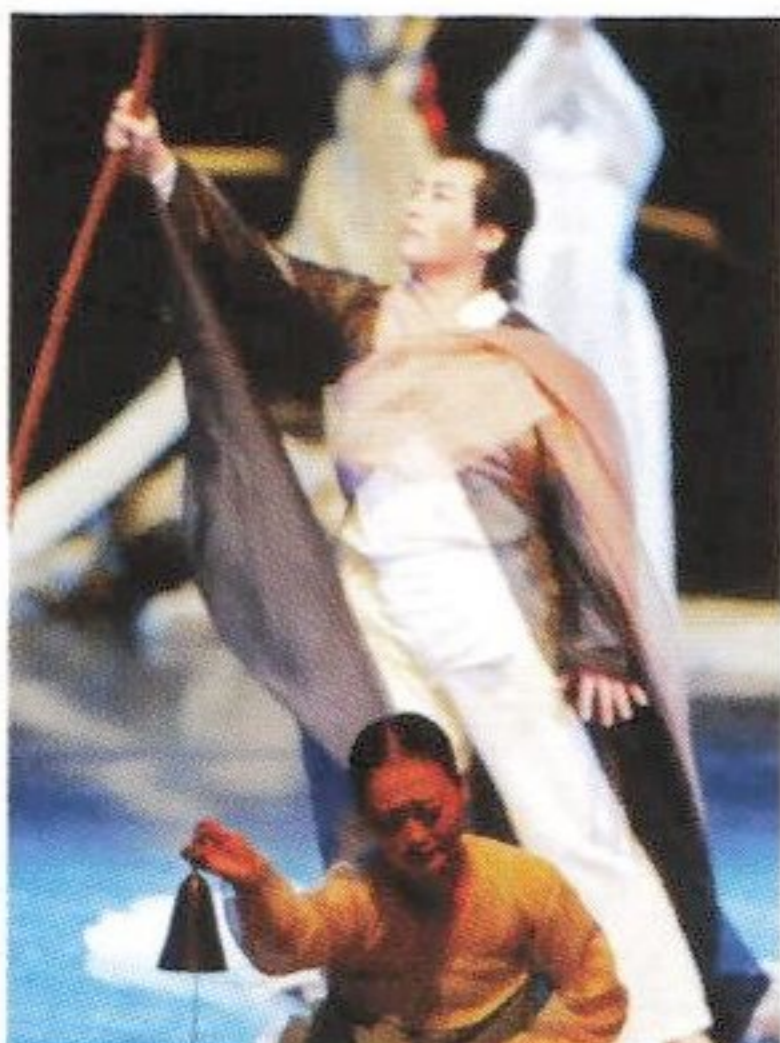
**문의** 김은이 짓 무용단

(200-7819, 018-676-1815)



蓮亭 CHM 5개년 공연 기획시리즈 4  
춤·화두/맥 그리고 창조  
이윤자의 춤 '씻음'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이윤자 교수가 이끄는 '연정(蓮亭) CHM'이 '춤·화두'라는 주제로 무대에 오른 기획시리즈 4번째 무대.

1막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2막 열림, 3막 울림, 4막 풀림, 5막 씻음 등 전체 5막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공연에 앞서 27일 6시부터 춤영상전과 춤갤러리전이 함께 펼쳐진다.

- 예술총감독, 안무/이윤자
- 출연/이윤자, 김미자, 이봉진, 박숙영, 이승훈, 최준명, 도희정, 이유지 외

입장료 초대  
문의 이윤자(510-2949)

아 동 극

솔로몬의 생각주머니

2일 목요일 오전 10:20, 11:20  
시민회관 소극장, 3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가톨릭센터 소극장,  
7일 화요일 오전 10:20, 11:2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현명한 임금 솔로몬왕의 일화를 영어연극으로 각색한 '솔로몬의 생각주머니'.

입장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0,000원  
문의 극단 김치먹은 영어(816-8904)

전래동화 인형극 선녀와 나무꾼

11일(토)-19일(일) 평일 오후  
4:00, 주말 오후 1:00, 3:00  
(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무대의 원근감을 다양한 크기의 인형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전래동화 인형극.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문화가족 살터(621-8518)

가족뮤지컬 난다난다 니안다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위험에 처한 친구를 만나면 슈퍼영웅으로 대변신하는 고양이 '야고'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보호자 1명 무료)  
문의 극단 미르(010-9613-0426)

보로로와 별나라 요정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MBC 아트홀

EBS 교육방송 창사 이래 최고의 시청율을 기록한 '뽀롱뽀롱 보로로'를 가족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주)부산문화방송(760-1166)

행 사

제 55회 시올림 시낭송회

8일 수요일 오후 7: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수우, 김수화, 박춘석, 배기환, 유소지, 정익진, 조말선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제 2회 부산불꽃축제

10일 금요일 오후 8:30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으로부터 찬사를 자아냈던 지상 최대의 불꽃축제.

문의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888-3392)

전 시

북천박물관 2006년 특별전

중요와 안녕의 기원

9월 29일(금)-12월 3일(일)

문의 북천박물관(554-4263~4)

김홍수 초대전

10월 13일(금)-11월 17일(금)

문의 도시갤러리(756-3438)

윤석남 기획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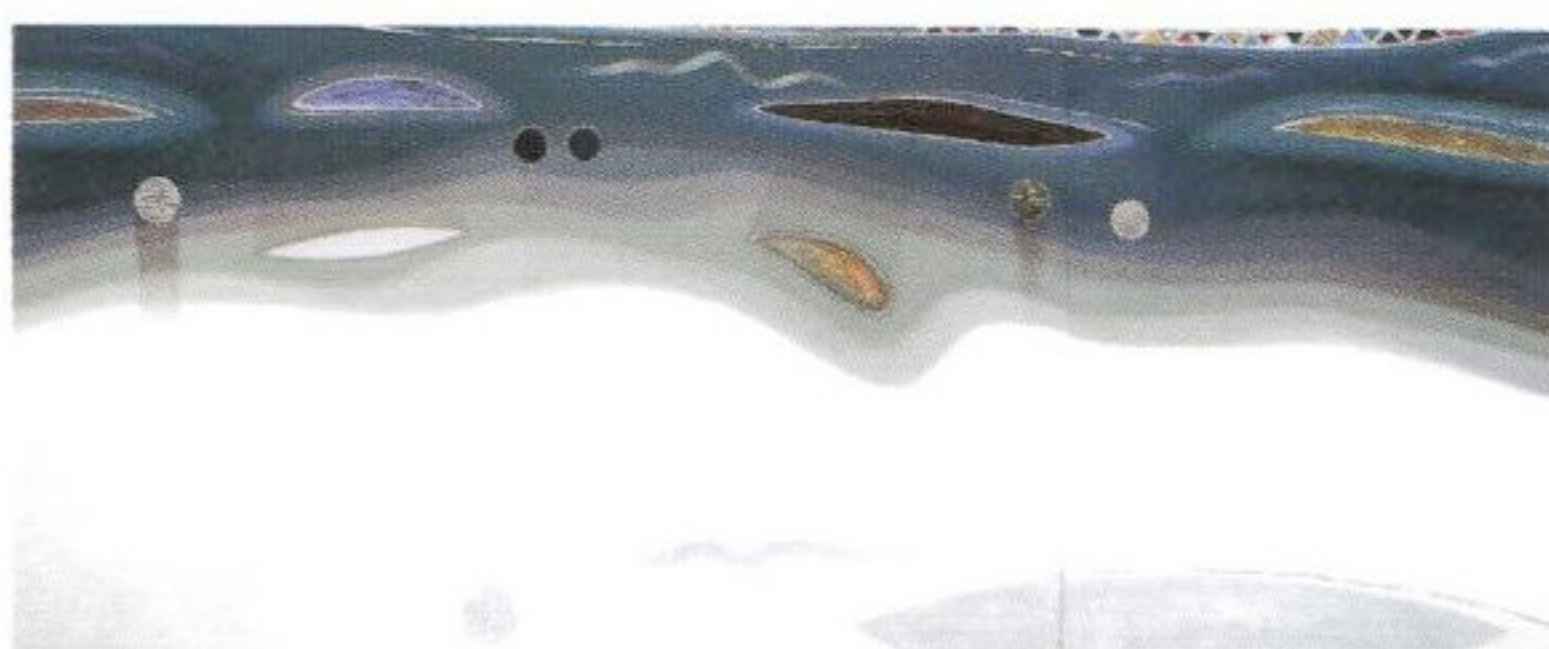
10월 31일(화)-11월 17일(금)

문의 김재선 갤러리(731-5438)

박인관 작품전

이미지-시공유영 06-07

11월 3일(금)-11월 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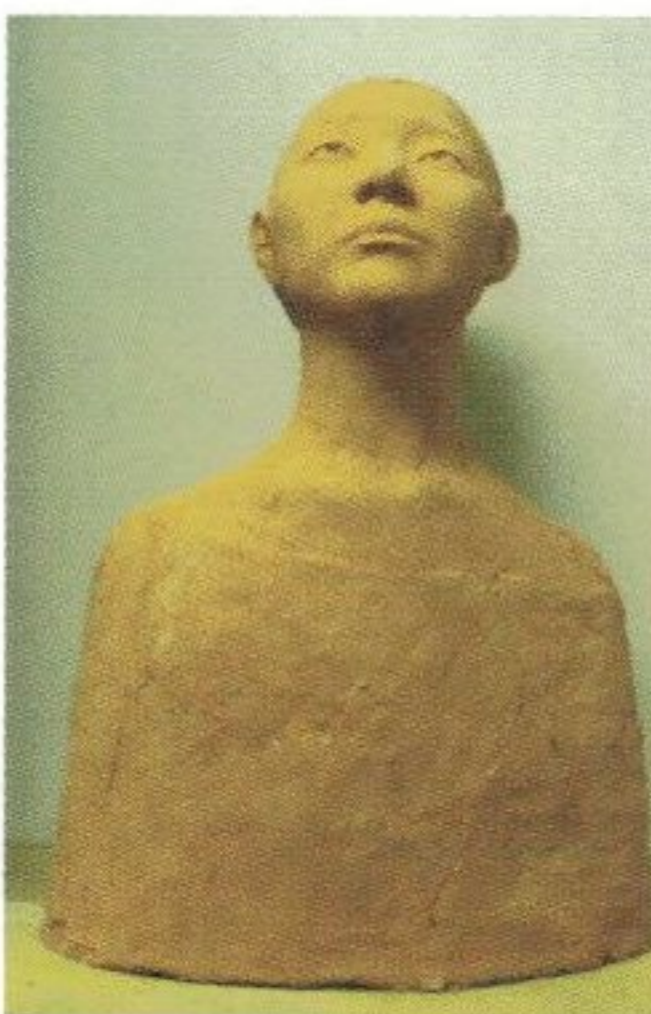


새로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공간을 미리 경험하듯이 알루미늄판 위에 스크래치와 페인팅으로 평면적인 화면을 구성, 표현한 작품 32점 전시.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박소연 대학원 청구전 시선

11월 14일(화)-11월 19일(일)



한국적 여성의 이미지를 테라코타 제작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서정적으로 묘사, 인간내면에 내제된 비장미를 조형적으로 대상화한 14점의 테라코타 작품 전시.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

박근혜 개인전

11월 21일(화)-11월 26일(일)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

## Recommended Performance in November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55th Subscription Performance Image of Millenium, Gyeol-Grace, Grandeur and Passion

8th(Wed)-9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y are offering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They are reorganized and designed them creatively. These are Taepyungsongdae, Hakchum, Sunbichum, Dalbitchum, Kangkangsoollae and etc...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A 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118

### Memory of APEC the 2nd Busan Fireworks Festival

10th(Fri) 8:30 p.m. Gwangan Beach, Gwangan Bridge



Busan citizens had an exciting experience with the fireworks display last year. Another fantastic chance is waiting for us.

Fire, sound, laser, special lightings and everything is setting. You'll never

forget this gorgeous moment.

More Information : 888-3392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24th Subscription Concert Prokofiev 'Truth'

17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time ex chief conductor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wak Sueng meet Busan classical fans with violinist Lee Soran.

Lee is a very talented artist, works on a master's degree in Yale University as a all-expense award grantees.

program

L.v.Beethoven/Overture to 'Egmont' in f minor op.84

M.Bruch/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op.26

S.Prokofiev/Symphony No.5 in Bb Major op.100

Ticket : R 10,000Won · 7,000Won · 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101~4

### 2006 Busan Symphony Orchestra Series IV, Musicians in Busan

27th(Mon)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usan Symphony Orchestra is a successful model of private orchestra in Busan. They are challenging another performance. Actually many classical fans looking forward to their the forth event with best artists in Busan.

Program

G. Rossini : La Gazza Ladra( 'The Thieving Magpie' ) Overture

F. Liszt /Piano Concerto No.1 E-flat major

F.J. Haydn/Cello Concerto D major

W.A. Mozart : Sinfonia concertante K.364 E-flat major

Ticket : R 30,000Won · S 20,000Won · A 10,000Won

Students 5,000Won

Busan Symphony Orchestra(620-4917~8)

### Designed Concert by Busan Cultural Center Cellist Han-Na Chang 'Romantic'

28th(Tue)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We have been surprised by a born cellist, Han-Na Chang. When Chang was only 11 years old, she was awarded by Grand prize and contemporary music prize in Rostropovich Cello International Concours. Now Chang comes back in more mature talent.

program

R.Schumann/Adagio & Allegro for Cello &

Piano in Ab Major, Op.70

D.Shostakovich/Sonata for Cello & Piano in d minor, Op.40

F.Chopin/Sonata for Cello & Piano in g minor, Op.65

F.Chopin/Introduction and Polonaise brillante for Cello & Piano in C Major, Op.3

· Piano/Sergio Tiempo

Ticket : R 70,000Won · 50,000Won · 30,000Won

B(Student) 1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042, 607-6070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25th Subscription Concert Night for Classical Music

30th(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will be special momen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leded guest conductor Kim Deokgi(Prof. of Seoul Univ.) is offering the two greatest artists, Mozart and Beethoven with Chae Jaeil, the best clarinet player.

You feel sentimental mood with them in the autumn night.

program

W.A.Mozart/Divertimento No.2 in D Major K.136

W.A.Mozart/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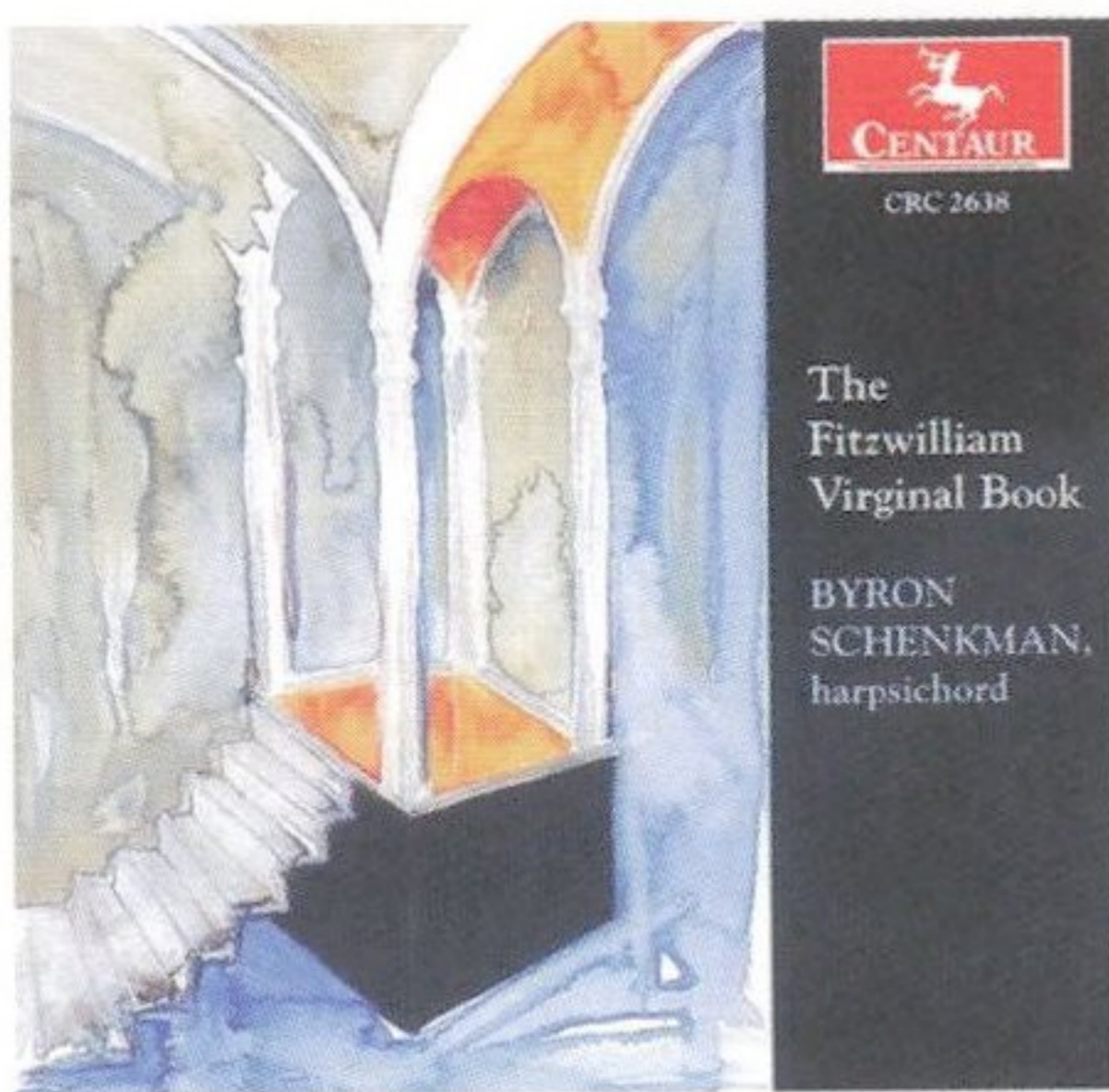
L.v.Beethoven/Symphony No.7 in A Major op.92

Ticket : R 10,000Won · 7,000Won · 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101~4

# 소품(小品, piece)의 세계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1816년에 발표된 영국 바로크 초기시대의 작곡가 피츠윌리엄(Fitzwilliam)의 버지널 곡집(Virginal book) 음반

교향곡이나 협주곡 같은 다악장(多樂章) 형식의 음악을 수용하려면 적어도 20분 이상은 마음 단단히 무장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게다가 말러(Mahler)나 브루크너(Bruckner)의 교향곡 같은 대작에 걸려들면 1시간 이상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음악감상 입문서의 저자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당부가 “인내심을 기르라!”는 것이다. 인내심이 없으면 음악감상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인데, 지당한 당부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음악 중에는 인내심 같은 거추장스러운 무장이 필요 없는 작품들이 의외로 많다. 연주 시간도 길어봤자 10분 안팎이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음악에 쏠리기 마련이다. 이런 음악을 일러서 ‘소품’, 또는 ‘소곡’이라고 부른다. 특

별히 음악에 관한 전문적 준비가 없어도, 필요 이상의 긴장이 없어도, 장소가 다소 어수선해도 소품은 신통하게도 사람들의 가슴을 비집고 스며드는 마력을 발휘한다. 그게 소품의 매력이자 소품의 생명력이다.

소품이란, 넓은 의미로는 악곡의 규모가 작고 양식적으로 단순하며 연주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악곡을 이르는 것이겠으나, 이러한 정의는 소품의 범주를 너무 방대하게 확대시키는 모순에 빠지기 십상이다. [음악 입문(Introduction to Music)]의 저자 밀러(H. M. Miller)는 ‘형식에서 자유로운 작품’, 즉 푸가나 카논, 모테트, 소나타 등 어느 형식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형식의 작품에 소품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소품의 범주에서 성악곡은 제외된다. 기악을 위한 자유형식의 작품이 소품이다. 밀러는 자유형식 작품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토카타(toccatà)’ ‘환상곡(fantasy)’ ‘기상곡(capriccio)’ ‘성격적 소품(Character piece)’ ‘탄식곡(lament)’ ‘연습곡(étude)’ ‘표제음악(programm music)’ ‘교향시(symphonic poem)’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양식적인 기준에 따르면 주로 낭만주의에 속하는 작곡가들이 발표한 다악장 형식이 아닌 기악 작품을 소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소품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한 곡 한 곡 독립된 형태로 악곡의 내용을 암시하는 표제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악곡(多樂曲)형식(모음곡이 대표적이다)을 취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악곡의 내용으로 소품을 규정하는 학자들도 많다. 독일 음악학자 미헬스(Ulrich Michels)는 성격소품을 “통일적이고 강하게 두드러지는 성격을 보이지만 아무런 음악외적 제목을 갖지 않고 장르 명칭만 가진 것까지도 포함됨”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많은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소품은 표제악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성이다.

## 일본속으로 들어 온 ‘고래섬’ 이 첫 관객을 만나다!

안윤희

2006년 10월 18일, 부산시립극단과 일본의 킨가도 극단의 문화교류 기획공연인 ‘고래섬’ 일본공연을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떠났다.

10월 18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통해 동경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긴 시간동안 지하철을 이용해 신주쿠로 이동했다. 도쿄도청이 자리한 이곳은 일본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특히 경제의 중심지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공연장은 키노쿠니야의 4층에 위치한 키노쿠니아홀이었는데 이곳은 동경시민이면 누구나 알만한 곳이었으며 위치 또한 신주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았다. 한국으로 본다면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중심가의 아주 큰, 예를 들면 교보문고라 해야 하나. 키노쿠니아홀은 8층 규모 건물에 1~2층은 서점이 들어서 있고, 4~5층이 공연장이었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이지만, 400석 규모의 키노쿠니아홀은 순수 연극에만 문을 여는 연극전용 극장으로 일본에서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라 공연장 예약이 2, 3년 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예약이 되었다고 해도 심사를 통과 해야만이 공연이 가능하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획대로 준비된 검증된 극단의 작품만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키노쿠니아홀에서 연극을 보고 자란 청년들이 이제 중년이 되어 항상 키노쿠니아홀을 찾고 있다고 한다.

내일은 19일, 동경의 아니 일본공연의 첫 공연일정이 시작되는 날이니 만큼, 부산에서 가졌던 5회의 공연 일정과 서울에서의 5회 공연, 총 10회 공연으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배우들의 연기와 스텝들의 앙상블은 이번 일본공연의 시작에서는 더욱 더 완성도 높게 일본관객들과 만날 듯 싶다.

2006년 10월 19일.

일본, 동경, 신주쿠 키노쿠니아 홀에서 고래섬은 오후 7시에 막을 올렸다.

오늘 공연에서 배우들은 모두 에너지가 넘치며 컨디션도 좋아 보여 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오늘은 배우들이 상호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바탕이 된 신뢰 있는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작품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일본 관객들은 우리나라 관객들과 달리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는 들었지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바른 자세로 공연을 보며 자신의 느낌을 발산하지 않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다. 공연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생각으로 내심 걱정을 했지만 극장을 나서는 사

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일본에서의 첫 공연을 보고, 이 글을 적고 있지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해본다. 두 번째 공연, 세 번째 공연까지 천천히 느낌을 보충해 어제와는 다른 오늘 공연을 기록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다.

정말 앞으로 남은 공연이 기록되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오늘 객석에 꽉 들어찬 관객들만으로도 앞으로의 일본 공연의 호응과 성과를 가늠해 본다. 우선 배우들에겐 드문드문 들어 찬 객석 공간보단 오늘처럼 꽉 찬 극장 공간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꽉 들어찬 관객에게서 힘을 얻어, 연기의 에너지를 모아 최고의 표현을 해내는 배우들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지런히 움직여 주는 스텝들의 바쁜 손길이 오늘날은 모두가 완숙하게 보일만큼 훌륭한 공연이었던 것 같다.

배우들은 말한다. 힘은 들었지만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에너지가 좋았고, 표현 감정이 연기자간의 서로가 진실 되게 소통되는 그 무언가를 느꼈다고... 앞으로 남은 일본에서의 순회공연들이 날로 발전하고 지금도 모자람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해주고 싶다.

스텝은 배우가 무대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며 부지런히 준비를 한다는 사실과 배우는 이런 스텝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 공연을 통해 단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먼 훗날 문득 그리워하며 살아 갈 것이다.

오늘 이 곳을 다녀간 관객들은 좋은 추억을 가슴에 묻고 돌아 갈 것이고, 이 작품에 잠시나마 참여한 나는 그 사실이 두고두고 자부심과 애국심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기억 될 것이다.

(이글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 6개 도시에서 13회의 공연을 갖는 부산시립극단과 일본 김가도극단 합동공연작품 '고래섬' 작업에 부 무대감독으로 참가한 안윤희씨가 일본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10월 19일 일본 신주쿠 키노쿠니아홀에서 막이 오른 고래섬은 일본 동경을 비롯 6개 도시에서 13회의 공연을 갖는다.

## 베토벤 / 교향곡 5번, 7번 (DG7175)



구스타보 두다멜, 지휘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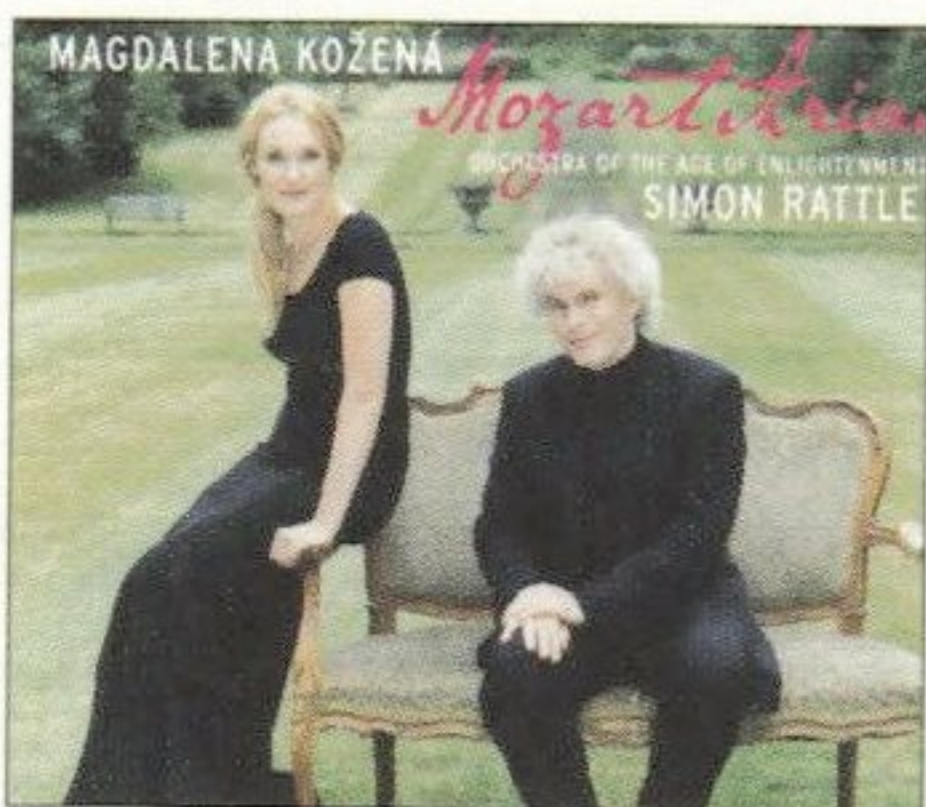
**“베네수엘라에서 베토벤은 우리 오케스트라의 상징입니다.”**

- 구스타보 두다멜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놀라운 이야기

여섯 살 꼬마 구스타보 두다멜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작은 군인 인형들을 오케스트라처럼 세운 다음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지휘하는 것이었다. 그 작은 꼬마는 12살 소년이 되면서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자신만의 실내 관현악단을 만들었다. 17살 때에는 Simn Bolvar라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를 맡기 시작하였고 25살이 된 현재 그는 젊은 세대중에서 가장 성공한 지휘자로 꼽히고 있다. 음악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두다멜은 베네수엘라의 중서부 메리다 산맥에 위치한 라라주(州)의 도시 바르키시메토에서 자랐다. 그 지역은 주민 75%가 빈곤층으로 각종 범죄와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었다. 두다멜이 어릴적부터 음악에 심취하지 않았다더라면 결국 그도 거리의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중략)

“거리에서 모인 베네수엘라 아이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베토벤 음악에서 희망을 찾고 그것을 주변에 나눠주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Shirley Aphthorp/번역 : 안철민(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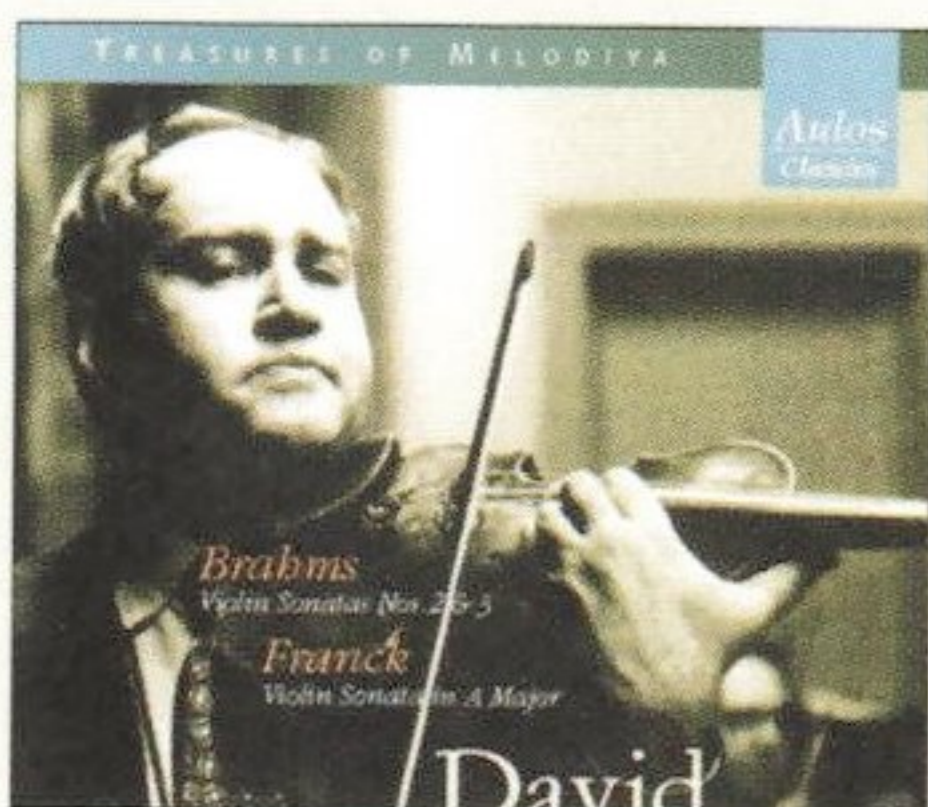
## 막달레나 코체나 & 사이먼 래틀 모차르트 아리아집 (DG7174)



2004년 그라모폰 어워드 대상과 올해의 연주가 상에 빛나는 막달레나 코체나의 눈부신 신보 <모차르트 아리아집>

막달레나 코체나는 경력 초기부터 모차르트의 음악은 ‘나의 운명’ 이었다고 말한다. 1995년 잘츠부르크에서 열렸던 제 6회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그녀였고, 1996년 조국, 즉 체코 공화국 브르노에 있는 야나체크 극장에서 처음으로 노래했을 때, 그녀가 맡았던 역할이 다름 아닌 <코지 판 투테>의 도라벨라였다. “모차르트는 꾸밈없이 노래되어야 한다.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 말하는 것처럼 노래한다”고 코체나는 말한다. 코체나는 상당한 기교적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편안함을 얻으려면, 이 음반에서처럼, 원전 악기 반주에 따라 노래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브람스 &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AMC2070)



다이드 오이스트라흐 (바이올린), 스비아토슬라브 리흐테르 (피아노)

**러시아의 보물들... 제1탄! 설명이 필요 없는 불후의 명연주!!**

음반사인 아울로스 미디어에서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보물창고 멜로디야의 최고 명연주 음원만을 골라 새롭게 발매하는 <멜로디야의 보물들>시리즈 중에 그 첫 음반으로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남긴 불후의 명 음원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및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선택되었다.

그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이스트라흐의 순수한 톤과 뜨거운 열정! 작곡가의 우수를 완벽하게 파악한 가슴에 사무치는 해석으로 음악적인 면에서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없는 최고의 명연주다. 충실한 음악 해설과 많이 개선된 음향으로 만날 수 있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 두 도시 이야기 : 부산-서울/서울-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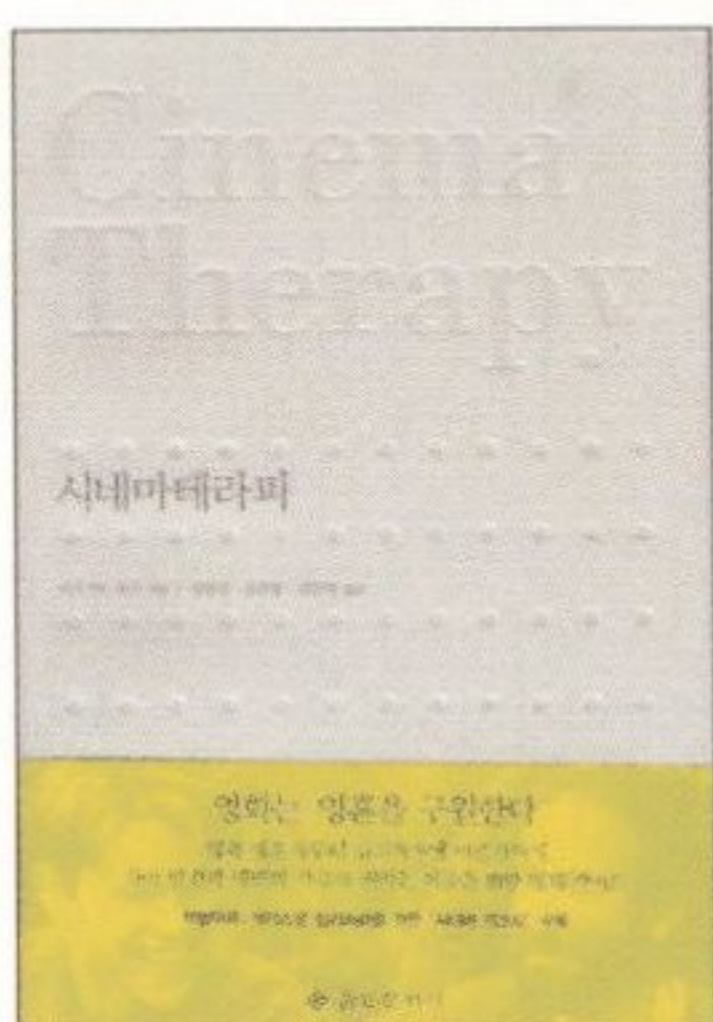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 현실문화연구 | 347p | 6,000원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의 공식 가이드북. 39개국 230여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부산 비엔날레에 초대되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현대미술전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작과 활약을 소개하고, 글과 이미지를 비주얼하게 편집하여 책을 펼쳐보는 동안 미술관에 실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작가에 대한 단순 정보를 실는 데 그쳤던 기존의 가이드북과는 달리, 이 책은 아트북이라는 개념을 현대미술에 적용시켜 책 그 자체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책 제목은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두 도시 이야기: 부산-서울 / 서울-부산>에서, 미술전 제목은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작품 '두 도시 이야기'에서 빌려왔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파리와 런던을 오가면서 전개된다면, 부산비엔날레의 <두 도시 이야기>는 글로벌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부 삶의 문제를 '부산과 서울'로 표상해 다루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미술, 현대미술의 국제적인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산비엔날레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미처 이 가이드북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도 권한다.

## 시네마테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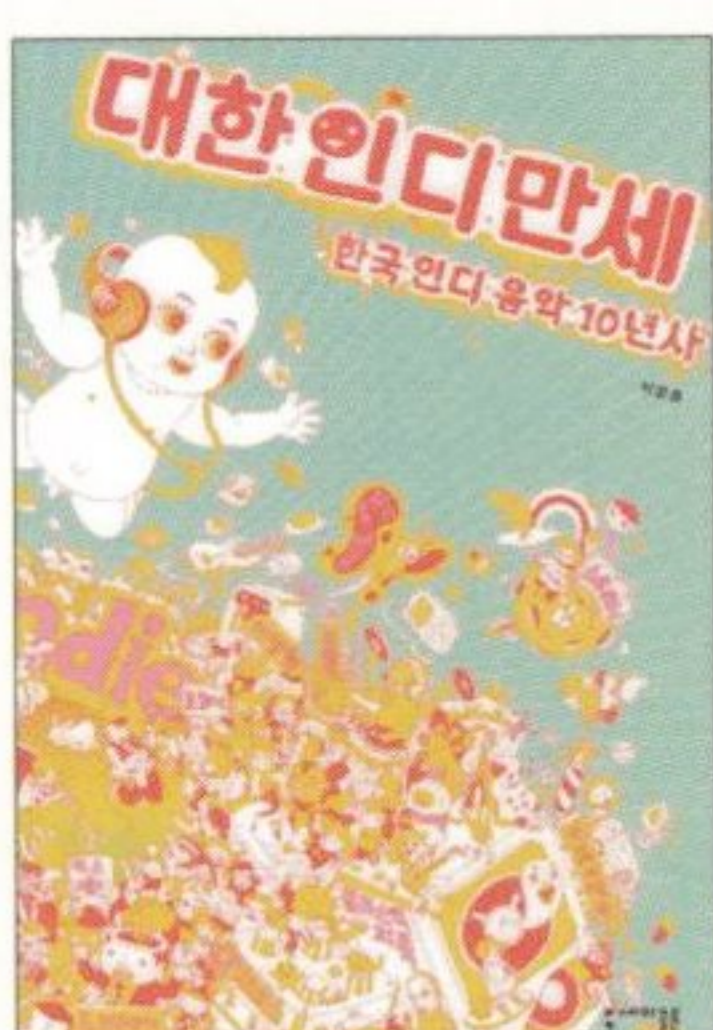
비르기트 볼츠 지음, 심영섭 외 옮김 | 을유문화사 | 288p | 15,000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실컷 울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곤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 폭소를 터뜨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도 하지 않는가. 영화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영화치료이다. 연극치료(사이코드라마), 음악치료, 독서치료와 같은 예술치료 가운데 가장 뒤늦게 태동한 영화치료는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비디오의 보급과 함께 확산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 임상심리 및 영상 응용 분야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심리치료 연구가들이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말'이라는 기호에 오감을 더한 다양한 '이미지'로써 영상시대를 살고 있는 내담자의 기호와 욕구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가 지닌 변화의 힘을 심리치료적인 도구로 이용한다면, 청소년 매체 상담이나 학교 상담, 여성주의 상담, 가족 상담, 이혼 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문화를 담아내는 매체인 동시에 인간 경험의 깊이를 조망하는 새로운 잠재력을 지닌 영화의 새로운 역할을 알아보자.

## 대한인디만세 - 한국 인디 음악 1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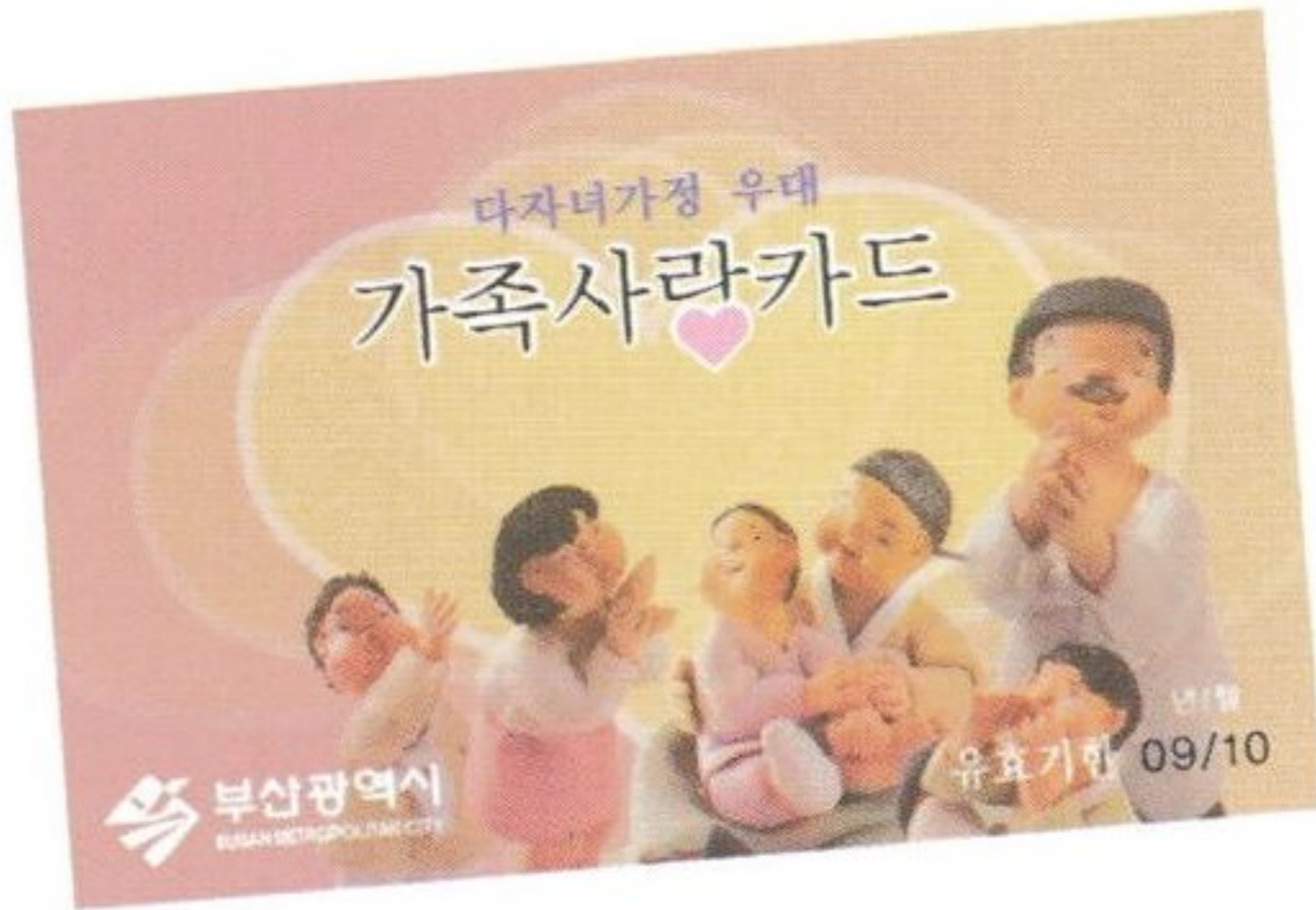
박준흠 지음 | 세미클론 | 415p | 27,000원(CD부록)



'인디음악' '인디밴드'의 '인디'는 무슨 의미일까. 인디음악은 '인디펜던트 뮤직 (Independent Music)'의 줄임말로 '독립 음악'이란 뜻이다. 여기서 독립이란 외향적으로는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고 내적으로는 간섭받지 않는 '창작'을 위해 뮤지션 스스로가 선택한 독립적인 '태도'를 뜻한다. 그러나 인디 음악은 펑크나 하드코어처럼 비주류 음악 장르를 뜻하는 말로 오인되거나,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철없는 젊은이들의 음악으로 오해받아왔다. 저자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팔릴 것 같은 상품들만 기획하고, 모범 답안에 따라 '만들어진' 아이돌 스타와 공중파 방송에 의존하는 주류 대중음악계는 이미 음악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음악은 상품이기에 이전에 '예술'이다. 천편일률적인 주류음악에 질린 대중들이 이미 음반시장에서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다양한 개성과 감각을 지닌 뮤지션들이 활동중인 인디 신(scene)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희망이기도 하다. 한국 인디음악 역사도 읽어보고, 현재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를 이끌어 갈 인디 명곡 29곡도 감상해보자.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다자녀 가정에 입장권 20% 할인



부산문화회관에서는 11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발급하고 있는 '가족 사랑카드' 소지자들에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 사랑카드' 소지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등 예술단 공연시 현장에서 가족 사랑 카드를 제시 할 경우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사랑카드'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비롯하여 부산우유, (주)비락, (주)햇님토이, 아가방, (주)세정 등 제조분야와 부산대학교 병원, 봉생병원 등의 의료비 할인, 은행 금리우대, 시설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중국 초청 공연

- 11월 20일 중국 북경 음악청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그동안 꾸준히 교류해온 중국광과민족악단 초청으로 오는 11월 18일 중국 공연길에 오른다.

11월 20일 중국 북경음악청에서 연주하게 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국악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창작 국악관현악곡들을 중국 현지인들에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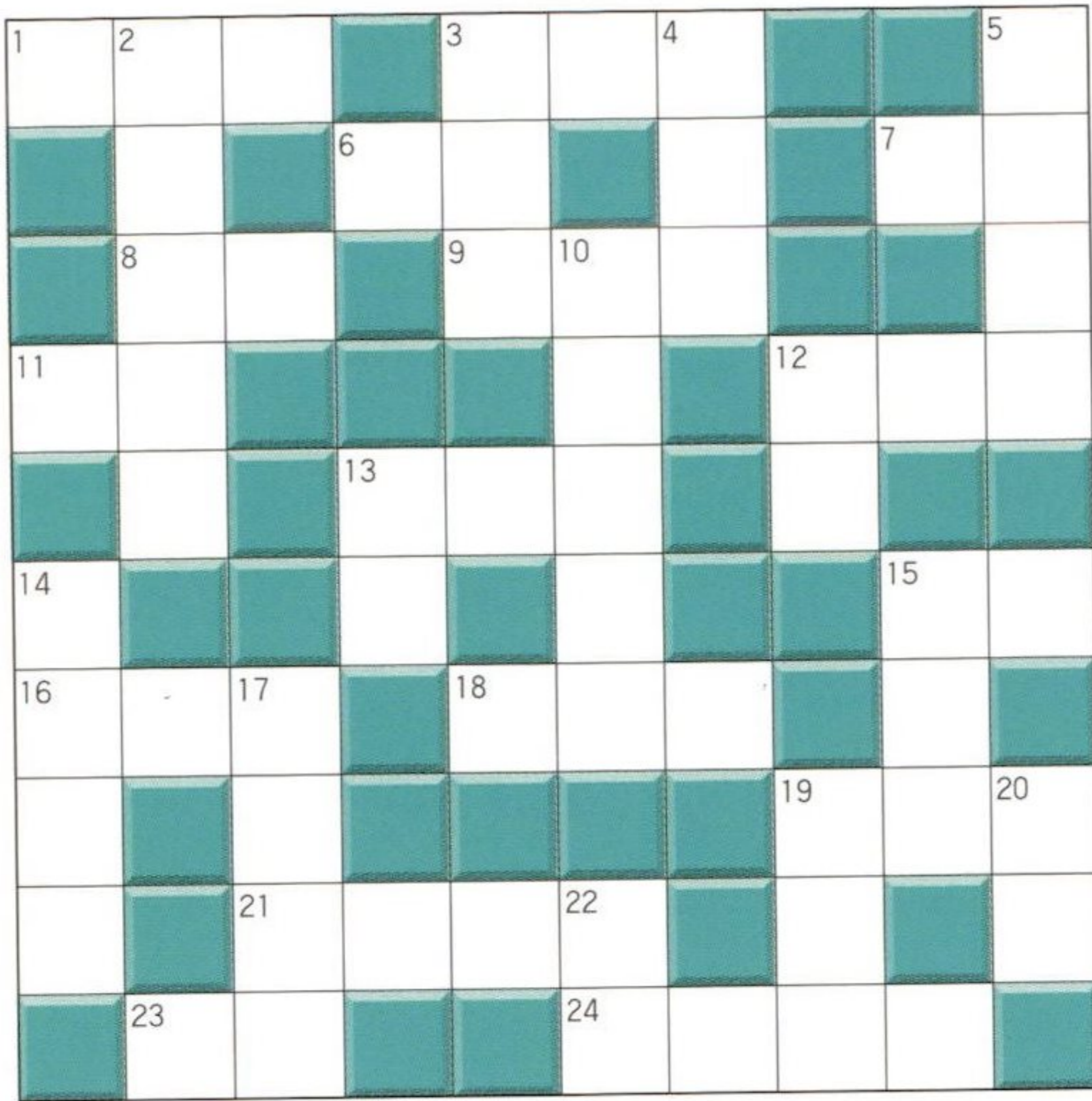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 연주할 곡들은 '고구려의 혼(협연/김권식)' '화랑' '바람아 완산칠봉 바람아(협연/박성희, 정선희)'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창작관현악 '바람의 유희', '신모듬' 등이다. 특히 2부 무대에서는 2005년 전 중국 영웅십걸에 4위로 뽑힐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 광과 민족악단 예술감독인 팡가봉이 박범훈 곡 이호를 위한 창작관현악 '향(협연/왕영)'을 지휘한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님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회원 번호로만 운영되어온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에 회원님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가로문제**

- 11월 28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을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 12월 8일, 9일 이틀간 부산시립극단 앵콜공연으로 만나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극.
- 시체를 태우고 남은 뼈를 추려 가루로 만든 것을 바람에 날리는 장례.
- 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념론의 철학자. 모든 사물의 전개를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나누는 변증법(辨證法)을 주장했다.
-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 고전적인 단정함과 세련된 관현악법에 의한 화려한 표현이 특징인 프랑스 작곡가. 대표곡으로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동물의 사육제 등이 있다.
-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우두머리.
-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 빠져 죽은 바다.
- 조선시대 시인 겸 명기. 서경덕, 박연, 폭포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린다.
- 토착적인 서민생활 풍속사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그려낸 최명희의 대하소설.
-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현세

- 의 부모를 위해서 창건했다고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토함산 기슭의 사찰.
- 한강 가운데 있는 섬.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교통요충지로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 63빌딩 등 많은 아파트 단지와 높은 건물이 몰려있다.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여러 개인이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집합적 대응양태. 극장의 화재, 여객선 침몰 등 수습하기 어려운 대혼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경제황기에 나타나는 혼란도 이 현상으로 설명한다.
- 아무 근거없이 널리 퍼진 소문.

**세로문제**

- 안익태 작곡의 합창과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교향적 환상곡. 후반부 합창 부분에 애국가의 선율이 흐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문(門)의 수호신.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하여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미술작품에서는 4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 식비가 가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계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의석을 보유하는 다섯 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일컬어지는 약용식물로, 뿌리의 형태가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부처진 이름이다.
- 천연기념물 199호. 백로와 비슷하나 훨씬 더 크며, 다리와 부리가 길다.
- 영국 법정에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6마리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마굿간 소년의 괴기적인 범죄를 실화를 소재로 한 피터 웨퍼의 대표작.
- 고대 중국에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장치.
- 1912년 항해에 나섰다 빙산을 만나 침몰된 대형 초호화 여객선.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되었다.
-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 예전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을 댄다.
- 지하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액체 탄화수소 또는 이를 정제한 것.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요인 또는 국제불안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나호 정답**

전	그	바	이	올	린	페
시	나	리	오	은	명	암
작	스	인	상	파	사	
전		논	어	스	십	계
통	영		공	칼	로	리
제	치	주	몽	마	오	
권	모	술	수	칼	의	노
		령	문	신	휴	원
아	쟁	연	상	일	정	
치		금	과	옥	조	법
						원

- 큰집 식사권**  
박흥관(영도구 동삼1동)  
박규한(사상구 모라2동)  
이주연(부산진구 양정2동)  
김인섭(남구 대연5동)  
손현경(사상구 괘법동)
- 산마루컴터(구 돈방불패)**  
신희경(영도구 동삼동)  
이상미(수영구 수영동)  
김재순(금정구 부곡2동)  
이현화(영도구 영선동2가)  
오동숙(남구 용당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신영옥(동구 수정1동)  
최정운(금정구 부곡3동)  
이승출(연제구 연산9동)  
김성미(사상구 학장동)  
김가은(사상구 괘법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이서현(연제구 연산9동)  
성지윤(연제구 연산5동)  
하지영(남구 문현3동)  
김윤한(동래구 사직2동)  
김유미(해운대구 좌4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컴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http://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http://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1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 10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 경주 수학여행 다스가기 및 탁본 체험

좋은 사람과의 여행은 무료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 넣는 청량제이다. 10월 13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목적지는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자주 찾는 곳이지만 경주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탓에 '경주 수학여행 다스가기'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들의 기대가 어느때 보다 컸다.

오전 9:00 예술단 정기회원, 부산시립극단 단원 등 40명의 참가자들이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신라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거로의 여행길에 올랐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박물관 관람에 이어 탁본(한지뜨기) 체험장, 한국영상광고박물관 '뮤지엄Q'를 차례대로 둘러보며 여유로운 경주 나들이를 즐겼다.

10월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황창기씨와의 만남 시간. 연극의 경우 아무런 무대 장치가 없는 야외에서는 제약이 많아 회원들과 함께 꾸미는 상황극을 준비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하며 회원이 직접 나와 정해진 상황에 맞는 동작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 보이는 것이다. 이영일, 김은희 등 비교적 젊은 회원들이 상황극의 주인공이 되어 '고독'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보이며 참가한 회원들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주었다. 스스로 배우가 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재현하며 생애 첫 연극을 경험한 회원들에게 경주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의 도시로 새롭게 다가왔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 12월 8일(금) 우포늪 철새탐조 및 장승(숫대)만들기

창녕 우포늪에서 겨울철새를 관찰하고 나무조각으로 장승을 만들어 보는 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창녕 우포생태학습원 도착  
시청각 교육 및 장승(숫대)만들기
- 13:00 우포늪 철새 탐조
- 15:00 창녕 출발



### ▶ 1월 5일(금) 대나무 산책 및 굴구워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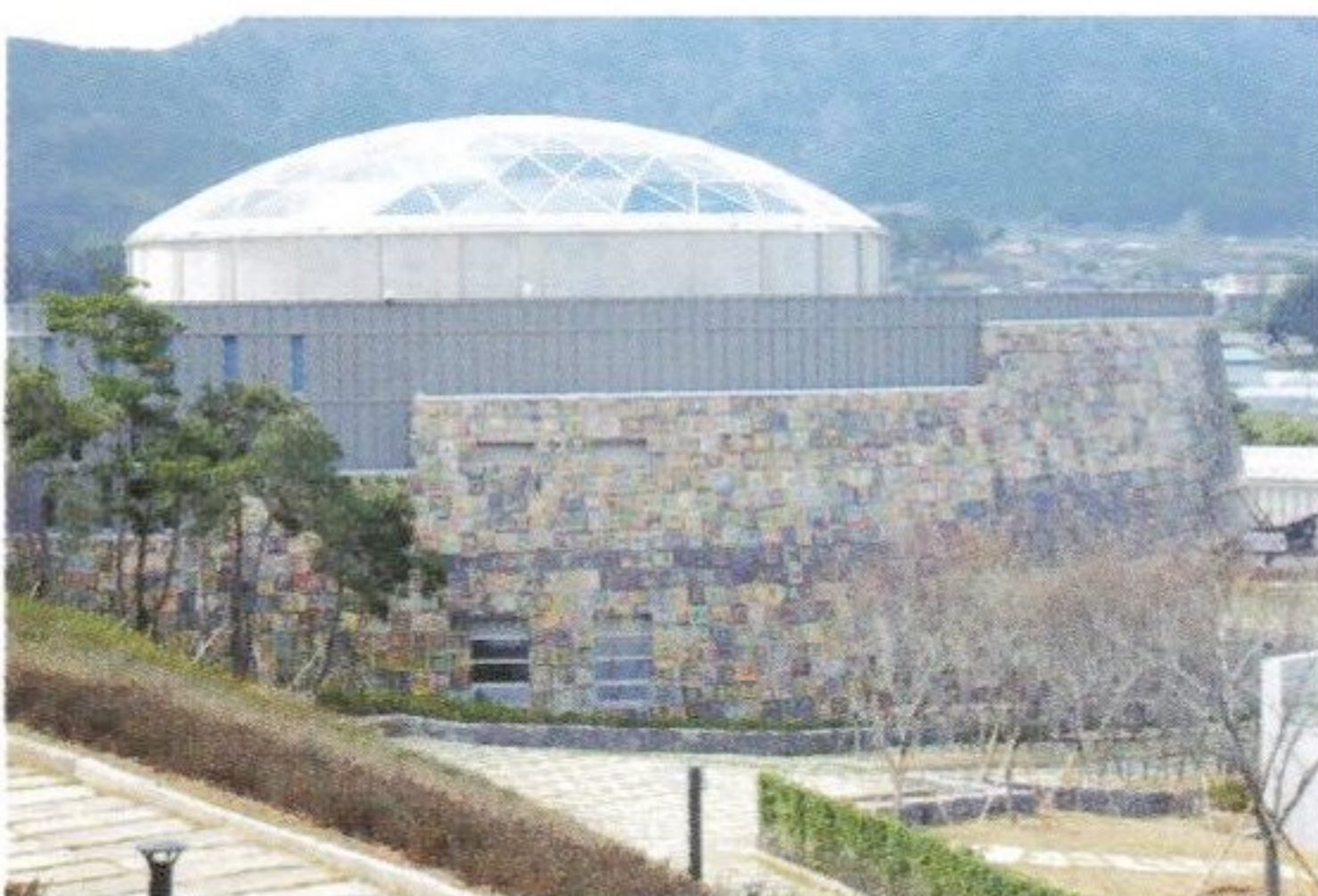
사천 비봉내 팜스테이로 떠나는 겨울여행.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1:00 비봉 팜스테이 굴구워 먹기
- 12:00 중식
- 13:00 대나무 숲 산책
- 14:00 고추따기
- 15:00 비봉내 팜스테이 출발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1월 당첨자

### ▶ 11월 10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과 단감따기 체험



####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문희재(부산진구 가야3동)  
김영진(영도구 동삼1동)  
정대자(동구 좌천1동)  
전우봉(부산진구 당감3동)  
허순옥(해운대구 재송1동)  
박태수(사상구 주례1동)  
김민희(영도구 영선동4가)  
이상목(해운대구 중2동)  
이상훈(사하구 하단2동)  
전태우(중구 보수동2가)

####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정미란(동래구 명륜1동)  
박정희(연제구 거제 1동)  
최미희(해운대구 좌동)  
남효숙(연제구 연산1동)  
정복임(남구 남천동)  
이영희(북구 화명동)  
박경희(사상구 모라2동)  
정영호(금정구 서2동)  
정은주(연제구 거제3동)  
배은희(해운대구 좌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KOREA

## 부산문화회관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11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2003년 세 명의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1명의 베이스 권영준으로 구성된 3+1로 출발하여 2005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테너 김지호와 피아니스트 최혜련, 음악평론가 윤성원이 멤버로 가세하여 4+1로 활동하고 있는 남성성악앙상블 4+1 연주회.

남성성악앙상블 4+1은 감미로운 음색, 품위 있으면서도 강렬한 울림으로 객석을 사로잡는다.

#### 프로그램

4+1과 함께 즐기는 뮤지컬의 세계/자! 나를 보게 (뮤지컬 'Wild Cats' 중에서), 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서)

4+1과 함께 만나는 각 나라의 민요/경복궁 타령 (한국민요, 김희조 채보), 돌아오라 소렌토로(이탈리아 민요)

4+1과 함께 부르는 편안한 가요/기도, 사랑이여

4+1의 신나는 무대/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우리들은 미남이다

• 출연/테너 서명보, 테너 김지호, 테너 김동국, 테너 오동주, 베이스 권영준, 피아니스트 최혜련

• 해설/윤성원

###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수제천(집박/유경조·소금/김영민·대금/강영진, 이만형, 강은주·피리/박영은, 강영현, 정주아·해금/김민정, 윤혜승, 최윤희·아쟁/홍영혜 외)  
아쟁독주 '박대성 류'(아쟁/최영훈·장구/신문범)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18현/정미자, 윤경선·22현/김혜진, 정세희·장구/장미진)

관소리(관소리/정선희·고수/신문범)

산조합주(대금/한영길·피리/김경수·해금/방병원·아쟁/최희정·가야금/윤경선·거문고/강상호·장구/신문범)

###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한영숙류 태평무(춤/윤은하)

동래학춤(춤/장래훈, 이성원, 김병주, 이정식, 박상용)

진도북춤(춤/이현숙, 김병주·태평소/이창규·상쇠/김운호·북/최의욱·장고/김미란·징/류권홍)

성주허튼춤(춤/서정숙)

춘접무(춤/강모세, 안주희)

설장고춤(춤/김운호·태평소/이창규·상쇠/장래훈·북/최의욱·징/류권홍)

• 안무, 구성/ 홍기태

### •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정가회 연주회'

부산 정가회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성악곡인 정가를 공부하며 연주하는 예술단체로서 전문음악인을 중심으로 일반대중,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 정가를 보급계승하고 있다.

#### 프로그램

가곡/우조 초수대엽(이동영), 계면조 평풍(박진희), 우조 언락(정정길), 우조 우락(한국소년소녀정가단)

가사/황계사(황경자), 백구사(김무형), 매화가(박선미)

시조/평시조(장정훈), 사설시조(이종록), 남창지름시조(장지영), 중허리시조(서월당)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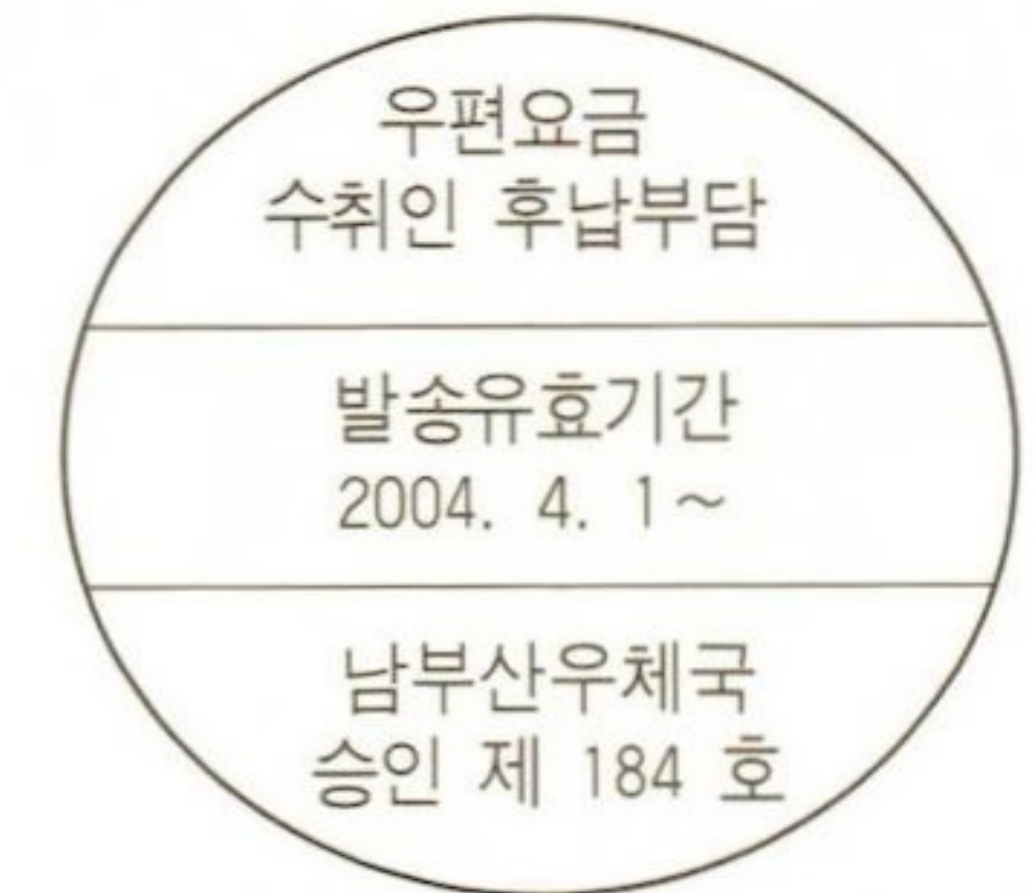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천년의 이미지

The 55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제55회 정기공연

안무·구성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겨울

## GYEOL

숨결 靑  
바람결 紅  
물결 黃  
소리결 黑  
춤결 白

우아와 장엄 그리고 열정  
E legance, Solemnity and Passion

### Staff

훈련지도	이윤희
대본·연출	황해순
무대디자인	황경호
음악	서상환
의상디자인	이호준
악기·소도구	조남양
	정승천
영상	김상현
사진	이승운
행정	김병환
	이명례

특별출연 버숨새 예술단

무조음	대명향	서종철 곽동인 전인수
기획소	희보품	박소윤 김태훈 안정숙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2006. 11. 8(수)-9(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문화회관 협찬 ForAD Mr. 리 의상실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금정구: 신나라레코드 518-6686(부산대앞), 골든악기사 512-4295(부산에고앞) 서면: 동보서적 803-8001, 영광도서 816-9500, 유니트레장 462-0833 (까루프 내)  
 남포동: 남포문구 245-8911, 문우당서점 245-3843, 남구: 면학도서 623-9404(경성대 앞) 해운대구: 해운대약국 752-0100, 비바체클레식 743-0003(선프라자 1층)  
 사하구: 향학서점 203-9381(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부산은행 (부산, 경남) 200개 지점

러시아 3大 발레단

키에프 쉐브첸코 - *Kiev Shevchenko*

주역들과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Swan Lake*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작 '백조의 호수' 와 만나는  
연말연시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무대



출연 : 키에프소년소녀발레단, 키에프국립발레단 솔리스트

2006. 12. 29(금) 오후 7:30 ▶ 12. 30(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문화회관

■ 입장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할인)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42),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